국토최남단 마라도 방생법회
제주불교성지순례 ..... (주)다도투어
www.dadoTour.co.kr
TEL (064)724-1185

현대불교

천년고찰 파주 보광사 납골당 영각전
부처님 품안에서 왕생극락하소서
031)948-4440 한글도메인 · 납골당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7년(서기 2003년) 3월 19일 수요일(주간) 제413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비구니부 설치, 왜?

조계종 총무원 법장스님이 13일 교계 언론과 가진 간담회에서 총무원에 비구니부를 설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법장스님은 "비구니부를 따로 두는 게 좋겠다는 여러 스님들의 견해를 고려해 현재 비구니부 설치에 필요한 입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배석했던 총무부장 성관스님과 기획실장 현고스님은 "비구니부 설치는 비구니에 대한 배려가 아닌 비구니의 인적 자원 활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승가 구성원의 과반이 비구니 지만 종단 차원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종단에서 공식 기구를 만들어 조직체계를 세움으로써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문화나 사회복지 같은 여성의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분야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충분히 역할을 해 줄 경우 그만큼 종단의 위상도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구니부 설치 추진에 따른 고민도 적지 않아 보였다. 법장스님은 "비구와 비구니의 계율이 엄연하고 승가의 오랜 관행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토로했다. 성관스님과 현고스님도 "비구니부 설치가 비구의 영역 침범으로 잘못 이해돼서는 곤란하며, 비구니의 활동 영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차원이자 종단적 활용 측면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법장스님과 총무원 집행부의 비구니부 설치에 대한 접근 방법과 인식은 바람직하다. 특히 비구 대 비구니, 다시 말해 세속적 개념의 성적 균형을 맞추겠다는 발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구니부 설치 유무가 핵심일 수는 없다. 비구니부 뿐만 아니라 문화, 사회, 복지 등 제반 분야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구니부를 설치해놓고 그 테두리 안으로 영역을 고착시킨다면, 이것이 오히려 또 다른 방식의 비구니 차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한명우(취재1부 차장)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051)632-0064
대구: (053)768-8008 광주 전남: (062)375-9986 전북: (063)255-2274 대전: (042)489-9390
충북: (043)258-3282 강릉: (033)643-5599 동해삼척: (033)521-6293 영주: (054)634-3429
경남 동부: (055)353-1196



◇14일 부산 영광도서 앞에서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참회와 정진의 108배를 하며 생명사랑 실천을 다짐하는 스님들. 사진= 고영배 기자

"자연환경수호 불교의 시대적 소명"

1만여 사부대중 고속철 천성 · 금정산 관통 전면 백지화 촉구

참회문 낭독 · 가두행진 · 108배로 생명사랑 다짐

'천성산 · 금정산을 살리기 위해 38일간 이어온 지율스님 단식정진의 정신을 지지하며 고속철 천성 · 금정산 관통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

자연환경보전과 수행환경수호를 위한 조계종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성타스님)는 14일 부산시청 앞에서 자연환경 보전과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불교도 정진대회를 갖고 경부고속철 대구-부산 구간의 금정산 · 천성산 관통 백지화를 촉구했다. 관련기사 7면

하유스님의 명고에 이어 38일간의 단식농성을 중단한 지율스님(내원사 산감)은 '생명에 대한 참회문 낭독'이라는 영상편지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문제를 이 시대 주요 사회문제로 안고 그 해답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천명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 위원장 성타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만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참회와 생명을 위한 대서원에 사부대중이 일심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진대회에 참가한 1만여 사부대중은 "파괴와 반대, 대립과 투쟁의 악순환을 넘어 이천만 불자와 모든 국민들이 생명사랑의 실천을 위해 정진하겠다"며 자연을 파괴한 공업(共業)을 참회하며, 환경수호의지를 다지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정진대회는 쌍계사 조실 고산스님의 생명을 위한 지혜의 말씀에 이어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윤희동 신부, 최열 환경재단 이사, 범산스님 등의 주제연설, 생명을 위한 시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본 행사에 이어 전국의 제방선원과 주요 사찰에서 동참한 1천 여명의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은 시청을 출발, 서면까지 생명을 위한 참회의 행진을 벌이고 영광도서 앞에서 참회와 정진의 108배로 생명사랑의 실천을 다짐하며 회향했다.

한편 범어사 통도사, 부산 · 경남 지역 시민종교대책위는 정진대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시민과 불자들의 뜻을 결집시키기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 △건설교통부 대안노선 제시 △부산노선 국정감사 △천성산 · 금정산 관통노선 백지화 등 4개항을 요구했다.

부산= 천미희 기자

"불교관련법 현실에 맞게 개정을"

법장 스님, 박희태 한나라대표 권한대행 접견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12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권한대행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불교 관계 법률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련기사 3면

법장스님은 "잘못된 법률로 불교계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문화재보수도 정부에서 하청을 주는 방식 대신 사찰이 직접 관장하도록 해야만 실질적인 문화재보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장스님은 또 성보박물관 관리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나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원효종 종정 법홍 · 해인사 고봉 스님 입적

3월 14 · 15일 다비식



◇법홍 스님



◇고봉 스님

대한불교원효종 제10대 종정 혜은당 법홍(慧隱堂 法弘) 대종사와 조계종 12교구 본사 해인사 선덕 고봉당(杲峰堂) 혜웅(慧雄) 대선사가 10일과 13일 각각 입적했다. 관련기사 3면

10일 부산 금수사에서 입적한 법홍스님은 세수 89세 법랍 80세로, 1925년 금강산 유점사에서 일우스님을 은사로, 운악스님을 계사로 득도한 이래 35년 영조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하고 건봉사, 월정사, 법주사, 대흥사 등 제방선원을 두루 거치며 수행에 전념했다. 63년 원효스님의 사상을 현대에 되살리는 생활불교를 표방하며 원효종을 창종했으며, 원효종 초대 총무원장과 8 · 9 · 10대 종정을 지냈다. 또 71년 해인사에서 묵담스님으로부터 제10대 동국율사 전법을 받아 한국불교의 율맥을 이어왔다.

법홍스님의 영결식은 3월 14일 부산 금수사에서 종단장으로 치러졌으며, 다비식은 양산 통도사 연화대에서 1천여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13일 해인사 극락전에서 "서로 화합하여 중노릇 잘하라"고 당부한 뒤 임종게를 남기고 입적한 고봉스님은 세수 72세, 법랍 55세로 1931년 충주에서 출생해 17세에 해인사에서 영월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인곡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해인사 선원장, 조계종 교무부장, 중앙종회 의원 등을 역임했다.

영결식은 15일 해인사 보경당에서 산중장(山中葬)으로 봉행됐으며, 가야산 연화대에서 다비식이 거행됐다. 김원우 · 박봉영 기자

지율 스님 단식 끝내
서울서 이어 받아

지율스님의 부산시청 앞 단식농성이 14일로 끝난 가운데 15일부터는 조계사 앞 천막농성장에서 릴레이 단식농성이 이어진다.

15일부터 16일까지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 세영스님과 안동 용수사 하유스님이, 17일부터 22일까지는 불교환경연대 조직실장인 법현스님이, 23일부터 25일까지는 운문사 승가대학 강사 해견스님이, 26일부터 31일까지는 회룡사 총무 성타스님이 이어받는다. 4월 1일부터는 운문사 승가대학 강사 세등스님, 회룡사 성환 · 지환스님, 망월사 주지 원산스님 등이 동참한다. 남동우 기자

북한산 관통도로 등 백지화 공약

건교부장관 "현노선 포함 재검토"

노무현 대통령의 북한산 관통도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금정산 구간 전면 백지화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우려는 10일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공약대로 기존 노선을 백지화하고 다른 대안노선을 찾으면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해 기존 노선을 포함한 상태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8일 단식농성중인 지율스님을 찾은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도 "백지화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현 노선을 포함해야 해당부서를 설득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해 농성장에 있는 사람들의 원성을 샀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부장 성관스님은 "대통령의 불교계 10대 공약 중 첫 번째 공약대로라면 이 부분은 논할 가치조차 없다"고 잘라 말했다. 기획실장 현고스님도 "발상의 일대 전환 없이 문제해결은 어렵다. 통치자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쐐기를 박았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법장 총무원장 취임식 24일 조계사서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 법장스님 취임식이 오는 24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열린다.

이날 취임식에는 내외빈 2,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행사는 종정법어, 중앙신도회장 등의 화환 증정, 중앙종회의장 및 문광부 장관 축사 등으로 진행된다.

한명우 기자

경 축

대한불교조계종 제 31대 총무원장 법장스님 취임법회



종단의 안정과 화합, 축하와 격려 속에서 제31대 총무원이 새로운 출범을 합니다.
뜻 깊은 자리에 수희 동참하시어 국민과 종도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종단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47(2003)년 3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조 계 사

대한불교조계종 제 31대 총무원장 법장스님 취임법회 준비위원장 성 관

문의 02)735-5861

사 설

고속철 반대 불교도대회를 보며

봄이 왔음을 아는 데 온산의 푸르름이 필요치는 않다. 인간사도 그렇다. 단 한사람만 깨어있어도 인류는 잠들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한 사람만 깨쳐도 만생명이 깨친다'고 한다.

지율 스님. 앞으로 한국 사회는 이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이다. 지난 2월 5일 경부고속철 천성산 · 금정산 통과를 반대하여 단식에 돌입, 대통령으로부터 노선 '재검토'를 받아냈기 때문이 아니다. 각성된 한 사람의 힘이 능히 만생명의 존엄을 지켜낼 수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생명을 지키는 진짜힘

지율 스님이 뿌린 '단식'이라는 씨앗은 14일 부산시청 앞에서 열린 '자연환경 보전과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불교도 정진대회'라는 나무로 자랐다. 하지만 이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아직 누구도 모른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불교도 정진대회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

'자연환경 보전과 수행환경 수호'라는 장황한 수식어를 단 '불교도 정진대회'에 대해 주최측에서는 불교적인 집회의 전형을 제시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불교적'인가. 법고를 울리고 목탁을 치면서 '생명의 존엄'만을 외치면 불교적인가. 결코 그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불교적인가. '법구경'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생명은 채찍을 두려워한다. 모든 생명은 죽음을 무서워한다. 내 생명에 이 일을 견주어 남을 때리거나 죽이지 말라."

바로 이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불교적 실천의 준거를 찾을 수 있다.

우선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참회를 전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반생명적이었나를 먼저 살펴야 한다. 물론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것이 온당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개인의 각성을 전제하지 않은 문제 제기는 구호로 그칠 수밖에 없다. '나'를 뺀 '우리'의 참회가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참회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번의 불교도 정진대회를 현대 문명과 그것에 근거를 둔 우리네 삶의 방식에 대한 성찰로 이어가자는 것이다. 현대 문명의 온갖 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반개발만을 얘기한다는 것은 공허한 외침이다. 근본적으로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전 지구적 파멸은 시간문제일 따름이다. '소박한 밥상'과 '작은 집'에 살기를 기꺼이 선택하는 사람이 다수가 되지 않고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참회 · 상생의 출발점 돼야

궁극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정부나 기업이 아니다. 자본과 정치는 인간의 탐욕을 자양으로 하기 때문이다. 좀더 냉정히 말하면, 반개발을 외치는 우리 모두가 개발의 '숙주'이기도 한 것이다.

결코 이번 불교도 정진대회를 금정산 · 천성산 통과 저지라는 개별 사안으로 함몰시켜서는 안된다. 우리 모두의 반생명적 삶에 대한 참회의 마당으로 삼아야 한다. 나와 이웃 그리고 자연과의 상생이 가능한 삶을 일구어나가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불교의 시대적 소명이다.

지율 스님은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38일간이나 굶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밥을 즐여야 할 차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성보문화재 'e-세상'에 모은다

조계종 전산관리 프로그램 개발, 효율적 관리 기대

보관상태 · 발굴시기 · 조각 등 9개 장르로
2007년까지 2600여 사찰 소장 4만건 입력

성보 관리도 전산화 시대를 맞았다.

조계종 총무원은 최근 '성보관리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12일 공개 시연회를 가졌다. 문화부와 기획실이 6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년여 작업 끝에 개발한 성보관리 프로그램은 종단 소유 성보문화재가 현재 어디에, 어떤 상태로 보관돼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성보관리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일 전망이다.

문화부는 올해 월정사, 신흥사, 마곡사, 법주사, 용주사 본 · 말사를 시작으로 2007년까지 24개 본 · 말사 2600여 사찰 소장 4만여 건의 성보 입력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와 자체 성보실태조사와 맞물려 1950년 이전 성보는 일제조사를, 이후 최근까지 조성된 성보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입력하게 된다. 96년 시작된 실태조사는 현재 19개 본 · 말사 1,711개 사찰을 마쳤고 2005년 마무리된다. 지난해 강원지역 조사를 마친 일제조사는 문화재청 지원으로 2010년까지 진행된다.

성보등록, 성보검색, 성보변동, 성보통계를 기본으로 구성된 성보관리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불교문화재의 특성을 살린 장르 구분에 있다. 조각, 회화, 건축, 공예, 석조미술, 서지 · 전적, 현판 · 주련 · 서예, 복식, 경판 등 9개 기본 장르 아래 다시 하위 주제와 세부형식을 설정했다. 조각의 경우 불, 보살, 나한 · 조사, 신중의 하위 주제를 뒀고 다시 수인, 기법, 존상구성 등의 세부형식을 입력하게끔 되어 있다.

또한 언제, 어디서 발견(발굴)됐으며 보존 상태, 타 기관에 대여하거나 기증한 기록, 보존처리 내용, 훼손이나 도난당한 적이 있는지 여부, 옛 자료 사진이나 관련 보고서 · 논문까지도 입력할 수 있어 해당 성보의 관련 기록을 축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화부장 탁연 스님은 "교구본사별이나 사찰별, 문화재별로 성보 현황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고 변동 상황을 그때그때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 성보관리의 기틀이 마련된 셈"이라며 "성보 보수나 도난시 원형 복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 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불교TV, 월말 사옥이전
4월14일부터 프로 개편

불교텔레비전(사장 이수덕, 이하 불교TV)이 이달 말 봉천동 새 사옥으로 이전한다.

불교TV는 10일 열린 제41차 정기이사회에서 31일까지 사무실을 이전하고 4월 20일까지 스튜디오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교텔레비전 회장 성우스님은 "사옥 이전을 불교TV 제2의 도약의 계기로 삼고 양질의 프로그램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지어진 새 사옥은 연건평 1,250평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불교TV는 1~4층을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4월 14일부터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고 4월 20일에는 불교TV 법당 무상사 삼천불 봉안 및 점안법회를 가질 계획이다.

여수령 기자

종단백년대계 마스터플랜 수립

법장 총무원장, 불교계 언론인과 간담회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종단 백년대계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법장스님은 13일 불교계 언론과 가진 간담회에서 "종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종단의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세부적인 여론조사를 벌여, 이를 토대로 세미나 등 검토과정을 거쳐 종단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법장스님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 실행안 마련을 이미 총무원 기획실에 지시했다.

법장스님에 따르면 종단 마스터플랜은 교육, 포교 등 세부 분야별로 구체적 안이 마련되며, 이를 위해 여론조사는 물론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심도 깊은 검토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장스님은 또 사면 문제와 관련해 "종정스님의 교시와 98년 종단사태 징계자에 대한 원로회의의 사면유시를 받들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 412호 3면 기사참조〉

이와 함께 대내외적 현안에 대한 적극적 입장표명을 통해 불교 위상을 높이는 차원에서 종단 홍보도 강화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94년 종단사태 징계자 모임은 이날 '2 · 27 원로회의 유시와 사면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입장'을 발표하고, "98년 종단사태 징계자 분만 아니라 94년 징계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사면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명우 기자

조계종 임시중앙종회 개최 25~29일

결산 · 법규위원등 선출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일 제2차 의장단, 각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157회 임시종회를 25~29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중앙종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2002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 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의 건 △법규위원 선출의 건 △재심호계위원 선출의 건 △직능대표선출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 △동국학원 이사 후보 추천 동의의 건 △종법 개정의 건(총무원장 선거법, 교구종회법, 중앙종회의원 선거법) 등이다.

한명우 기자

조계종 24기 행자교육원
남녀행자 총 239명 입교

9일 개원한 조계종 24기 행자교육원에 최종적으로 239명(남행자 154 · 여행자 85명)이 입교했다.

조계종-선학원 합의에 따른 특별조치로 2000년 선학원에서 자체적으로 계를 받은 8명은 30일 입교해 신체 갈마와 5급 승가고시를 치르게 된다. 사미(니)계 수계식은 31일에 있다.

권형진 기자

중국,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 초청

중국 정부가 조계종 총무원장의 방문을 공식 요청했다.

11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 법장스님을 예방한 리 빈(李濱) 주한 중국대사는 "한국불교계와의 협력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중국 당국은 조계종 지도부가 빠른 시일 내에 중국을 방문해주길 희망하고 있다. 이달 중 10일간 일정으로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며 국가종교사무국 명의의 초청장을 법장스님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법장스님은 "초청에 감사하며,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답했다.

한명우 기자

태국, 연등축제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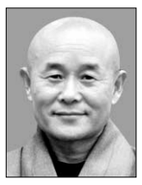
오는 5월 열리는 올해 봉축행사에 태국이 정부 차원에서 참가한다.

솜분 상이암밧 주한 태국대사는 11일 법장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등축제에 참가하는 태국공연단은 5월2일부터 사흘동안 거리행사가 열리는 우정국로에서 태국 음식과 수공예품 전시 축제를 개최, 수익금 전액을 조계사에 기부할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사서실장에 청학스님
조계종 총무원



조계종 총무원은 11일 사서실장에 청학스님(길상사)을 임명했다. 또 사서국장에는 감사국장으로 임명했던 태진스님을 전보발령하고, 공석이 된 감사국장에는 선암스님을 임명했다.

향봉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청학스님은 순천포교당 주지, 프랑스 파리 길상사 주지, 서울 길상사 주지를 역임하고 현재는 맑고 향기롭게 이사를 맡고 있다.

한명우 기자

'현 대' 만평

김 영 민



이어지는 사리탑 수난

2 · 27 원로회의 유시와 사면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입장

금년 신년 하례 식 때 法傳 宗正猊下께서「僧伽의 第一德目이 和合」이라는 말씀과 함께「赦免할 것은 赦免을 하라」는 法語를 내리신 데 대해 사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98년에 징계를 받은 승려로 한정한 2 · 27 원로회의 사면권고 유시와 관련하여 치탈 된 모든 스님들이 적어도 한번은 사면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의 견해와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3월 7일자 불교신문에 공고된 2월 27일자 원로회의명의 사면권고유시에서 사면대상을 '98년 종단사태와 관련하여 징계된 자로 한정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승가화합의 정의에도 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합니다. 먼저 유시에서 사면대상을 98년으로 제한하고, 94 · 99년 사태 때 징계된 스님들을 제외시켰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그 각 사태의 성격을 감안 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다음 同一 羯磨 · 同一說戒 등으로 표현되는 승가화합의 기본원칙의 하나가 갈마의 대상에서 같은 신분을 가진 자 가운데서 누구는 배제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동 유시는 승가화합의 정의에도 반합니다.

둘째, 우리는 종정예하와 일부 원로의원간의 이견이 불행을 자초했던 지난 종단사태를 감안 할 때, 원로회의는 종정의 교시(법어)가 如法하였을 경우, 이를 받들어 중앙종회를 비롯해서 종단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 합일시키기 위한 유시를 발표했어야 하고, 혹 미비점이 있을 경우는 이를 수정 · 보완하여 종정의 재가를 얻어서 발표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 유시가 상기 종정예하의 사면관련 법어를 인용하고 해석하는 부분/과정에서 사실의 왜곡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또 동 유시는 당일 원로회의에서 94년도 함께 사면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셋째, 사부대중 여러분! 지난 종단사태를 기억합시다. 94년은 내년으로 10년째입니다. 그리고 당시 치탈된 스님들의 연녕은 이미 70대입니다. 종단 내에는 치탈사면문제를 개개인 승려들에 관한 문제요, 흘러간 문제로 간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비구(耶舍 比丘)에 대한 징계를 둘러싼 논의의 결과가 불교교단사상에 저 유명한 第二結集이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해 주십시오. 우리는 종정예하의 사면관련 신년하례 법어를 계기로 종단적인 현안으로 떠오른 사면문제가 공정하고도 투명한 논의의 절차를 통해 해결됨으로써 종단의 법통이 확립되어, 사태의 와중에서 징계되는 우리와 같은 불행한 승려가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넷째, 원로 · 중진스님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우리들이 윤 월하 전 종정예하께서 1995년 4 · 8봉축 법어에서 '남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라'고 하신 말씀을, 또 이번 법전 종정예하의 사면관련 법어를 어떤 심경으로 받아드렸는지 모르실 것입니다. 치탈(멸빈)된 스님들이 어떻게 殘日을 보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께서 개혁종단의 초대종정이신 윤 월하 종정의 원상을 회복시킨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휘양산중의 중흥조로서 봉암사에 주석하고 계신 서암 전 종정예하께서 안락하게 열반에 드시고, 모든 치탈자들을 이해와 자비로 감싸 화합하도록 海量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 3

94년 종단사태와 관련하여 징계받은 승려모임 대변자 **덕 산 합장**

〈첨언〉 불교신문을 비롯한 여러 교계신문의 동 유시관련보도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고된 유시문(불교신문 3월 일자)도 모두에는 98년과 99년을 언급하고 있지만 결론부분은 "98년 종단사태와 관련한 징계자에 대한.... 사면"으로 결론짓고 있는 등 내용이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사면문제해결에 대한 종단내 여론 또한 분분하여 제 각각 이어서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면문제가 분명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논의되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발표하게 됐다는 것을 거듭 밝혀둡니다.

명 시설 양적 성장 조계종 복지사업 특정분야 편중 암

최근 2년간 정부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조계종 산하 복지시설이 25% 이상 증가, 불교 복지활동이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이용시설(복지시설에 살지 않으며 이용하는 시설) 편중현상과 복지 인력 수급체계 확보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2년여 동안 서울 궁동복지관, 의성노인복지관, 동여수노인복지관, 서울광진노인복지관 등 17곳의 복지시설 운영권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따냈다. 이로써 2년간 재단 산하 복지시설은 67개에서 84개로 늘었다. 약 25% 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 중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증가가 두드러졌다. 영주장애인복지관, 경주장애인복지관 등 최근 2년 새 4곳이나 늘어났다. 따라서 그 동안 소외분야였던 불교 장애인복지가 큰 활력을 띠게 됐다.

조계종 복지사업에 대한 사회적 평가도 크게 높아졌다. 서울 은평노인복지관, 서울노인복지센터 등은 지난해 서울시가 실시한 조사에서 이용자 만족도 최고의 복지시설로 선정됐다. 대전 서구노인복지관도 2002년 국내 복지관으로서는 처음으로 ISO 2000 인증을 획득, 불교 복지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복지관 위주의 수탁이 이루어짐으로써 여성, 노숙자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위탁받은 이용시설 107곳 중 31곳이 노인시설이라는 점이 이런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정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일시보호시설, 미혼모 보호시설 등에 대한 불교계 지원도 거의 없는 상태다.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와 노인 등을 일반 가정에서 수용하는 형태의 그룹홈 200여 개를 운영하는 가톨릭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전체 복지시설의 절반 이상이 서울 등 7대 대도시에 편중된 것도 문제다.

시설 25% 증가 · 장애인복지 관심 높아져
가정폭력 피해여성 · 미혼모 보호시설 전무
복지인력 수급 체계화 · 후원자 발굴 필요

복지 인력의 공급과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불교 복지의 마인드를 가진 전문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교육체계와 시설이 전혀 없다"며 "이를 통한 복지 인력의 지속적인 확충과 복지시설 간의 상호 네트워크를 통한 불교적인 복지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그룹홈 등 소규모 복지사업 활성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발굴 육성 등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호걸 총무부장은 "시설간 네트워크화나 인력양성 문제는 오래전부터 고민해 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때 이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개정 시급한 불교관련 법률들

정부 조직법 개정안 계기 문제점 살펴본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불교계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불교 관계 법률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또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이 13일 문화재청을 문화유산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급히 개정돼야 할 불교관련 법률을 짚어본다.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 고흥길 의원은 이날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급 기관인 문화재청을 차관급기관인 문화유산청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개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조계종은 불교전통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문화재청의 차관청 승격을 계속 요구해왔으며, 노무현 대통령도 선거 당시 이를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불교계,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 요구
전통사찰 재산권 침해 · 분쟁 정부개입소지
국토 이용관리법 경내 건축행위 원천 봉쇄

▶**전통사찰보존법**= 법률 가운데 불교와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면서도 문제가 많은 것이 바로 전통사찰보존법(이하 전사법)이다.

먼저 전사법 제6조에는 '부동산의 대여,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의 행위시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도 11조에 '주지의 재산취득 금지' 조항을 삽입시켜 놓음으로써 이미 종단의 통제를 받고 있는 사찰의 종교행위를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다.

전사법 제7조 재산목록 작성 비치 조항은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이나 시도에 등록을 하도록 소속종교단체가 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12조에는 '전통사찰 주지가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문광부장관이 재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조항에 소속대표단체를 배제함으로써 불교계 내부 분쟁에 대한 정부개입을 규정하고 있다. 조계종은 문제가 있는 전통사찰의 주지를 문광부장관이 임명할 때 반드시 소속대표단체(조계종 총무원장)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계 관계자들은 또 국가가 전사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 사찰의 토지를 수용할 때는 소속대표단체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문화재보호법**= 현재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문화재위원회 구성 규정을 시행령이 아닌 모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래야만 우리 문화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불교계의 문화재위원회 참여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분과위원회 설치 규정에 종교 관련 문화재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불교문화재의 효율적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토이용관리법**=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사찰 경내지에서 건축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도 시급히 개정돼야 할 법률이다. 국토이용관리법 15조와 동법 시행령 17조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사찰 경내지에서의 각종 시설물 설치를 종교용지에 한정하고 있어 전통다원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종교용지로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축 승인을 받아야 하나, 국토이용관리법을 무시한 승인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사찰의 고유한 활동까지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입적한 두 스님 행장

법홍 스님

10일 열반에 든 혜은당 법홍(慧隱堂 法弘) 대종사. 대한불교 원효종 8, 9, 10대 종정이라는 이력에 걸맞는 수행력으로 스님과 불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온 큰어른이었다. 특히 1971년 묵담스님으로부터 제10대 동국율사의 법맥을 이은 율사로 더욱 잘 알려져 있다.

1915년 5월 강원도 고성에서 태어난 스님은 9살 되던 해인 1923년 할머니 손에 이끌려 안양 삼막사에 갔다가 예불을 올린 후 출가를 발심, 행자생활을 시작했다. 1925년 금강산 유점사에서 일우(日宇)스님을 은사로, 운악(雲岳)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1932년 영호(暎湖)율사를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금강산 건봉사, 오대산 월정사, 보은 법주사 등 제방선원을 거치며 참선정진에 매진했던 법홍스님은 해남 대흥사에서 한철을 날 때, "마음의 조복은 네가 하던 습관을 능히 참고 이뭣꼬를 찾게 되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김동산스님의 가르침에 발심해 시왕전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정진하던 중 환희심을 얻었다.

이후 서울 신촌 봉원사를 거쳐 합천 해인사에서 여섯 번째 안거중 한국전쟁을 맞은 법홍스님은 북한군이 팔만대장경을 반출하려하자 효봉스님과 함께 온몸으로 수호하기도 했다.

1951년부터 부산 금수사에 주석해 온 스님은 비구 · 대처의 대립으로 혼탁해진 불교계를 바로잡고자 원효종을 창종하고 초대 총무원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일본으로 건너가 천태종 전통수행법인 밀교수행과 회봉수행에 전념하기도 했다. 1987년 2월 총 6권의 <원효대성사 전서>를 발간하는 등

6 · 25때 북한군 팔만대장경 반출 온몸 저지

원효스님의 가르침을 집대성했다.

시자를 따로 두지 않고 손수 빨래를 해 입을 만큼 계율에 엄격했던 법홍스님은 열반하기까지 하루도 조석예불에 빠지지 않는 생활로 후학들에게 흐트러짐 없는 율사의 삶을 살았다.

스님은 다음과 같은 열반송을 남겼다.

一念成四大(일념성사대)
因緣聚霧散(인연취무산)
心識本來空(심식본래공)
日月澄淸明(일월징청명)

한 생각 사대를 형성하니 인연따라 모였다 흩어짐이 안개와 같구나
마음과 생각 본래대로 공해지니 해와 달이 밤낮없이 밝구나.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고봉 스님

고봉스님은 1931년 10월 23일 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에서 태어났다.

스님은 17세가 되던 48년 홀연히 발심하여 가야산 해인사로 입산 출가하여 영월스님을 은사로, 인곡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이때 받은 법명은 혜웅(慧雄)이었다. 50년 상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후 수년간 선원에서 정진했다. 58년(27세) 해인사 강원에서 대교과를 수료했으며, 이듬해인 59년(28세)에는 가야산 환적대에서 목숨을 내놓고 용맹정진을 했다. 그 해 겨울 환적대에서 오도의 노래를 불렀다.

昨夜千萬毘盧峰(작야천만비로봉)
今覺一無太虛空(금각일무태허공)
無無無字亦無空(무무무자역무공)
幻寂臺亦幻寂空(환적대역환적공)
어제 밤의 그 많던 비로봉들이
이제 깨고 보니 본래 빈자리네
무라 하는 무자도 또한 비었으니
환적대도 환적한 공이네.

스님은 62년(31세) 응석사와 백흥암에서 일타스님 등과 함께 탁마장양하면서 수선수행에 일관했다. 64년(33세)에는 포교일선에 뛰어들어 하양포교당에서 중생제도에 전념했으며 그 후 71년(41세)에는 종회의원을 역임하고 73년(43세)에는 총무원 교무부장을 맡았다.

83년(52세)에는 해인총림 선원장의 소임을 맡아 선풍을 진작하고 후학을 제접했으며 또한 본분 납자로서의 정진원력은 수행자의 사표가 되었으므로 대중으로부터 존경이 이어졌다. 스님은 2001년 벽암록의 '碧巖(벽암)' 두 글자를 써 보이고 상좌 지산(智山)스님에게 법을 전했다.

가행정진 수행자 사표, 해인총림의 스승

스님은 13일 해인사 극락전에서 원적에 들며 다음과 같은 임종게를 남겼다.

一生離相相裏生(일생리상상리생)
一切諸相今際壞(일체제상금제괴)
西傳祖道誰問我(서전조도수문아)
伽倻高峰七佛峰(가야고봉칠불봉)
일생동안 상을 버리려는 상(相) 속에 살았는데
모든 상이 이제야 무너지는구나
서쪽에서 전한 조사의 도리를 누가 묻는다면
가야산 높은 봉은 칠불봉이라 하리라.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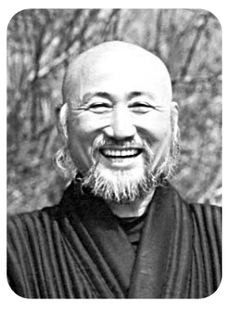
새롭고 정갈한 음식점
삼청동 고조선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한식 일품요리로 건강을 지킵시다
사전 전화예약 : 02)732-7355
삼청동 우리은행 뒤편(우리은행 주차장 이용)

제1기 명상교실 회원을 모집합니다 - 범주스님의 달마선원 -

(선문화예술원)



참나를 찾아서...



현대의 복잡한 생활환경속에서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예술과 명상을 통하여 동적인 명상으로 씻어내고 정적인 명상 (참선)을 통 하여 내면의식으로 들어가서 본성을 찾으며 청정한 속리산의 에너지로 마음을 비우고 재충전하여 우리의 삶이 좀 더 밝고 신명나고 행복한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곳.
여기는 예술과 명상의 축제가 있는 자연속의 명상휴식처입니다.

참나를 찾아서 진정으로 사람답게 살고져하는 이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신명나는 행사는 4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을 환희와 지복으로 만들어갈 좋은 인연의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달마선원 행사 및 프로그램

1. 명상전 마음을 열고 발심 할 수 있는 법문 법회.
2. 음악과 춤으로 동적인 명상 - 참선, 비파사나 등의 정적인 명상 자연감상과 산행의 침묵의 명상 등
3. 선묵화 배우기 (달마도 외 - 달마도의 대가이신 범주스님이 직접 지도하심)
4. 북과 소리를 통한 명상(동해의 소리) 배우기.
   동해의 소리는 불교음악과 타악기가 만나서 신명나는 동명상이며 동해소리의 유일한 전수자이신 종산스님이 직접 지도하심.
5. 그 외 유명한 예술인사님들을 초청하여 특별이벤트도 가끔 열립니다.

◆ **선문화예술회원으로 가입하실 분은 아래 몇가지사항을 지켜주십시오.**

- 2003년 4월 12일 토요일 명상축제 참가시 준비사항

1. 자기소개서 : 이름,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직업, 생년월일
2. 준 비 물 : 운동복, 운동화, 세안도구 등
3. 회 비 : ☞ 입회비 - 5만원 ☞ 강의와 숙박비용 월 15만원(1박 2일 2회)
   ☞ 매월 2번째와 4번째 토요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

※ 단 해외중요초청 등 부득이한 경우는 시간변경이 될수도 있음
※ 회비는 3개월에 한번씩 받습니다. 위의 50만원을 범주스님 계좌에 송금해주시고 본인의 사진 2장과 소개서를 4월 10일 이전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4. 계 좌 번 호 : **우체국 704023-02-000357 이현태**
5. 회원은 선착순 50명만 받습니다.
6. 문 의 : **달마선원 총무 보현경 보살 TEL : 054)535-0378 / FAX : 054)535-4750**
   경북 상주시 화남면 동관 2리 294번지 **달마선원** ◈ Homepage : dharma-art.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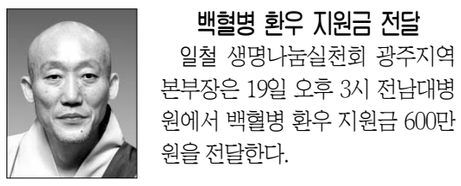




생축 발원 · 영가천도법회

고산 부산 혜원정사 조실은 7~26일 대웅보전에서 제12회 고승초청 화엄경 법회와 함께 생축발원 및 영가천도법회를 봉행한다.

일주문



백혈병 환우 지원금 전달

일철 생명나눔실천회 광주지역본부장은 19일 오후 3시 전남대병원에서 백혈병 환우 지원금 600만원을 전달한다.



24명에 석암장학금 전달

정련 석암장학회장은 3일 부산 내원정사에서 제56기 석암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24명에게 1,460만원을 전달했다.



진신사리 · 패업경 이운

자우 서울 정릉 금강사 주지는 4일 스리랑카 알루비하라 사원에서 부처님 진신사리와 패엽경을 이운해 왔다. (02)993-3744



매주 수요일 호흡법 수련

청견 양평 법왕정사 주지는 12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서울 청호불교문화원에서 호흡법 수련을 실시한다.



범어사 성보박물관 개관

성오 부산 범어사 주지는 26일 범어사가 소장한 불교문화재를 보관, 전시할 성보박물관을 개관한다.



귀농학교서 자연의학 강좌

도법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는 28~30일 실상사 귀농전문학교에서 제11기 자연의학 강좌를 개최한다. (063)636-3776



28일 사찰음식 시연회 열어

적문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장은 28일 오전 10시 경기도 화성 '둥지 청소년의 집'에서 사찰음식 시연회를 연다. (02)355-5961~3



'지하철 참사' 심사위원에

법타 영천 은해사 주지는 10일 발족한 대구 지하철 참사 실종자 인정사망 심사위원회 위원에 선임됐다.



태고종 대륜문도 회장에

학현 남양주 선덕사 주지는 10일 서울 법륜사에서 열린 총회에서 태고종 대륜문도회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훈련병들 대상 대중공양

채희주 심우회 재무는 회원 30여 명과 함께 23일 12사단 신병교육대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대중공양을 한다. (011)899-1777



보살계 수계 산림대법회

현문 양산 통도사 주지는 4월 6~8일 금강계단 보살계수계산림대법회를 봉행한다. (055)382-7182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

도원 부산 삼광사 주지는 15일 부산 서면 하나방에서 차문화보전회 주관으로 전통다도 시연 및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 행사를 열었다.



불교대중화 기여 공로패

주경중 감독은 14일 조계종으로부터 영화 '동승' 제작을 통해 불교대중화에 기여했다는 공로패를 받았다.

"고대 바닷길 불교문화교류 통로"

한-중-일 옛 항로 뗏목 항해 윤명철 교수



사학자 겸 탐험가인 동국대 윤명철 교수(사학과 겸임교수 · 사진)가 9세기경 한중일 세 나라의 바다를 통한 문화교류를 입증하기 위한 대항해에 나선다.

윤 교수는 오는 23일부터 한 달간 한국 및 중국인 대원 5명을 이끌고 중국 저장(浙江)성 저우산(舟山)군도를 출발해 산둥(山東)반도~

중 → 한반도 → 일, 불교전파 경로 입증할 것

인천~목포~완도(청해진)를 거쳐 일본 규슈(九州)까지, 총 2700km에 이르는 거리를 뗏목 하나로 항해한다. 저우산 군도에서 산둥반도까지 1200km는 배로 뗏목을 예인해 가고 산둥 반도부터는 그야말로 바람과 조류만을 이용해 '표류성 항해'를 하게 된다.

"9세기경 동북아시아 문화교류의 중심은 중국 산둥반도와 청해진, 일본 규슈에 이르는 바닷길이었고 그 길을 장악했던 사람이 바로 장보고였다. 그 항로를 구체적으로 복원해 보고 싶다"는 윤 교수는 뗏목 이름도 '장보고호'로 지었다.

뗏목 탐사의 실질적 출발지는 산둥성 룽청(榮成)시 석도진 부근의 적산법화원. 장보고가 828년 이곳에 거주하는 신라인들을 위해 세운 절이 있던 곳이다. 윤 교수는 <입당구법순례행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일본 천태종 3대 종정 엔닌(圓仁)이 847년 이곳을 출발, 한반도 남부 청해진을 거쳐 일본 규슈 하카다(博多)에 도착한 항로를 재현해 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시간마다 GPS(위성추적장치)를 이용, 항로를 좌표로 찍어 나간다.

"사실 동아시아 해양의 코드는 불교였다"는 윤 교수는 "고대 바닷길은 단순한 무역로가 아니라 불교를 비롯한 문화 교류의 통로였다"고 강조했다. "조류와 바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뗏목 탐사가 끝나 고대 항로도를 작성할 수 있게 되면 일본의 일부 역사학자들이 부인하고 있는, 불교가 중국에서 한반도를 거쳐 일본에 전파됐다는 사실도 자연스레 입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윤 교수는 고대 중국과 한반도가 5~6천년 전에도 바다를 통해 교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96년 중국 저장성~산둥반도, 97년 저장성~소흑산도~인천을 뗏목으로 항해하기도 했다. 권형진 기자

"한국불교 우수성 화두선에 있죠"

헝가리인 청안 스님 조계사 불교대학서 강연



"한국불교의 우수성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강력한 방법인 화두선의 전통이 살아 있다는데 있습니다."

유럽에서 한국불교를 알리고 있는 눈 푸른 청안(青眼) 스님(사진)이 3년만에 돌아와 국제포교사회 초청으로 12일 조계사 불교대학 강의실에서 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강연의 주제는 '불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3년 동안 유럽인을 상대로 한국불교를 포교한 경험을 털어놓는 자리였다.

청안 스님은 "유럽에서는 티베트 불교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최근에는 참선을 위주로 하는 한국 선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헝가리 불교는 대승불교에 가까운 성향을 갖고 있어 명상, 참선 등 선수행을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또 스님은 "한국에만 남아있는 화두선의 전통은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특징"이라며 "고국에서도 한국의 화두선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선은 종교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수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94년 화계사 조실 숭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청안 스님은 화계사 국제선원에서 5년간 선수행을 하고, 1999년 8월 지도법사 인가를 받았다. 현재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보광선원에 주석하면서 3곳의 선 센터와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동유럽 각지를 돌며 선을 지도하고 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區內 장애인들 새삶 터전으로

광주 광산구 장애인복지관 정민숙 관장



"광주에서 구 단위로 장애인복지관이 설립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광산구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7천여 광산구내 장애인들이 새 삶의 터전을 가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일 개관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복지관 정민숙 관장(59 · 사진). 정 관장은 "장애아동이나 정신지체자들은 제대로 자기 의사를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인 사이에서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 아동과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완벽한 교육 프로그램 조속한 시일 내에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정 관장은 <광산구 장애인의 생활상태와 복지욕구> 보고서를 작성해 개관식 날 배포했다. 또한 "장애인이 마음놓고 이용하기에는 현재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정 관장은 내년까지 복지관을 5층으로 증축할 계획이다. 강유신 기자

불교포럼 새 공동대표에 임완숙 · 김광하 씨 선출





불교포럼은 2월 26일 유임된 김연규 씨와 더불어 김광하(좌측 사진), 임완숙 씨를 새 공동대표에 선임했다. 임완숙 씨는 전국교사불자연합회장을 맡고 있으며 김광하 씨는 경불련 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터 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전 공동대표인 박승원 씨는 불교포럼 운영위원으로 활동한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조계종 포교사단 3돌 법회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대중)은 9일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서 창립 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탱화 점안, 봉선사 조실 월운스님 법어 등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는 조첼주 서울 · 경기 포교사단 교도소 5팀 팀장, 문용선 감사 등 46명의 우수한 포교사들에게 표창 및 공로패가 수여됐다. 이날 월운 스님은 "생활속 불교실천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광주불교의식대학 입학식

광주불교의식대학(학장 혜공)은 12일 강당에서 제5기 입학식을 열었다. 불교의식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광주불교의식대학 입학식에는 30여 명의 학인이 참석했다. 이날 입학식에서 혜공 스님은 "졸업할 때까지 부처님의 말씀과 의식을 배워 불국정토를 이룩하겠다는 초발심이 변하지 않도록 노력하자"며 학인들의 수행정진을 당부했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경북 공무원불자회 합동법회

경상북도와 도내 시군 공무원 불자회는 9일 영천 은해사에서 신년 첫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은해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봉행된 합동법회는 경상북도청 김영재(경제통상실장) 불자회장, 김휘동 안동시장을 비롯 김천, 경주, 안동, 구미, 영천, 상주 등 도내 12개 시군청의 500여 공무원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創宗 23週年 世界平和 祈願 大法會

귀의 삼보하옵니다.

불안한 세계정세 속에서 한국불교의 중추종단인 대한불교원융종이 창종 23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날로 발전하는 원융종의 오늘은 모든 종도님의 정진과 노력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정세는 더욱더 불교의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책임을 더욱 확고히 하여 세계정세가 안정된 평화로 귀결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이번 계미년 23주년 대한불교원융종 창종법회는 종단의 어른 큰스님들을 모시고 "세계평화 기원" 대법회로 봉행하고자 하옵니다.
공사다망하시더라도 모든 종도 및 불자님이 수희 동참하여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원장 법륜 합장

종 정 영산 일공
부종정 유념 법신
원로원장 송산
봉행위원장 법 륜
부 위 원 장 성관, 선진, 대월

봉행의원 (무순)
체관, 정관, 법인, 천호, 인관, 법원, 선덕, 성욱, 혜림, 체의, 불선, 보선, 진연, 정광, 체명, 은혜, 혜광, 대웅, 선명, 효계, 벽봉, 성견, 평신, 선덕, 석경, 혜민, 체도, 풍원, 보운, 성해, 홍재, 체의, 정광, 대천, 불선, 송월

내용
● 일 시 : 불기 2547년 3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 2동 704-39호 원융사
● 주 관 : 대한불교 원융종 총무원
● 문 의 : 전화 02)853-0531
팩스 02)853-0532

大韓佛教 圓融宗 창종 23주년 봉행위원회

국보급 불교문화재 수난 잇달아

쌍봉사 철감선사탑 훼손

도굴 미수…지붕돌 오른쪽으로 1/3밀려나

작년엔 고달사지·연곡사 부도 파손

국보 57호인 전남 화순군 쌍봉사 철감선사탑이 도굴미수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도굴로 인한 부도 훼손이 잇달아, 도굴꾼들의 주요 표적이 석탑에서 부도로 옮겨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문화재청은 13일 "지난 11일 탑의 지붕돌(옥개석)이 오른쪽으로 3분의 1가량 밀려났다는 신고가 들어온 쌍봉사 철감선사탑을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훼손 전


◇훼손 후

12일 현장조사 결과 도굴을 시도하려고 지붕돌을 옮기다 사리공(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몸돌에 파놓은 구멍)이 안 보이자 유물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는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문화재청은 밝혔다. 다행히 탑 자체에 손상은 입지 않았다. 철감선사탑은 탑 맨 위 장식인 상륜부는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도굴로 인한 부도 훼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국보 4호인 고달사지 부도 상륜부(탑의 맨 위 장식)가 도굴로 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재작년 3월엔 역시 국보인 연곡사 북부도(54호)가 무너져 다시 세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립중앙박물관 소재구 학예연구관은 "탑이나 부도를 도굴하는 것은 속에 봉안된 사리함이나 불상, 불경 등의 유물을 훔쳐 한 밑천 잡으려는 생각 때문"이라며 "더 이상 유물이 나올 만한 국보급 탑이 없다 보니 도굴 대상으로 부도만 남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쌍봉사 철감선사탑은 신라말 구산선문 가운데 하나인 사자산문을 개창한 철감선사(798~868)의 부도(스님들의 사리나 유골을 봉안한 돌탑)로 신라 경문왕 8년(868)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팔각원당형 양식에 조각 수법 또한 화려해 당시 조성된 부도 가운데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전날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수상한 남자 5~6명이 11일 오전 승합차를 타고 절에 왔었다는 사찰 측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들을 찾는 수사에 나섰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공불련-서울시청불심회 '불협화음'

서울시청, '중앙부처 중심 공불련 운영 불만' 가입 거부

서울시청 불심회가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이하 공불련) 가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자조직의 불화가 우려된다. 이 같은 양 단체간의 불화는 구청 등 단위 기관불자회 이탈 현상까지 일으킬 소지가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갈등의 발단은 서울시청 불심회의 공불련 가입 거부에서 비롯됐다. 서울시청 불심회는 지난해 4월 공불련 가입의사를 밝혔지만, 현재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 서울시청 불심회의 입장 변화는 공불련이 중앙부처 중심으로 움직이는 현 상황에 대한 불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정관 서울시청 불심회장은 "불심회는 개인의 신심을 돕우는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공불련 가입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 한다"며 "내부 조직활성화에 역점을 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홍부 공불련 사무국장은 "가입 여부의 결정은 서울시청 불심회의 선택사항"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불심회를 이끄는 일부 회원들이 불자회를 개인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8개의 구청 불자회가 있으며, 이들 구청불자회는 정부조직법상 상위기관인 시청과 중앙부처 중심의 공불련 사이에서 어느 쪽에도 설 수 없어 공불련 전체의 활동 저하가 우려된다. 김철우 기자

이라크 침공반대·평화기원 법회

불교대책위, 20일엔 '사이버 평화의 등' 달기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임박한 가운데 반전평화 불교대책위원회(이하 불교대책위)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불교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최근 한나라당 서상섭, 안영근 의원, 민주당 송영길, 김성호 의원이 이라크 정부의 초청으로 반전평화를 위해 이라크를 다녀온 것에 대해 각 정당에서 징계를 내리겠다는 것은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다"고 비난했다.

또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파병 요청이 있다 해도 단호히 반대해야 할 것이며 비전투 요원 파병 역시 미국의 패권주의와 이익을 위해 전쟁에 협조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교대책위는 18일 오후 7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반대와 평화 기원 법회'를 개최하고 20일부터 사이버 평화의 등 달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11일 다람살라에서 달라이 라마가 이라크 전쟁에서 고통이 최소화되기를 기원하는 기도회를 개최했다. 기도회에서 달라이 라마는 "전쟁은 더 이상 국제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실용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것은 승자에게 잠깐 동안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더 많은 문제만을 야기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남동우 기자

목탁소리 틱낫한 스님 방한을 보며

남 동 우 (취재1부 기자)

1995년에 이은 틱낫한 스님의 두 번째 방한을 맞아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는 표현을 써야 할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한 이전부터 불교계 언론보다 먼저 일간지, 공중파 방송 등 상업언론들이 스님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일부에서는 일종의 '냄비' 현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어느 정도 수행 이력이 있는 스님이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에 너무 호들갑 떠는 게 아닌가 하는 말도 들린다.

스님은 18일 공식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9일 포포인트 쉐라톤 호텔에서 열리는 평화포럼, 20일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기업인을 위한 조찬강연에 참석한다. 또 28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광주 한국노동교육원에서 3일간의 수행을,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서울 동국대에서 강연한다.

그런데 19일 평화포럼과 20일 조찬강연이 호텔에서 열리는 것은 평소 스님의 청빈한 삶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또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찬강연(20만원+기부금)은 차치하더라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3일간의 수행(30만원), 동국대 강연(5만원)은 대중과 함께 하는 '플럼빌리지' 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스님 방한에 맞춰 스님의 저술에 대한 선인세 성격의 로열티도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

방한을 추진하고 있는 명진 출판사측은 방한과 관련한 모든 내역을 공개하고, 이익금은 사회에 회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의 우려라 할지라도 스님과 관련한 상업적 관심이 불교 전체의 상업성으로 비춰지지 않게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조계사, 영·일어 자원봉사자 교육

28일~6월13일, 사찰예절·교리등

조계사 외국인 안내소는 제10기 영어 일어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28일~6월13일까지 10주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열리는 이번 10기교육에는 한국불교의 역사, 사찰안내 기법, 사찰예절, 기본교리교육 등의 강좌가 개설된다. 수강료 3만원(교재비 포함) 문의 02) 732-5292

한편 서울시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서울의 문화재와 지역문화를 안내하는 '서울문화유산해설사(Hi Seoul Greeteres)'를 모집한다. 서울시 관광과에서 26일까지 접수. 문의 02)3707-9455

김원우기자

북사찰 단청 지원 등 당부

평불협 11돌 기념법회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는 14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소연회장에서 '창립 11돌 기념법회 및 2003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법회에서 정인악 이사장은 "북한 단청지원과 금강국수공장, 통일법당 불사가 원만히 회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동우 기자

'새만금 생명의 소리' 전국에 울려퍼져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공동대표 수경)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첫번째 프로그램으로 '새만금 생명의 소리' 행동을 시작했다. 수경스님 등 회원 30여명은 12일 서울 인사동 문화마당에서 하유스님(안동 용수사)의 법고소리와 함께 새만금 간척 사업 반대캠페인을 벌였다. 남동우 기자

김태복소장 특별사면 청원

법장스님, "선고 효력 상실시켜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김태복소장 명예회복 불교대책위원회(이하 불교대책위)를 통해 청와대로 김태복소장의 특별사면을 청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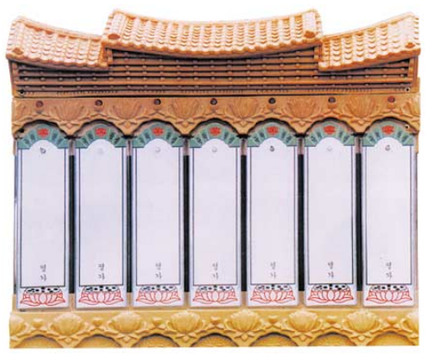
불교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정산스님(조계종 교육부장)에 따르면 "1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청원서를 접수시켰다"라고 밝혔다.

청원서에서 "선고유예 공무원 강제퇴직은 위헌이라는 점, 오는 5월에는 계급정년으로 전역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면제하고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특별사면'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새만금 생명의 소리'는 매일 같은 장소에서 약 한달간 지속된다. 사진=고영배 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 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련 나눔 콜 택시
1588-5532

신개발 영가위패단


영가위패의 좋은 점
1. 혁신적인 기술로 최첨단 직류전원장치를 사용하여 화재 및 감전의 위험성이 전혀 없습니다.
2. 자석과 특수가공 철판을 사용하여 탈,부착이 용이하며 수정아크릴을 사용하여 장기간 사용하여도 변색되지 않고 깨끗합니다.
3. 위패 한위 한위마다 연화문양을 조각하였고, 상단에는 닫집 문양을 넣어 현대감각과 불교 미술적 조화로 콤팩트하고 장엄합니다.
4. 장소를 적게 차지하여 같은 장소에 많은 영가를 모실 수 있습니다.
5. 특수 반도체 전구를 사용하여 반영구적이며 전기료도 거의 들어가지 않아 경제적입니다.
6. 위패 한위 한위마다 인등처럼 불을 밝혀 미려하고 장업합니다.
7. 영구위패 및 우란 분절 또는 각종 행사에 사용합니다.





孝·정성·사랑을 담은 간절한 서원을 올립니다.

의 장 등 록 제 20819호
실용신안출원 제 15466호

인 등

안전하며, 편리하고, 디자인까지 완벽한 정심원 인등
◦일반 인등 - 석가, 관세음, 지장, 연꽃, 산신, 호롱
◦크리스탈 - 연꽃
◦특수인등 - 삼존불, 주존불
◦호박 인등 - 산신, 연꽃
◦특수 반도체 전구 인등 - 지장, 관세음, 석가

인 등

천연 옥가루를 이용, 압축 성형하는 최첨단 공법으로 기존 옥불 보다 더욱 정교하고 정밀하며 가격 면에서도 월등히 저렴합니다.
옥 불상 조성 불사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종 류 - 석가, 관세음, 지장
◦크 기 - 5인치, 7인치, 9인치
◦108불, 500불, 1,000불, 3,000불, 10,000불

歸依三寶 하옵고
제방의 수행도량에서 求道의 길을 가시는 스님과 포교의 일선에서 衆生과 아픔을 같이 나누시는 스님들께, 그 동안의 수행에 祝願 올립니다.
저희 正心院에서는 거기에 보답하고자 첨단의 기술과 철저한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영가단 영가위패와 인등, 그리고 천연옥으로 만든 옥불상을 개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전국 수많은 사찰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불교에 기여하는 正心院. 다시 부를 수 있는 正心院이 되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正心院 임직원 일동 합장

저희 정심원 제품은 가격상승의 원인이 되는 불필요한 유통을 줄이고자 불교용품점에 일체 납품하지 않고 사찰에 직접 보급합니다.

영가위패·인등·옥불 전문
正 心 院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121번지
전화 031-916-0310 핸드폰 011-724-0455

종단위상 저해·의무불이행 사찰 정비

태고종, 종단 내실화 나섰다

태고종이 종단 위상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찰에 대한 정비를 골자로 하는 체질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종단의 인적·물적 자원을 축소시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발전 차원에서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충북교구, 분납금 미납·해종사찰 제재

"중앙·지방종무기관 행정장악력 제고"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지난 1월 열린 전국교구종무원장연석회의에서 미등록 사찰과 미신고 승려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로 결의한 바에 따른 조처로 현재 진행 중인 사찰재등록과 승려분한신고를 3월까지 마감한다. 대신 6월까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미등록 사찰과 분한신고 미접수 승려에 대한 자료 수집과 분류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12일 열린 제87회 임시중앙종회에서도 총무원 부원장 자월스님은 조직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앙종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가장 먼저 충북교구가 수년간 사찰분담금을 내지 않는 상습 체납 사찰과, 종단 종책사업과 관련해 유언비어를 퍼뜨려 분열을 조장하는 등 해종 행위를 하는 사찰에 대해 제적 등 종법에 의거 처리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섰다. 2월 28일 교구 소속 90여명의 주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충북교구 주지 총회에서도 종단 발전에 저해가 되는 사찰을 정비해 종단 화합과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뤘다.

충북교구는 소속 사찰 가운데 5월 15일까지 사찰 재등록과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찰에 대해서는 지방종회에 제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또 승려분담금 미납 승려에 대해서도 종법에 의거 처리할 계획이다.

태고종 총무원 총무국장 진허스님은 "종단의 역량 결집이 어려운 현실은 재정의 빈약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종단의 조직 체계와 승풍 기강이 바로 서야 한다"며 "허수(虛數)를 덜어내 중앙 및 지방종무기관의 행정 장악력을 키워 종단 내실을 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일붕선교종 내홍 일단락

재단법인측 화합에 나서

서울 수유동측과 서울 신영동측으로 분열돼 3년여를 끌어온 일붕선교종 내홍이 최근 일단락됐다.

서울 수유동 재단측은 서울지방법원의 승소판결에 따라 지난달 말 신영동 종단측이 점유중이던 총무원 사무실에 대해 강제로 가집행하는 한편, 향후 종단재건과 화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조기 종단수습에 나섰다.

일붕선교종의 내홍은 지난 1999년 12월 연종스님 등 서울 신영동 종단측이 종정 비상조치령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재단법인측이 서울 수유동에 별도의 총무원 사무실을 내고 새 종정과 총무원장을 선출, 법정공방을 펼쳐왔었다.

미륵종, 의료·복지사업 시작

미륵한의원 개원…수익금 사회 환원

삼원복지관 운영비지원·봉사팀 파견

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이 의료사업과 복지사업에 새롭게 뛰어든다.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은 27일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100여평 규모의 부설 미륵한의원을 개원한다. 미륵한의원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무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며, 한의원 운영 수익금은 무의탁 노인과 결식아동을 위한 사회복지 후원금으로 기탁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중 서울과 광주에도 한의원 분원을 설치하는 한편, 정기적인 외부 진료 봉사활동을 위한 의료봉사단도 구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륵종은 총무원장 송정스님이 최근 원장으로 취임한 창원 대방동 소재의 삼원복지관 미륵복지원과 연계해 복지사업에도 본격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륵종은 앞으로 무의탁노인과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제공, 생활비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는 삼원복지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한편 신도들로 구성된 자원봉사팀도 파견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 언양 노인복지요양소 건립, 복지관 수탁 운영 등 자체적인 복지사업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미륵종 총무원장 송정스님은 "불교를 사회에 바르게 회향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복지활동의 필요성이 종단 내에서 꾸준히 제기돼 한의원 운영과 복지관 지원을 계획하게 됐다"면서 "종단이 사회복지활동을 모범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모든 종도들의 뜻을 모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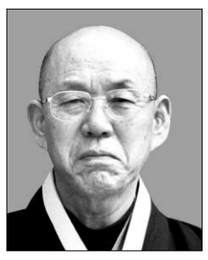
박봉영 기자

본원종 부종정 무구스님

감찰원장 대성스님 추대



◇무구스님



◇대성스님

대한불교본원종은 12일 열린 제27차 중앙종회에서 부종정에 무구스님(과천 유덕사, 중앙원로의장)을 추대했다. 감찰원장에는 대성스님(주 문진 성광사)을 선출했다.

무구스님은 1945년 김용사에서 화산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이래 설악산 신흥사 주지 등을 거쳐 1989년 본원종 창종에 가담했으며, 중앙원로의장을 역임했다.

또 이날 종회에서는 4월 4일 충주 중앙탑 광장에서 열리는 종단 법인 설립과 평화통일 기원 수륙고혼 천도법회를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모든 종도들이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종회에는 종회의장 대운스님을 비롯해 21명의 종회의원이 참석했다.

종단소식

조계종

중급 지도자과정 연수

조계종 교육원(원장 무비)은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대구 파계사 영산율원에서 제1회 중급지도자과정 연수를 실시한다. 대상은 95, 96년 출가자 가운데 99, 2000년도에 구족계를 수지한 비구(니)이며, 31일까지 교육원 연수국에 접수해야 한다. (02)732-4923

태고종

총무원 청사 이전 확정



태고종은 12일 서울 성북동 총무원 설법전에서 제87회 임시중앙종회를 열고 총무원 청사를 이건할 것을 결의했다. 이는 학교법인 동방대학교 소유의 서울 은평구 신사동 학사와 현 총무원 청사를 맞교환, 현 청사를 동방대학원대학 학사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다. 새 총무원 청사는 서울 종로구 사간동 법륜사나 신촌 봉원사에 건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태고종은 새 청사 건립을 위해 종도들을 대상으로 특별성금을 모금하는 등 재정확보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종회에서는 또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소재 지족암의 부지와 건물을 동방대학원대학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기로 결의했다.

천태종

어린이·학생회 교사 수련

천태종은 어린이회와 학생회 지도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신심을 돈독히 하기 위한 '신앙체험 수련법회'를 갖는다. 22~23일 총본산 구인사 인광당에서 열리는 수련법회는 관음정진, 종정 도용스님 친견, 신앙체험 주제 법문, 신행 실수, 적멸궁 참배 등으로 진행된다.

진각종

교화·전담직 종무원 모집

진각종이 교화직과 전담직 종무원을 31일까지 모집한다.

교화직 종무원에게는 사택이 제공되며, 4년제 진각대학에서 무료 교육을 실시하는 특권이 주어진다. 남자는 만 20~35세, 여자는 만 18~25세여야 하며, 남녀 모두 고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 한다.

종무행정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하게 될 전담직 종무원은 고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만 30~34세의 불교신자 또는 진각종에 귀의하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모집 분야는 총무 재무 기획 전산 관재 건설 등이다. 관련학과나 동종업 관련 전공자, 자격증 소지자, 진각종 신교도, 진각종 종립학교 출신자들은 우대받는다. (02)913-0751

위덕대 SCS 인증 획득

위덕대가 교육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100% 정품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는 대학으로 선정돼 인증서를 받았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산하 SCS(Software Clean Site)인증위원회가 선정하는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모범기관은, 올바르게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100%의 목표와 의지를 갖고 실천에 옮긴 기관이다. 위덕대는 지난해 5월 소프트웨어 자산 컨설팅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6개월여 동안 소프트웨어 부족분을 모두 구매, SCS 인증을 획득했다.

무애심인당 홈피 개통

서울 전농동 무애심인당(주교 무외)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www.moowoe.or.kr)를 개설했다. 무애심인당 홈페이지는 심인당 소개, 교리강좌, 자료실, 게시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진각종 통리원, 진각복지재단, 진각종 전국청년회 등 관련홈페이지와의 링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총지종

흑색법의 사용지침 하달

총지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색법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흑색법의를 사용해도 좋다는 지침을 하달했다. 흑색법의를 착용할 수 있는 시기와 장소는 조석정송 때, 가정불공 때, 장지불공 때, 기타 불편한 장소에서 불공할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게시판

인사 ▲동국대 서울캠퍼스 △학생복지실장 정창현 △교육대학원 교학부장 구태회 △문화예술대학원 교학부장 김종진 △체육실장 안중옥 △출판부장 이철교 △교육방송국장 이종석 △기획심사팀장 이우용 △인사관리팀장 박동수 △예산팀장 박승종 △기획사업팀장 김준호 △연구지원팀장 이성진 △총무팀장 이천종 △시설관리팀장 백경선 △재무회계팀장 김영인 △구매팀장 오광진 △정보자원관리팀장 이익성 △야간강좌교학처 교학과장 박광호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장 김종철 △가상대학 교학과장 나병욱

▲동국대 경주캠퍼스 △학생선발실장 서병수 △불교문화대학원 교학부장 원생 △학사지원실장 김칠석 △학생복지실장 정성호 △취업지원팀장 석광렬 △총무팀장 박정우 △한의과대학 교학과장 신익종 △야간강좌 교학처 교학과장 주재권 △금장생활관 관리과장 김종백

▲동국의료원 △경주병원 사무국장 하정윤 △서울강남한방병원 원무부장 차준환 △포항병원 사무국장 채찬호 △기획감사과장 이건배 △인사과장 손재영 △구매과장 문용주 △경주병원 경리과장 박환오

모집 ▲불교자원봉사자 연합회는 제17회 자원봉사시민대학을 개설한다. 모집분야는 수지침, 장례의식, 불교호스피스, 자비수의 등이고, 접수마감은 31일. 개강은 4월 1일부이며, 교육비는 무료다.(02)723-6258

▲시민모임 두레에서는 23일 장성 백양사 등지로 생태문화기행을 떠난다. 출발은 오전 7시 30분 서울 서초구청 앞. 또한 두레에서는 30일 고구려비와 온달산성 등을 둘러보는 어린이자연문화교실도 연다. 출발은 오전 8시, 서초구청 앞. (02)712-5812

▲부산 남구 용호복지관은 매주 월~토 오전 10시~오후 6시 복지관 도서실인 용호평생학습마을 이용자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초·중·고등학생.(051)628-6737

구인 ▲의정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곰두리네 집은 운전기사(1종 대형 자격증 소지자) 1명을 구한다. 마감은 채용시까지.(031)829-8294

▲서울 봉은사는 종무원 5명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법회행사 진행 및 기획, 사회복지 사업, 신도조직 관리, 불교용품 판매 및 관리 등. 마감은 20일.(02)511-6070~4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봉 사단법인 한국불교 미륵종 현해탄 용왕대재 및 일본 성지순례 행

1. 사단법인 한국불교 미륵종에서는 선망부모 세계 제2차 대전당시 산화하신 유주무주 고혼 천도를 현해탄 선상에서 용왕수륙대제로 봉행한다.
2. 또한 유서깊은 현해탄 선상에서 癸未年 새해 운맞이 불공을 봉행합니다.

◈ **일 시 : 2003년 4월 3일 - 4월 6일(3박 4일)**

- 이용배편 : 카멜리아
- 참 가 비 : 50만원(여권 수속비, 일본비자대 별도)
- 접수인원 : 600명 선착순
- 집결장소 : 부산중앙동 국제 여객부두 1층(각 사암주지 및 교임께서 인솔)
- 접 수 처 : ◇ 서울·경기지역 : 사단법인 한국불교 미륵종 총무원(TEL : 02-351-3679)
  ◇ 부산·울산·경북지역 : 보경여행사(담당 : 정진희, TEL : 051-466-3977)
  ◇ 경남지역 : 사회복지법인 삼원(TEL : 055-275-9875, 055-275-2628)
  ◇ 휴대폰 연락처 : 총무원장 011-832-3838·사무총장 011-9557-4566
  교무부장 011-584-1291

◈ **여권 구비 서류** (발급신청 : 시, 군, 읍, 면 동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증 원본 또는 운전면허증
- 칼라사진(여권용) 2매, 자택전화, 본적

◈ **일본 비자서류(비자신청비 : 10,000원)**

- 공동서류 ● 여권, 주민등록등본1통 ● 주민등록증 양면복사 ● 사진1매(최근 3개월 이내) ● 사진크기 : 가로 3.5cm × 세로 4.5cm
- 직장관계서류 ● 재직자일 경우 : 재직증명서 1통 ●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 : 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 60세 이상자는 여권, 주민등록증 앞 뒤 복사
-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통(사업가가 아닌 분은 보증인 1명 선정)

일 자	도시명	교통편	시 간	주 요 행 사 일 정
제1일 4/3(목)	부 산	카멜리아	15:30 17:30 18:00	부산중앙동 국제 여객부두 1층 집결→승선수속완료(차별로 승선 = 차당인원 40명기준) 석식(차별 순서대로)→ 부산항출발 - 일본 후쿠오카 향발 ▶수,륙,공 영가천도대재 행사◀
제2일 4/4(금)	후쿠오카 구마모도 아소,뱃부	전용버스	08:40 전 일 20:00	기상 후 선내조식(차별순서대로)후 하선준비→일본후쿠오카항 도착 입국수속 구마모도로 이동→아소산 분화구 관광후 뱃부로 이동 호텔투숙(온천욕) →HOTEL : 스기노이 특급호텔(4인 1실)
제3일 4/5(토)	벳 부 후쿠오카	전용버스 카멜리아	전 일 17:00 19:00	호텔조식 후 야생동물원, 지옥온천 순례후 후쿠오카로 이동중 남장원 향발 →남장원 방문 후 후쿠오카 부도로 향발→부두 도착 후 승선 수속(차별 역순 승선) →선내식사(차별 역순으로)
제4일 4/6(일)	부 산		08:40 09:30	기상후 선내조식(차별 역순으로)→부산항 도착 후 입국수속 댁으로 안녕히!!!

사단법인 한국불교 미륵종 총무원장 윤송정 합장

부처님 땅 인도에
1천여년만에 다시 싹트는 불교!
인도불교부흥에 한국불자들의 염원을 전합시다.
인도불교돕기추진위 (02)745-7799
조흥은행 741-04-365950 (예금주 : 인도돕기)

불교계에 일간이 없다고?
buddhanews.com을 클릭하세요.

1만 불자들 108 참회로 "지키겠습니다" 서원



◇천성산의 생명을 대신하여 '이제 그만' 이라고 호소하는 불자들.



◇14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앞 지율스님의 천막 단식 농성 현장에서 1만여 불자들이 모여 자연환경 수호를 발원했다.



◇부산시청에서 서면까지 가두행진을 하며 '생명사랑' 을 서원하는 불자들.

3·14 부산 '자연환경보전…범불교도 정진대회'

"26층의 높다란 건물 앞 초라한 천막 속에서 한철을 보내면서 저는 많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 저는 동네 어귀의 시냇가에서 장어를 잡으러 발목을 적시는 아이였고, 하늘 높이 나는 나비였으며, 부드러운 땅 속을 기어다니는 땅강아지였습니다. 이 곳에 있는 동안 저는 꿈과 추억으로만 다가오는 이 작은 생명들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소음을 견뎌냈습니다." -단식을 풀며, 지율-

"정진의 뜻 이어받자" 모두에게 '환경' 화두

'자연·사람은 하나 '동체대비사상' 큰울림

14일 오후 2시. 지율스님이 38일 동안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왔던 초라한 천막 앞에 1만 여명의 사부대중이 운집했다.

자연환경 보전과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불교도 대회에 나온 지율스님은 38일간의 단식으로 몸을 가누지 못해 부축을 받으며 연단에 올랐다.

부산, 서울, 대전, 경남 등지에서 참여한 전국의 스님들과 신도들, 그 동안 꾸준히 지율스님의 뜻을 지지하며 동참해온 분도수녀회, 예수성심전교수녀회 수녀들, 윤희동 신부 등 참여 대중들은 야윌 대로 야윈 지율스님의 모습에서 피폐해진 우리 국토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눈시울을 적셨다.

스스로 곡기를 끊고, 말없는 산의 절규을 대신 전하려 했던 스님의 단식은, 개발 논리로 환경을 파괴한 우리 모두의 잘못을 참회하고 천성산과 금정산의 숱한 생명들을 구하고자 시작됐지만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 채 단식을 풀었다. 그러나 스님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촉발된 환경문제는 불교도뿐 아니라 종교를 초월한 모든 국민들의 시대적 사명으로 부각되었고, 부산 시청 앞에 모여든 1만여 사부대중의 마음에 절대절명의 화두 하나를 던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율 스님의 단식은 천성산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사람들 마음에 전하기 위한 기도였기에, 단식을 회향한 이후의 과제는 이 시대를 사는 모두의 몫으로 남겨진 셈이다.

본 행사가 끝난 후, 지율스님 단식 정진의 뜻을 이어받아 환경 수호자로 나서겠다고 발원한 사람들이 거리를 채우며 도도한 물결을 이루었다. 부산시청에서 서면까지 이어진 그 물결은 무심히 지나치는 사람들과 어린 학생들에게 풀벌레와 꽃잎의 말을 대신 전했다.

고산스님을 비롯한 대덕스님들과 사부대중들은 차가운 땅에 엎드려 말없이 사라져간 일체 생명들에 참회하는 108배를 올리며 '아프다' 고 '도와달라' 고 절규하는 생명들의 소리를 마음으로 들었다.

지율스님 홀로 외롭게 시작한 단식이 1만 명의 108배 참회로 이어졌듯 14일 정진대회는 자연과 사람은 하나라는 동체대비의 부처님 사상을 일깨우는 큰 울림으로 회향됐다. 목숨 걸고 산을 지켜온 천 육백년 한국불교의 숭고한 전통을 재확인하고 한국불교의 결집력과 역량을 모아 자연환경 수호라는 책임과 사명을 다하겠다는 불교도들의 염원을 담은 정진대회가 열린 이날, 지율스님은 38일간의 단식을 회향했고, 불자들의 마음에는 '환경' 이라는 화두가 남겨졌다.

글=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지율스님의 단식 38일'

산이 아프면 우리도 2월5~14일(단식 1~10일)



"도와 달라"고 애원하는 천성산을 대신해 기도의 마음으로 단식에 돌입. '산이 아프면 우리도 아프다'는 주제로 천성산의 아름다움을 담은 사진 50여 점 함께 전시.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윤희동 신부 철야 단식 동참. 시청 광장에서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 관통 백지화를 위한 미사 집도. 윤희동 신부의 동참으로 종교를 초월한 생명 사랑의 기도 정진으로 확산. 지율스님 단식 6일째, 108배 도중 쓰러져 한때 긴장. 내원사 대중 환경 기도 법회. 울산 관음암 대활스님 환경 사랑 마라톤.

즐겁게, 축제처럼 15~27일(단식 11~23일)



"환경운동은 투쟁이 아닌 축제고, 공감이어야 한다"는 지율스님의 뜻에 따라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콘서트' 개최. 천성산 생태 기행을 다녀온 부산청년불자산악회와 대불청 부산지구 청년회원들이 준비한 음악회에 분도수녀회, 예수성심선교수녀회의 수녀 참여.

조계종 환경위원회 위원장 성타스님, 법장스님(당시 총무원장 후보) 방문으로 종단 현안으로 부각. 통도사 소임자 스님 릴레이 단식 시작. 시민사회단체 철야 농성 및 교사 1000인 선언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 모임 촛불 시위. 내원정사 정련스님, 범어사 정관스님, 분도수녀원 원장 수녀 방문 등 지역 종교인들의 지지 이어지면서 전국적 관심사로 부상.

함께한 마음이 에너지 28~3월9일(단식 24~33일)



원로스님들이 교시를 내려 종단차원의 대응을 지시했고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친서를 전달하고 종단차원의 대응을 약속. 환경과 상식회복을 위한 '산시산수시수' 2배수 예참 수행으로 매일 오후 8시 저녁 예불에 지역 불자들의 마음을 모으기 시작. 지율스님은 "천명의 마음이 함께 모여 생명의 소중함을 공감하면 회향할 수 있다"고 기뻐함. 노무현 대통령 공사중지 및 재검토 지시로 문재인 민정수석 방문. 2배수 예참수행 회향 음악회로 환경보살 서원 확산.

또 다른 시작, 회향 3월10~14일(단식 34~38일)



불교도 정진대회를 위한 상황실을 열고 지율스님의 단식 정진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종단차원의 집회계획. 1만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불교도 정진대회 개최.

지율스님은 "희망을 가지고 산을 더 들여다보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천성산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노력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천성산으로 돌아갔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공양주는 누구인가

"가족처럼 스님과 함께 생활하실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60세 이하, 월 80만원. 경기도 가평 ○○사",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신심돈독하고 오래 계실 분, 50세 이후. 서울 성북구 △△사". 불교계 신문 구인광고 문구들이다.

'밥하는 사람' 으로 일컬어지는 공양주. 이들은 구인광고 등을 통해 사찰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찰은 왜 이들을 고용하는가. 자급자족해야 할 승가에서 공양주를 둘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사찰과 고용된 공양주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까. 공양주는 누구며, 이들의 현실 등을 짚어본다.

어엿한 종무원… 처우개선 시급



◇수련회 유경험자들로 구성된 사찰 자원봉사팀. 사진은 지난해 7월 열린 해인사 사찰수련회에서 점심공양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공양주는 누구인가

강원도 A사찰 공양주 김 씨(49). 새벽 3시 일어나 사중 50인분의 공양을 준비한다. 공양주는 김 씨와 한 명뿐. 5시 아침 공양이 끝나면, 49재 재수음식준비에 들어간다. 여기에다 11시에 있을 200인분의 신도수련회 점심, 그리고 주지 스님 방 청소와 빨래를 해야 한다. 눈코 틀 새 없다.

김 씨와 같은 공양주의 역할은 전국의 사찰 공양주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찰 규모와 지역 여건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공양주들의 역할은 비슷하다. 대형 사찰은 업무가 불전관리 · 불사접수 등 어느 정도 분업화돼 공양주는 공양간(식당) 일만 전담하고 있지만, 도심 포교당이나 소형 사찰의 공양주 의미는 사뭇 달라진다. 식사준비는 기본, 사무일은 당연한 옵션이 된다. 이쯤 되면 공양주는 직업인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은 물론, 웬만한 재가종무원의 업무까지 담당하게 된다.

공양주는 흔한 말로 '밥해주는 사람' 들로 통한다. 과거에는 개인 불공을 목적으로 절에 들어와서 자발적으로 공양주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현재는 고용된 직업인으로서 공양주가 자리를 잡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공양주는 식당 종업원과 다른 직업 정체성을 갖고 있다. 노동력의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직업인이지만, 일의 성격상 특별한 신심을 갖춘 신도인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공양주의 직업적 정체성은 애매해질 수밖에 없다. 사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고용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현실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신도이긴 하지만 노동력의 대가를 주고받는 고용인이라는 점을 좀더 분명히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식당 종업원과는 다른 직업 정체성
사찰규모별 표준화 된 급여체계 수립해야

▲사찰은 왜 공양주를 두고 있는가

"스님들이 수행하러 왔지. 밥하러 왔겠습니까? 옛날에야 사중에 스님이 여럿이 모여 사니까 알아서 소임을 맡았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대여섯 명의 행자들이 밥을 짓고는 있지만, 그나마 수시로 교육일정으로 빠져나가기 일쑤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공양주 소임을 감당하겠습니까. 만약 공양주가 아예 없다면 많은 문제가 생겨날 겁니다." 경남 지역 H사찰의 사무장 박 씨(59)는 공양주의 필요성을 이렇게 털어놓는다.

사찰이 공양주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사찰 살림을 맡고 있는 사무장들은 현저히 줄고 있는 행자 수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조계종 본사급의 경우, 사찰의 주 노동력을 담당하는 행자들이 적게는 5명, 많게는 20여명 정도다. 그나마 이들은 행자교육원 입소 등 각종 교육일정에 따라 들쭉날쭉 이동하다보니, 안정적인 노동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양주와 같은 소임 등을 승려교육의 필수과정으로 적용해온 승가의 수행 · 교육 기능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또 한 가지.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스님들의 일도 늘어났다. 템플스테이, 계절별 수련대회 등 사찰체험프로그램의 급증이 이 같은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반면, 다른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대전지역 도심에서 포교당을 운영하는 모 스님은 "혼자서 포교활동에서 종무행정 일까지 도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하루가 빠듯합니다. 때문에 공양주를 고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두고 싶어도 사람이 없습니다. 큰 사찰이 아닌 경우에는 옛날처럼 탁발이라도 했지만, 신도 신행상담 등과 같은 포교활동이 늘면서 이 마저도 할 수 없는 형편이죠."

이 같은 공양주 구인난은 중국 조선족 동포들까지 고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3D 기피 현상이 고스란히 불교계에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서울 모 사찰의 경우, 5년 전부터 조선족 동포 60대 여성 2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 사찰의 사무장 오 씨(56)는 "오죽했으면 불법 체류자까지 공양주로 고용하겠어요? 출 · 퇴근자보다 24시간 근무할 사람들을 선호하는 마당에 내국인이 이 같은 근무여건을 감당하겠어요. 사찰의 특수한 근무여건은 숙식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선족 동포들의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져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구인난 심각… 조선족도 고용
절 음식 조리법 등 교육도 필요

▲제도 공식화 · 대우 현실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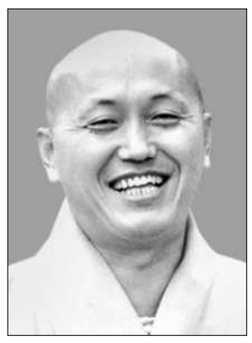
직업인으로서 공양주는 사실상 제도화됐다. 그렇다면 이제는 공양주의 처우개선에 눈을 돌려할 때다. 사실 이들 공양주의 급여는 사찰 규모에 따라 6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게다가 불규칙적인 근무 시간,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미가입 등은 공양주들의 근무여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공양주의 높은 이직률 또한 지적된다. 대부분의 사찰에서 길어야 2년을 못 버티고 그만두고 있다. 또 육식 금지 등의 사찰음식 특수성에 대한 몰이해로 근무 적응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 같은 공양주의 현실을 감안, 아예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본사나 중앙종무기관은 사찰 규모별로 표준화된 급여 체계를 제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자급자족해야 할 승가가 이를 감당하지 못한 것도 승가가 풀어야 할 과제임을 알아야 한다.

전남 지역 사찰에 근무하는 사무장 모 씨(45)는 "공양주 역할이 중요한 만큼, 아예 공양주 제도를 종단 또는 사찰별로 종무원제도로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양주 자질 향상과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사찰음식 조리법 등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 실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간화선의 힌두화론에 대한 반론' 을 읽고



● 각묵스님, 본지에 반론문 보내와 ●

지난 2월 25일 실상사에 열린 제7차 선우논강에서 각묵 스님이 발제한 '간화선과 위빠사나, 무엇이 같고 다른가' 에 대한 대성 스님의 기고문(본지 412호)에 대해 각묵스님이 반론문을 보내왔다. 두 필자의 생산적 논쟁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논쟁이 합리적 대안 도출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독자의 관심을 기대한다.<편집자>

"불교의 핵심은 연기와 무아 '진아' 를 부처님 원뜻으로 볼순 없어"

'나는 누구인가', '이뭣꼬' 같이 봐선 안돼
"힌두 수행법도 나름대로 충분한 의미 있어"

대승불교와 간화선과 힌두 수행법을 같은 선상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성스님의 '간화선의 힌두화론에 대한 반론' 을 읽고 착잡한 심정으로 대성스님 글의 문제점을 몇 가지만 적는다.

첫째, 대성스님의 주장처럼 <열반경>은 과연 "진아 개념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간화선자의 필독서라 꼽히는 성철스님의 <선문정로>는 다음과 같이 <열반경>을 인용하고 있다. "십이인연(十二因緣)은 명위불성(名爲佛性)이요 불성자(佛性者)는 즉제일의공(卽第一義空)이요…."(<대열반경 25>) 이처럼 불성은 12연기의 다른 이름이고 공의 다른 이름이다. 그러므로 무아의 다른 이름이다. 그러면 '불성이야말로 생사를 초월한 진아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열반경>은 굳이 초기불교의 핵심인 12연기에다 그 연원을 두는가? 연기가 불교의 핵심임을 <열반경>도 인정하기 때문이다. 왜 공에다 그 연원을 두는가. 무아가 불교의 핵심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무아와 연기에 바탕하지 않은 불성이나 여래장은 불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같은 여래장 계열의 <능가경>은 "(1) 제법에는 자아[我]가 없는 관계로 일체의 망상을 떠났다. (2) 그렇지만 지혜의 유익한 방편[智慧善巧方便]으로써 어느 때는 여래장을 설하고 어느 때는 무아를 설한다. (3) 이러한 인연 때문에 여래장을 설하는 것은 외도가 설하는 자아와 같지 않다(於法無我離一切妄想相 以種種智慧善巧方便 或說如來藏 或說無我 以是因緣故說如來藏 不同外道所說之我. -- 大正16, 489中)"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승불교의 진아 개념" 운운하면서 대승불교를 힌두의 가르침과 동일시하려 한다면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 된다.

둘째, 불교의 핵심은 연기와 무아이다. 초기, 남방, 부파, 반야중관, 유식, 법화, 열반, 화엄을 포함한 여래장 계열 등 불교 역사에 등장한 모든 가르침에서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이 모든 가르침은 연기와 무아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8종의 조사로 추앙받는 용수스님의 <중론>을 위시한 반야중관은 아공법공(我空法空)이라는 명제로 인무아(人無我)뿐만 아니라 법무아(法無我)까지 역설한다. 그런데 어떻게 진아가 대승불교의 핵심이라 한단 말인가. 그리고 초기 · 남북불교 공히 무상 · 고 · 무아 혹은 무상 · 무아 · 열반을 삼특상 혹은 삼법인이라 하여 불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잣대로 삼고 있다. 이것은 불교의 상식이다. 그런데도 진아가 "부처님의 원뜻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말에 떨어지지 말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언어는 중요하다. 초기 · 대 · 소승의 수많은 경에서 공히 무아와 연기를 고구정녕히 설하신 것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 부처님 제자가 되어 불교의 핵심인 연기와 무아에 대해서는 전혀 고뇌해보지도 않고 무아보다 진아가 더 부처님 원뜻에 부합하다 주장해서야 되겠는가.

백보양보하자. 그래서 <열반경>은 진아를 드러내고 있다는 주장을 인정하자. 그렇더라도 방대한 경전군들 가운데서 오직 여래장 계열에서 그것도 열반의 4덕인 상락아정(常樂我淨)의 하나로 표현하고 있는 자아라는 용어만을 유독 강조하여 대승불교는 진아를 더 강조하여 설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승불교 전체를 호도하는 억지에 가까운 주장이 아닐까.

더군다나 간화선이나 선종을 논하려면 <열반경>보다는 선종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에 바탕하여야 마땅하다. 자아라는 산냐[我相]는 척파되어야 한다고 <금강경>은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 적어도 간화선을 논하려면 <열반경>의 상락아정보다는 '약보살(若菩薩) 통달무아법자(通達無我法者) 여래설명진시보살(如來說名眞是菩薩)' 이라는 <금강경>의 무아의 가르침을 먼저 인용해야하지 않을까.

셋째, 그러므로 "대승불교의 진아 개념을 무시한 채 우리의 근본 성품을 무아 일변도로 한정한다는 점에서 시야가 좁고…," 등등의 대성스님의 글은 연기와 무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주장이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하겠다.

소납(少衲)은 인도유학 10년 동안 힌두의 소의경전인 초기 우빠니샤드들, 바가왓기따, 요가수뜨라 등등을 산스끄리뜨 원어로 공부했고 바라문 교수님들과 많은 논쟁을 주고받았다. 띠루완나말라이의 라마나 아쉬람에도 세 번 가보았다. 그런 소납은 힌두적 수행법을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힌두 수행법도 나름대로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누구든 힌두적 수행법에 관심이 있고 그것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도움된다고 생각하면 불교 수행법을 버리고 그것을 따르면 될 것이다. 그런데 왜 굳이 그것을 불교의 간화선과 동일시하려하는가.

우리는 무아와 연기를 고구정녕히 설하신 부처님의 제자이다. 그러므로 간화선하는 자는 "수행자들의 다양한 근기와 취향" 운운하기 이전에 무전제(무아)의 간화선의 입각처에 처절하게 고뇌해야 한다. 그런 고뇌를 하지 않고 섣불리 힌두적 '꼬아함(ko aham, 나는 누구인가)' 을 '이뭣고' 화두와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넷째, "대승불교의 전통에 서 있는 간화선을 논하려면 대승경전과 조사, 선사들의 어록에 바탕해야 하며, 남방불교적 시각에서 간화선을 비판하려 드는 것은 출발이 잘못되었다" 라는 대성스님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음을 밝힌다. 소납의 발제문 어디에도 남방불교의 시각에서 간화선을 잘못 비판한 곳은 없다. 소납의 발제문에 나타나는 간화선의 설명은 철저히 대혜스님이나 다른 선장들의 어록에 근거해 있다. 소납은 오히려 간화선의 무전제의 수행이야말로 소의 경전인 <금강경>과 초기 부처님의 무아사상에 멋지게 부합하는 수행법임을 천명하고 있다. 단지 이런 무아의 가르침에 바탕한 간화선을 진아여여라는 힌두식으로 이해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한국 간화선에 대한 고언' 에서 제기했을 뿐이다. 발제문을 다시 한번 정독해주시기 바란다.

무전제(무아)의 간화선과 진아라는 전제를 두고 그것과 합일하려는 힌두적 수행법은 근본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섞어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밝히면서 글을 접는다.

각묵스님은 1979년 구례 화엄사로 출가하였다. 역저로 〈강경 역해〉 〈아비담마 길라잡이〉 상 · 하 등이 있다. 실상사의 금강경결제 논주로 발제하였고, 7차 선우논강에서 '간화선과 위빠사나, 무엇이 같고 다른가' 를 발제하였다.



퇴마승 해원

영험 도량

영험사례
- 15년전 죽은 삼촌 접신
- 26년전 죽은 어머니 접신
- 20년전 낙태혼 접신
- 18년전 죽은 언니 접신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불보살님 가피력
- 참회하는 마음
- 용서하는 마음

해 원 사 초하루. 18일 법회

031-336-3734 · 3735

"어르신! 돈 잘 쓰는 법 아세요?"

소비자보호원 법우회 매주 2회 노인 위한 소비자학교 열어

"말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안 살래 안 살 수 없게 만들죠. 수십만 원짜리 물건을 열에 일곱은 사게 됩니다. 어르신들! 아예 그런 곳에 안 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거저 주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경제 강좌, 소비자교실' 강의 첫 날. 한국소비자보호원 법우회(회장 노영화, 이하 소보원법우회)가 정보수집 취약 계층인 노인들에게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사기 상술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 강의대상은 6~70대 노인, 강좌는 2개월 과정에 총 4회 실시. 웬만한 대학 사회교육원 강좌 프로그램 수준을 맞먹는다.

반응이 좋았다. 새벽같이 부천에서 왔다는 조혜형(76) 할머니는 "자식들한테 얻어 쓰고 있는 형편이어서 넉넉하지도 않지만, 이제부터는 돈 쓸 때 속지 않고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소보원 법우회는 왜 이런 강좌를 기획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소비자보호원이란 직장 특성을 백분 살린 사회봉사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다. 또 한 가지. 소비자문제 전문가로서의 법우회 회원들의 대외 활동력 제고다. 사실 지난해 9월에도 소비자교실을 열었지만, 단발성 행사로 끝났다. 하지만 이번 강좌는 진행방식부터 다르다.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쌍방향 의사소통으로 진행된다. 커리큘럼도 이런 형식에 맞게 피해 사례유형과 예방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다단계·무료 효도관광 등 사기상술 예방
"이젠 속지 않고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

첫 강의를 나선 소보원 법우회 전효중(49·생활경제국장) 고문은 "인터넷 세대라 불리는 젊은 세대에까지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시대에, 어르신들은 다단계 판매, 무료 효도관광 등 각종 사기 상술에 무방비로 노출되다시피 했다"며 "피해 사례 유형 소개는 물론, 대처 방법 등 예방차원에서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보원 법우회는 이를 위해 앞으로 '소비자교실'을 연간 행사로 정례화 하는 한편, 소보원 내 노인전용 소비자 상담전화 창구도 개설할 예정이다. 또 서울노인복지센터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 노인들의 소비문화 개선을 위한 '소비 합리화 캠페인'을 벌인다. '노인 사기성 거래 실태 조사'도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한다. 올 하반기에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선 보호자 동의, 후 계약'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의는 계속된다. 11월 19일 종강까지 매주 둘째·넷째 주 수요일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열린다. 소비자보호 일반, 공산품·식의약품·신용카드·보험 등 피해 사례별 유형소개 및 대처 방법을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춘 강의로 진행된다. (02)739-9503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어르신들! 귀한 돈 잘 쓰는 법 아세요?" 지난 12일 한국소비자보호원 법우회와 서울노인복지센터가 함께 마련한 '소비자교실'. 2백여 노인들이 전효중 소보원 법우회 고문의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삼가 고인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노옥섭) 회원 220여명은 9일 대구시민회관에 마련된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 추모법회를 봉행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대구=박원구 기자

공불련, 대구지하철 참사 추모법회

절 탐방·불교문화 가장 큰 관심

조계종 포교원, '직장불교' 기사 만족도 조사

"일터 불심은 불교문화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경전 한글풀이, 스님 법문 등의 읽을거리를 선호한다."

조계종 포교원이 10일 월간 <직장불교> 구독자 기사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직능불자회는 사찰 탐방 등 불교문화 분야(29.8%)를 기획 또는 특집기사로 다뤄주기를 희망했으며, 그밖에 신행·봉사 등 체험 소개(21.3%), 다른 직장·직능불자회 소식(12.8%), 건강 등 상식(6.4%) 등으로 조사됐다.

또 즐겨 읽는 기사로는 경전 한글풀이(36.2%)를 꼽았으며, 스님 법문(23.4%), 산사 체험(14.9%) 등도 많이 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은 2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 우편조사 형식으로 실시됐으며, 총 47명이 조사에 응했다.

김철우 기자

경남 창녕에 첫 의료인불자회

22일 창립법회, 초대회장 강경구 씨

경남 창녕에 첫 불자의료회가 창립된다.

창녕 서울병원 불자회 창립준비위원회(이하 창립준비위)는 지난 2월 19일 인근 식당에서 창립준비총회를 갖고, 이달 22~23일 이틀간 경북 성주 도솔암에서 창립법회 겸 순회 진료봉사 실시를 결의했다.

8명의 발기인이 참여한 이날 총회에서는 초대회장에 강경구 내과부장을, 부회장에 하수양 간호과장을 각각 선출했다. 또 의료봉사활동을 위해 의사 2명과 간호사 3명 등 총 10명으로 의료봉사단을 구성, 내과와 한방과 등 2개과 진료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김철우 기자

단체장



대전 구암사서 임원회의

김중겸 전국경찰불교회장은 23일 대전 구암사에서 임원회의를 갖고, 전국 경찰불교회 현황 파악 등의 안건을 심의한다.



'초발심자경문' 교리 강좌

박우락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장은 18일 서울 기원사 대웅전에서 주지 상현 스님으로부터 <초발심자경문> 교리 강좌 법문을 들었다.



'대구 지하철' 유가족돕기

이용일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 의장은 3월 25일까지 대구지하철 화재 유가족 돕기 모금 활동을 벌인다. (02)973-0989



보림사 성지순례·산행

오길수 광주불교산악회장은 23일 전남 장흥 보림사와 화순 운주사로 성지순례 및 산행을 떠난다. (062)514-6996

우리불자회는요

영등포교도소 직원불심회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옥 문 앞에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서원하신 지장보살님. 우리 불심회는 '지장보살 닮기'를 발원해 왔습니다. 한 때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멍에를 쓴 재소자들. 이들이 흘리는 참회의 눈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처님과 평생 함께 가야할 우리 불자회의 도반들입니다. 불법의 테두리 속에서 살기를, 우리는 이들과 함께 17년째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회는 영등포교도소 직원불심회입니다. 창립은 지난 1986년 몇몇 뜻있는 직원들로 소박하게 출발했습니다. 사무, 보안, 야근 부서 등 상이한 근무 환경과 여건 등으로 한데 모여 법회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정·교화업무, 그 자체가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라 믿기에 '재소자 상담'을 법회라 여겼습니다. 불우한 재소자들에게 영치금을 전달하고, 이들의 고충을 들어주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 우리 불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식구는 불과 10명이었습니다. 회원은 적었지만, 차근차근 신행활동을 펼쳤습니다. 회원 모두가 '1회원 1불자 포교활동'을 전개하고, 매월 교도소 내 민원봉사실에서 정기법회를 열었습니다. 연3회 가족동반 성지순례도 해왔습니다. 불심은 이렇게 키워왔습니다. 덕분에 이제는 80여명의 대식구로 회원들이 불었지요.

어려움도 적잖았습니다. 경전공부와 독송이 어렵고 낯선데다가 근무 시간이 맞지 않아 제대로 법회를 보기 어려웠습니다. 체계적인 불교기초를 공부할 수 없었던 것도 큰 문제였지요.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재소자 불자들에게 전해줄 불서 구입비조차 없어 안타까웠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영등포교도소 불교종교위원이신 조계사 지홍 스님, 법운포교원 법운 스님, 강남 봉은사, 신촌 봉원사, 천태종 관문사 등등 헤아릴 수조차 없이 많습니다. 우리 불심회가 이만큼 활동할 수 있게 한 큰 버팀목들이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불심회는 신세대 군인인 경비교도대 불심동호회를 적극 도와줍니다. 직원 불심회와 함께 법회를 보면서, 법음을 나눌 겁니다. 또 지난 93년에 발족한 전국교정불자연합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전국 40여개 교도소, 구치소 등에 근무하는 1만 2천 교정공무원의 신행단체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서울지역 교정인불자회와 교류도 펼칩니다. 합동법회, 성지순례, 인근 복지시설 방문 등을 통해 교정공무원 불자로서 대사회적 활동력 강화할 방침이다.

우리 불심회는 자비심을 한없이 베풀 수 있는 불자이기를 서원합니다. 불우 재소자와 고아, 독거노인들에게 언제나 밝은 내일을 보여주는 그런 불자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강정석 총무

참회의 눈물 재소자들 우리불자회 도반
교정공무원 신행단체 자리매김에 주력



◇영등포교도소 직원불심회 회원들이 지난해 9월 전남 백양사에서 열린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수련회에 서 불자교정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실크로드와 함께하는 성지 순례

성지순례는 구법의 여정입니다. 구법의 여정에는 올바른 안내가 필요합니다.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하는 제 1의 불자 여행사가 되겠습니다.

중국불교4대명산
■ 관음도량 보타낙가산 5일 760,000원
출발일 : 4월 9일, 17일, 24일, 5월 15일
■ 문수도량 오대산 6일 980,000원
출발일 : 5월9일, 16일, 23일, 30일
■ 지장도량 구화산 5일 870,000원
출발일 : 4월 18일, 25일, 5월 9일, 16일
■ 보현도량 아미산 5일 880,000원
출발일 : 4월24일, 5월 15일

중국 서안.장가계
■ 5일 890,000원 ——— 출발일: 5월 12일

티베트 성지순례
■ 티베트 수미산순례 23일 3,790,000원
출발일 : 6월 3일
■ 티베트. 네팔순례 11일 2,390,000원
출발일 : 5월 17일. 6월 3일

스리랑카 성지순례
■ 6일 1,490,000원 ——— 출발일 : 4월16일

캄보디아 앙코르왓. 태국 성지순례
■ 6일 849,000원 ——— 출발일 : 4월 18일, 25일

※ 환율변동에 따라 다소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 앞)
예약 및 문의 (02)720-9600

우리 가족은 특별하다!!
가족을 사랑하는 특별한 방법! 지금 전화주세요!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氏

"수신토종오가피 수신천사토종오가피"

월드컵 축구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직접 재배한 토종오가피만을 사용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국내최대오가피농장에서 생산합니다.
- 바로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천사같이 소중한 우리 어린이를 위한 선물!
옛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오가피를 먹었습니다.
손주를 위한 할아버지의 고집으로
어린이들의 입맛에 맞춰 만든 -
수신천사 토종오가피.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 아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수신토종오가피를 준비해주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02) 447-9114

“신라 원광법사 진골출신 화랑”

김태식 씨 ‘화랑세기 필사본’ 내용 소개



◇1989년 발견 이후 진위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화랑세기’ 필사본(사진제공=연합뉴스).

1989년 발견 이후 진위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화랑세기> 필사본이 세속오계를 설한 원광 법사의 행적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를 펴내 필사본이 진짜일 가능성에 힘을 보탰던 연합뉴스 김태식 기자(문화재 · 학술 전문기자)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화랑세기> 필사본은 원광을 ‘신국의 대성인(神國之大聖)’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으며, 원광의 가계와 출생연도, 행적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사실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올 하반기 출간될 2권에 이러한 내용들을 수록할 예정이다.

■ ‘신국의 대성인’ 화랑의 우두머리였던 풍월주 32명에 대한 전기를 담고 있는 <화랑세기> 필사본에는 승려인 원광 법사를 ‘신국의 대성인’이라고 평하는 표현이 3~4군데나 나온다. 이는 원광이 <화랑세기>를 쓴 김대문의 증조할아버지인 보리(12세 풍월주)의 형이기 때문. 그러나 김 씨는 “원광 법사가 당시 신라에서 대성인으로 추앙받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기 가문 사람이라고 함부로 신국의 대성운운하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며 “그 동안 세속오계에 한정됐던 원광의 새로운

가계 · 출생 · 행적 등 흥미로운 사실 밝혀

사학계 “신뢰 미지수” “자료로 인용 안해”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원광은 화랑이었다 10세 풍월주를 지낸 ‘미생(美生) 열전’에는 당시 화랑도가 5개파로 분열됐는데, 그 중 한 파가 “정숙태자를 풍월주로 세우고 원광을 서열 2위인 부제(副弟)로 삼으려 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를 근거로 김 씨는 “원광 법사는 처음엔 화랑이었고 도교 수행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 출생의 비밀 <속고승전>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해동고승전> <삼국유사> <수이전> 등은 원광 법사의 성을 설씨 또는 박씨로 다르게 기록할 뿐 아니라 생몰연대도 차이가 난다. 필사본에는 4세 풍월주였던 이화랑과 진흥왕의 왕비였던 숙명공주 사이에서 난 아들이 원광 법사라고 나와 있다. 따라서 원광 법사의 속성은 ‘김 씨’가 된다. 또 숙명공주와 이화랑의 사통 사실을 안 진흥왕은 566년 숙명공주와의 사이에서 난 정숙태자를 폐위시키고 동륜을 태자로 삼는데, 이 때가 곧 원광 법사의 출생연도다. 566년은 <삼국유사>에 출가 연대로 나와 있는 해다.

그러나 <화랑세기> 필사본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 불교사학자들의 반응은 아직 회의적이다. 최연식(서울대 강사) 씨는 “새로운 내용은 나오지만 신뢰할 만할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최 씨는 “가장 신뢰할 만한 기록인 <속고승전> ‘혜민전’에 보면 혜민이 587년 신라 광사(곧 원광)로부터 <성실론>을 배웠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필사본에 의하면 이 때는 원광이 화랑 내부 갈등에 관여했던 시기(585~588)”라고 지적했다.

김복순 교수(동국대 역사철학부)는 “아직 사료로 인용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원광 법사가 육두품(설씨)인지 진골 출신(박씨 혹은 김씨)인지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기록들도 나와 있어 검토해 볼 내용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自燈明 法燈明’의 ‘燈明’은 ‘섬(귀의처)’으로 번역해야”

마성스님, ‘등불’은 초월적 자아로 오해 소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 바로 그 유명한 ‘자등명(自燈明) 법등명(法燈明)’이다.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해라”는 이 말은 “그 어떤 절대자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불교의 특징을 한 마디로 압축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불교 관계 전문서적은 물론 학계에서도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자등명 법등명’이란 표현은 잘못된 번역이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끈다.

팔리문헌연구소장 마성 스님은 8일 불교학연구회(회장 해주) 제16차 학술발표회에서 ‘자등명 법등명의 번역에 대한 고찰’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아무런 비판 없이 써온 ‘등불(燈明)’이라는 한역은 장소(곳)를 뜻하는 ‘섬(洲)’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팔리어 ‘dīpa’의 번역 사례를 한역 대장경은 물론 현대 영어 · 독일어 · 일본어 · 한글 역과 꼼꼼히 비교한 마성 스님은 “팔리어 주석서나 붓다고사의 주석서 등 고주석서에 충실한 학자들은 대부분 ‘dīpa’를 섬(洲, island)으로 번역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붓다가 최초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는 팔리어 장경의 상응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섬, 동굴, 피난처, 귀의처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모두 구체적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들로 ‘dīpa’가 추상적 의미의 ‘등불’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마성 스님의 설명이다.

마성 스님은 “단순한 번역상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등불로 번역할 경우 무아가 아닌 초월적 자아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철학적 문제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성원스님, 위스콘신大서



한국 최초 교판사적 체계 연구

교판 계보 공시적 · 통시적 검토

특정 종파의 교판 체계가 아니라 중국 교판사 전체를 다룬 최초의 박사학위 논문이 한 한국인 스님에 의해 나왔다. 최근 미국 위스콘신대학 아시아언어문화학과에서 ‘중국 불교 교판 사상사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성원(사진) 스님이 그 주인공.

5세기경 시작돼 9세기경 일단락된 교판의 계보를 공시적, 통시적으로 검토한 이번 논문에서 성원 스님은 종래 일본이나 서구학자들의 견해를 반박했다.

교판(敎判) 또는 교상판석(敎相判釋)이란 불교 경전이나 교리의 분류 체계로, 5세기경 서역 출신 승려 구마라집에 의해 대 · 소승 경전과 논서들이 한데 섞여 번역 · 소개되자 이를 정리하고 체계화해야 할 필요에 의해 생겨났다. 그러나 특정 종파의 근본 경전을 최상의 위치에 놓으려는 종파주의적 흐름으로 변절됐다는 게 기존 견해였다.

하지만 성원 스님은 “중국 불교의 교판 체계에는 종파주의적 교판과 함께 종파성을 띠지 않은 통합주의적 교판의 두 유형이 있었다”며 그 계통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스님은 구마라집(334~412)에 의해 시작된 통합주의적 교판 체계가 승예(352~436)와 보디루치(?~527), 혜원(523~592), 길장(549~623)을 거쳐 원효(617~686)로 계승되었음을 증명해 보이며 “중국 불교에서 종파는 서구 기독교와 일본 불교의 용례와 전적으로 다르며 ‘계통’의 의미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원 스님은 1989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92년 서울대에서 ‘법장 사상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권형진 기자



절(1)

목탑을 중심으로 삼고

372년 전진(前秦)의 왕 부견(符堅)은 사신과 순도(順道) 스님을 통해 불상과 경문을 고구려에 보내왔다. 3년 뒤인 375년 2월에 우리 나라의 첫 절인 초문사(肖門寺)가 세워지고 순도 스님이 이 절을 맡았다. 또한 이불란사(伊弗蘭寺)를 함께 지었는데 이는 동진(東晉)에서 온 스님 아도(阿道)가 맡았다. 이것이 고구려 더 나아가 한반도에서 불교의 시작이다. 그런데 초문사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이 있다. 중국의 문헌인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을 보면 초문사가 성문사(省門寺)로 표기되어 있는데 고구려왕이 순도와 사신을 감격적으로 맞이한 성문(省門)을 절로 만들었다고 한다. 초(肖)자와 성(省)자는 획 하나 차이가 나니 옮겨 적는 과정에 오류가 있었던 모양이다. 아무튼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고구려 최초의 절은 관청을 고쳐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도가 고구려에서 신라에 들어가 처음 지은 절도 당시의 검소한 풍속에 따라 모옥(茅屋), 즉 초가집이었다고 한다. 절과 궁궐은 기와집으로 짓는 것이 상례지만 초기에는 사정이 여의치 못했다. 사찰로서 온전한 모습을 갖춘 때는 고구려가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기 위해 393년에 건립한 아홉 개의 절(九寺)부터일 것이다.

평양에 있는 정릉사(定陵寺)는 아홉 개 절 중의 하나이거나 아니면 5세기 초에 세운 절로 추정된다. 북한의 학자들은 평양으로 천도하면서 고구려 시조인 동명왕의 능을 평양으로 옮겼고 그 능을 지키기 위해 이 절을 세운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능을 지키는 절이라는 의미의 ‘정릉(定陵)’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기와가 이 절터에서 출토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릉사는 고구려를 대표하는 사찰이다. 규모가 고구려 사찰 가운데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짜임새도 웅장하다. 평면을 처음 보면 복잡하다는 인상을 받지만, 차분히 살펴보면 가운데 구역에서 고구려 절의 전형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중앙에 남북방향으로 문, 탑과 금당, 그리고 강당이 줄지어 있다. 탑은 부처님 사리를 모신 곳이고 금당(金堂)은 몸에서 황금빛이 나는 금인(金人), 즉 부처님을 모신 건물을 가리킨다. 그런데 가운데 8각형 목탑을 세 채의 금당이 북 · 동 · 서쪽 방향에서 둘러싸고 있다. 마치 금당들이 탑을 호위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배치를 학자들은 ‘1탑 3금당식’이라고 부른다. 1탑 3금당식 배치는 고구려 사찰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구조인 점을 염두에 둔다면, 고구려시대에는 불상신앙보다 탑신앙을 좀더 중시하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앙의 구역을 중심으로 몇 개의 건물군들이 좌우로 날개를 펴고 있다. 좌우의 구역에 있는 건물들은 후대에 세워진 것이다.



◇복원된 정릉사의 현재 모습. 중앙에 8각형의 웅장한 목탑 대신 작은 석탑이 놓여 있다.

중앙 8각목탑 중심 동 · 서 · 북쪽에 금당

전형적 1탑 3금당식 … 탑 신앙 중시한 듯

이 사찰은 최근에 복원되었다. 그런데 아쉽게도 가운데 목탑을 작은 석탑으로 대치하였다. 어떤 사정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우리처럼 북한에도 목탑을 복원할 만한 기술이 아직 준비되지 못한 모양이다. 웅장한 목탑이 금당들의 호위를 받고 하늘로 높이 치솟아 원래의 그 위용을 느낄 수 있을 날을 기대하여 본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자비의 등 지혜의 등”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 (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 (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주름등



보관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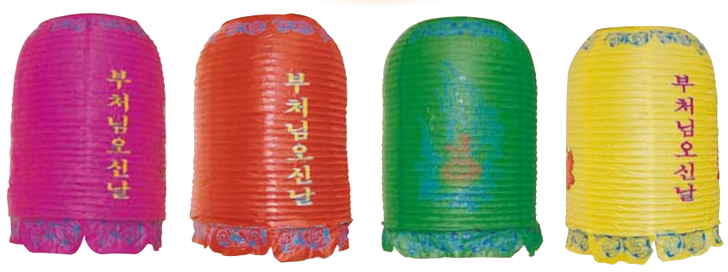
팔모조립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실용신안 등록 의장출원 종 등



만월등



※ 연등에 사찰이름을 인쇄할 경우 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e-mail : chanduk21@hanmail.net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 광고문의
TEL 02)732-1522 ,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0×4.2)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곶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법회 기도

지장사 법회안내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불심이 돈독하여 서로를 살려내는 인생철학을 가진 행자(女)를 구합니다.
인생상담 : 조금이나마 밝고 윤택한 삶에 보탬을 가져보자는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02)981-8418
02)907-1643

대한불교조계종
구 담 사
조상 태아 영가 · 천도지장도량
● 수시접수 中
● 태아영가 동자상 조성불사 中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연곡리 595
031)533-2855

구인 구직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용암사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산 51번지
02)387-3216
011-9782-3216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보현정사
(서울 교대부근)
02)583-1080
016-221-1080

(女) 종무원 모십니다
● PC 사용 가능
● 20대 ~40대
▷ 구파발 흥국사
02)381-7970
011-9575-7308

(女) 사무원 구함
● 일반 종무직 1명
● 영어, 컴퓨터 전공자 1명
▷ 경주 골굴사
054)744-1689
011-763-1690

공양주 보살님 구 함
▷서울 서대문구
(월 80만원, 60세 미만)
02)394-9018
017-236-8761

기 도 스 님 모 십 니 다
▷ 경기 수원시
031)255-104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33)436-6611

산세수려한 사찰입니다 함께 하실 공양주 및 함께 기도하면서 지낼 보살님, 거사님들은 연락바랍니다
▷울산광역시
052)254-5125

산사나 포교원에서 기도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061)772-4109.5401
011-9302-1618

공양주 보살님 (처사님) 모십니다
▷ 50세 이상
011-315-3041
011-483-5639

(女)사무원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운전면허 소지자 및 숙식 가능자
대한불교조계종 인천 보각사
032)522-8131

산속 조용한 암자에 스님이 필요한 곳은 연락주십시요
▷부전도 가능
011-9825-0108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청 주
50세 이상
011-459-3282

수행하는 스님입니다
산이나 바다근처 조용한 촌집 보시할 분 계시면 연락주십시오
016-521-7926

부전스님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 조계종 사찰 · 김포위치
011-9710-023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분 당
031)719-0408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만장사
031)448-8811

복지 불사에 뜻이있는 불자님이나 인연있는 보살님 모십니다.
제주도에 경관 수려한 800평 터 있음
수련원 실버요양원
방생기도 도량 법회 최적.
건축허가 유, 즉시 건축 가능함
017)692-0956

무쏘,갤로퍼,코란도,레토나 등
4륜중고승용차
보시할분찾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학서암
061-553-3953

이전 강좌
알림 정보

광 명(光明)
월 간 지
(행복 · 건강 · 번영 · 진리의 월간지)
3개월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031)297-1994
016-383-1990
좋은 운명의 근원은 덕(德)
- 본문중에서 -

비만 무료로 드립니다
확실한 다이어트!
밑져봐야 본전!
※ 년령에관계없이 사무원 구함
02)437-5365
019-634-3069

修行의 魔障
혼침 · 도거
색마 · 수마
(정복가능)
031)768-7184

각종 제사나 의식때 염불해 드립니다
필요하신 사찰, 거사님, 보살님 연락주십시오
(천도재, 49재등)
011-762-5282
031)863-8478

팔공산 약사정사
신비한 맥반석 약수
당뇨, 변비, 술병, 중풍
삼칠일 기도 성취 도량
종무소 사무장, 평생함께살 아갈 독거노인(60~70세사이, 부부도 환영) 모십니다
053)985-6630
011-9554-6900

(학생)
왕따 · 탈선 · 정서불안
(가정폭력)
매맞는 아내, 매맞는남편
부부간의 언어 폭력
(인간관계의 갈등, 부조화)
부부간, 부모자식간, 姑婦간
031)765-0584

천도재 구병시식
수자령 영가천도
● 수시 접수 中
● 수자령 영가천도재는 9月예정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생 활 불 자 정 보
24시간 광고접수 받습니다
"한밤중이나 휴일에 광고 접수가 가능할까?
시간이 없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광고접수 시간을 놓치셨던 분들!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생활불자정보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붓다뉴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광고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www.buddhanews.com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도원사
· 주소 : 경남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백안부락 산 270
위 사찰은 주지스님(법명 용각) 열반으로 인하여 대한불교 법륜종에서 탈종을 공고 함
불기 2547년 3월 12일
한국불교 법륜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염불사 · 속 명 : 최 갑순
· 주소 : 강원 영월군 영월읍 방절1리 1반
위 사찰은 대한불교 현나종의 종지 종풍과 맞지 않아 탈종하오니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한내에 연락바랍니다
(공고기한 : 2003. 3.19 – 2003. 4.19)
불기 2547년 3월 19일
대한불교 현나종 총무원장 법하

역학 수강생 모집
■ 과목 : 사주, 작명, 신수, 궁합, 택일, 육효, 대정작괘법 관상, 풍수지리
■ 기간 : 수시모집
■ 강사 : 30년간 청운역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청운 엄윤문선생이 직접 강의합니다.
※ 교재는 이석영선생저서 사주첩경으로 강의합니다.
저 서 명학비해격국용신론을 위시로 30여권을 저술 하였음
안국동 한국일보옆 청 운 역 학 원 02)723-7449/011)9638-8229

易 수강생 모집
무료공개강좌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듣기만 해도 암기 됨, 감명비법공개
◆ 주야, 주말반 : 초보에서 전문까지
◆ 특강반 (법당 · 포교원운영 · 스님 · 법사)
◆ 사주로 영가찾는 법 등
◆ 개운법, 영가 · 조상천도 상담환영
☎ 02)2236-2284(2,6호선 신당역)

30초이내 운세를 맞추면 입금
서울은행 24304-3396114 김진동
02-826-5067
• 명리학 연구 15년, 전화상담 경력 6년째 바로 실력테스트해보세요.
• 상담실습생 약간 모집 – 교재(사주첩경 이석영 저)
• http://www.speedunse.com 에서 핸드폰 / 신용카드결제 가능합니다.

스님과 함께하는 동양사상
● 주역을 통한 한방 역학 및 사주 명리학 특강
사주학 대비 사상체질, 오행침법, 식이요법
(뜸, 부항, 침술, 민의학 강의)
"길 없는 길의 비밀"
선지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던 스님께서 중생의 고통을 직시 분별의 장애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 길을 직관에 의한 깨달음의 상승법을 통해 열어 드립니다.
031)256-5605, 016)433-5605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FM 89.9MHz
www.bbsradio.co.kr FM 89.9 MHz
BBS 부산불교방송
부산불교방송은 21세기 불교문화 진흥을 선도할 대망의 새 사옥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자여러분의 정성어린 지원을 기대합니다.
우체국 : 601237-01-001062 국민은행 : 129-01-0011-308 예금주 : (재)부산불교방송
대표전화 : 051)644-5114

압구정동
한마음공인중개사
Hanmaum
대표 나 정 수
한성대 부동산학 석사
문의 (02)542-0660
(016)791-6506
♣압구정현대, 한양아파트 전문

2002년도 『현대불교 합본집』 발간!
02)737-0090, 02)737-8881 / 팩스 02)737-0697
※ 2002년 이전 합본집은 50,000원(발송비무료) 한정 특가 판매

당 뇨
다운 밸런스
- 당뇨,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그것은 다운 밸런스에는 사람의 체질을 약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된 혈당치가 다운 밸런스의 당대사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며 물질 영양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핍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양바란스를 조정해 줍니다.
▶ 다운 밸런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다운 밸런스 90mg cap 90 cap × 3병
1개월분 13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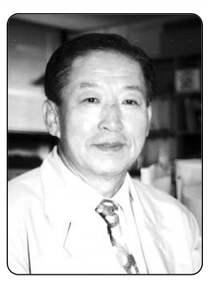


결과에 자신있습니다.
자연식 동우회 회장
개발약사(한약사) 박동완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다운 밸런스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갱년기 장애 등
· 자율신경실조증
· 정력증강, 술, 담배해독
· 암, 관절염, 고혈압

초원케미칼라이프 Co.
C.W. (구)반도제약특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무 료 전 화 080-598-9832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 · 지전류 · 지자기의 유해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 · 어깨결림, 우울증, 악몽,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등이 발생합니다. 수험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 · 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해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 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름과 번지만 알면 자택 · 사무실 · 조상묘소의 수맥 · 지자기 · 지전류 유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택과 음택을 원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과 지하수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들께는 실비로 차폐해 드립니다.
● 유해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휴대용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9596-4848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다이어트를 위한 절식요법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최근 정치인들과 일부 연예인들 사이에서 자연발효 원액을 이용한 효소 절식법이 바람처럼 일고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www.chorokwon.com

2003 세계불교 서화대상전
■ 시상 일시 및 장소 : 2003년 4월 27일 서울 종로구민회관 대강당
■ 전시 일시 및 장소 : 2003년 4월 26일 ~ 27일(2일간) 서울종로구민회관 전시실
■ 주 최 : 한국, 아세아서화협회
■ 후 원 : 일본서도학회, 일본서도전문학교, 중국서법학회, 무노서법학회, 중국관음불학회, 한국불교예술문화원
- 행사계획안내 -
1. 참가자격 : (A) 불교부문
① 성인부 : 국내외 불교신자로서 습작신인 및 기성작가 총망라 응모함
② 학생부 : 국내외 초, 중, 고, 대학생 총망라 응모함
2. 불교서예부분
● 출품종목 : ◎ 불교일반부문, 성인부, 학생부 공히 서예(불서), 한글, 한문, 기타 종목 내용 자유
3. 불교미술부분
● 출품종목 : 달마선화, 탱화, 불교미술, 조각, 불화, 한국화, 동양화, 서양화, 사군자, 문인화, 기타 종목 내용 자유
4. 작품규격 : ◎ 성인부 : 화선지 규격 1/2 (20호) 또는 전지 (40호)
◎ 학생부 : 초등부 (초등학생 1,2,3학년 1/4절, 4,5,6학년 1/2절) (중학생 1/2절, 대학생 1/2절)
5. 출품회비 : ① 성인부, 1점당 50,000원
② 학생부, 1점당 20,000원 추천작가 150,000원(작품은 본회에 귀속함)
(1인 3점 이내에 전 작품 표구나 배접안된 작품으로 제출할것)
6. 공모기간 : 2003년 4월 9일 오후 5시까지
7. 접수방법 : 출품원서를 작성하여(부문명기) 작품과 동시 등기우편으로 접수 요망
※ 출품회비는 아현동 우체국 임 병 남 013714-06-002402
아현동 국민은행 임 병남 035-0253-327로 송금 요망
(소속이나 성명 명기 요)
8. 참가출품접수처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2동 330-7호(3F)
9. 시상내용 : 불교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특선상, 입선상, 은배, 금메달(성인부, 학생부 공통)
※특별상 : 관세음보살상, 지장보살상, 달마대사상, 원효대사상, 의상대사상, 사명대사상, 금강상, 반야상, 삼보상, 금배
연락문의처 : 02-313-0756, 364-0083
2003년 세계불교 서화대상전 집행위원회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서산
- 법 당 : 28평
- 요 사 : 50평
- 부 지 : 900평
- 가 액 : 3억 2천 (전국부동산 교환가능)

- 위치 : 충남 논산
- 법 당 : 20평
- 요 사 : 100평
- 부지 : 900평
- 가액 : 3억 8천

- 위치 : 충남 공주
- 법 당 : 15평(인법당)
- 요 사 : 15평
- 부지 : 500평
- 가액 : 5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011) 713-5634

현판 주련 서각 화각

天心書刻
一雲 金昶煥

전통서각 수공예 제작
TEL 031 · 633 · 1011
FAX 031 · 634 · 7275
H·P 011 · 269 · 2353

大육임 수강생 모집

오행운명가(五行運命家)활인역자(活仁役者)로서 참 진인(眞人)이 되기 위한 필수학. 인사만단의 오천년(五阡年) 비전 육임학

참고교재 六壬大全 六壬探玄 六壬類聚 六壬秘要 六壬精華 六壬神課

본 학회는 정통 육임학 이수자에 대한 수강인 선별을 통한 강의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정통이론과 실제임상의 완벽한 조화를 통한 실사구시의 강의. 초급반, 지도자반을 별도 구성하여 강의 합니다.

문의처 : 02)393-2471 난강학회(欄江學會) 登明 서 정길(徐 正吉)
강의처 : 지하철 2호선 이화여대역 3번 출구앞. 난강학회
www.nankang.co.kr

민속불교백화점 (체인점도 모집합니다)

금불상, 목불상, 옥불상, 금탱화, 서적
승복, 신복, 유기, 도자기, 농악복일절
북, 장구, 재징, 매구, 민속국악기일절

전국 어디든 체인점 개설을 지원합니다.
노후 생활에 최고의 사업을 원하십니까.
년 1조원시장에 달하는 불교 / 무속용품 체인점
사업본부에 문의바랍니다.
전 화 : 031)480-4848, 031)417-4848
팩 스 : 031)480-8549

사찰안내

암 자

- 위치 : 인천 시내
- 부지 : 380평
- 주택 1동(방 4개)
- 양도가 : 1억 5천만원
- 지하철역에서 20분거리이며 암자 및 토굴로 최고임

포교당

- 위치 : 인천시내 최고요지
- 법당 : 50평
- 보증금 :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508-5037/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천도재, 불공 등 임시로 스님 필요한 곳은 연락 바랍니다

055) 387-0361
016) 428-6665

자연철학 회원 모집

♣ 운명감정 비법공개
♣ 창업 및 취업보장
♣ 자격증, 회원증 발급
♣ ARS전화상담가능
※수강 :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
※강사 : 학회장 직강 / 공 자운교수(서울大 졸)

무료공개특강 2월20일 목요일
★수시접수★

사단법인 한국자연철학연구학회 ☎(02)2272-5131(종로 5가 한흥증권빌딩)

사주풍수강좌

사주, 양택풍수, 음택풍수 회원모집
※ 서적 패철 본 협회 및 유명서점 판매중
회원증, 자격증 발부(초급반 3월개강)
강좌시간 : 매주 화, 수, 목(오전, 오후)

http://www.ps21c.com
사단법인 한국자연지리협회
(02)929-1188, 922-1553
지하철 1호선 제기역 1번 출구 금성빌딩 2층 203호

사찰 안내

- 위치 : 동작구 상도2동 201-60호 백운사
- 대지 : 66평
- 건평 : 56평(1, 2층, 지하)
- 삼존불
- 가액 : 5억 3천(절충가능)

02)815-0302
011)722-0302

스님 · 불자님 고민 삼환이 해결해 드립니다

임법당, 요사채, 신축 및 보수, 조립식 부속건물 신축, 동기와, 토기와, 비세고, 허물어진 토굴, 칼라성형강판으로 교체, 70년 보장. A/S 확실
전국 어느 곳이나 무료견적 시공 상담.

삼환 주택 개량 공사
경북 사무소 : 054-292-7613
울산 사무소 : 052-262-0601
휴 대 폰 : 011-9307-0609

사 찰 안 내

- 서울 포교당
- 부 지 : 67평
- 보증금 : 8천만원
- 시설비 약간(절충)
- 시장, 교통 요충지

- 위 치 : 서울
- 부 지 : 10,000평
- 법 당 : 30평
- 요 사 : 30평
- 가 액 : 12억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 안내

- 위치 : 통도사 IC 근처 현대식 건물
- 법당 15평, 요사 25평, 대지 95평
- 가액 : 9천 5백만원 (절충가능)

016)9891-7755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대흥동
- 상가 2층, 총 34평
- 방1, 주방 1, 법당, 화장실
- 보일러 시설 완비
- 전세 2천만원
- 시설비 : 1천 5백만원
- ※ 토굴도 있음, 문의 가능

011)9867-9822

사찰안내

- 위치 : 서울 강서구 목동 4거리 남부시장 입구
- 법당 : 60평, 방1, 부전실 1개 공양간 1개, 세면실 겸 샤워실1개, 삼존불, 시설완벽
- ※ 시장입구에 있어 포교에 최적
- 가액 : 8000만원 (시설비 일체 포함)

02)2645-2445
02)2648-2445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우성면 소재지
- 대지 500평, 건평 30평
- 특징 : 삼존불, 용궁, 천연 약수 임법당, 시설일체
- 가액 : 전세 2천만원 (가격 절충가능)

011)457-2459

사찰(급)안내

- 위치 : 삼천포 앞바다가 멀리서 훤히 보이고 좌청룡 우백호가 뚜렷하고 약수물이 많이 나오는 청정도량임
- 부지 : 약 3000평(준농림지) 중
- 법당 : 27평, 요사채 : 약 50평(스라브)
- 주지실 : 12평, 삼성각 : 16평(목조)
- 가액 : 3억(1억은 1년뒤에 지급해도됨)
- ※ 복지시설도 하기 좋은 산세좋은 도량 임 대형차량 진입 됨(주차장 약 200평)

017)595-5958

사 찰 안 내

- 위 치 : 부산
- 대 지 : 약 600평
- 법 당 : 15평
- 요사채 : 20평
- 가 액 : 3억

- 위 치 : 양산
- 대 지 : 100평
- 법 당 : 20평
- 요사채 : 20평
- 가 액 : 9,500만원

※ 바닷가 숲속
※ 해안도로에서 100m
※ 뒤에는 산, 앞은 개울
※ 부산에서 30분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51)508-7570 / 018-563-9575
홈페이지 www.boolguk.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포교당 안내

- 위치 : 청주시내 대로변 옆 주차장 완비, 4층 건물중 2층
- 평수 : 50평(실평수 47평)
- 보증금 : 2천만원(절충가능), 월 50만원
- 방3개, 주방, 세면장, 거실 큼
- 시설비 : 1천 5백만원

043)272-0147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남해
- 건물 : 철재천막으로 되어있슴
- 부지 : 250평
- 부처님 모셔져 있슴 요사채 따로 있슴(철재천막)
- 기도하기 최적. 바다가 보이며 전망이 좋음
- 가액 : 2천만원

018)645-1357

암자 별장 토굴 안내

- 위치 : 충남 예산 예당 저수지 부근
- 부지 : 280평, 임법당 22평
- ※ 조용히 공부하실 스님이나 일반인
- 가액 : 1억 2천만원

016)293-4341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여수
- 대지 300평, 법당 15평
- 삼존불, 종각 범종 500관 산신각 2평, 요사채 30평, 방 6개
- 가액 : 1억 2천만원

011)9606-1042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동래 온천장 (금강 식물원 밑) 주차시설 완벽
- 법당 : 2층 47평 (종무소, 주지실, 화장실)
- 호불 500불, 연등1000개, 인등단, 영가단, 최고급 닷집(단청필)
- 공양간 : 1층 25평(화장실, 방1) ● 입주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천 5백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답사후 절충

016)444-5758

암자터 안내

- 위치 : 경남 의령 자굴산 (해발 900m)
- 면적 : 1,400평
- 위치 : 자굴산 중턱 (자량 진입 가능)
- 토지 옆에 계곡과 앞에는 저수지가 있는 자연 경관이 빼어난 최적의 암자터 임

055)882-4715/017)842-4175

포교당 안내

- 부산 덕천로타리에서 약 5분거리 (전철이나 버스) 구포시장내 3층
- 건평 60평, 방 4개, 주방시설 완비
- 삼존불, 신중, 지장, 신중 탱화, 산신 탱화 모셔져 있슴
- 보증금 1천5백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55)386-7463
016)355-4264

사찰터 안내

- 위치 :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
- 팔공산 절터 : 약 2,000평 (가격절충)
-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 특징 : 산세수려하고 절경 좋고 공기 맑음

011)9401-8913

사찰 안내

1. 위치 : 대전 보문사 임법당
- 슬래트 구옥 60평
- 방4개, 창고 및 목욕탕
- 석탑, 시유지 가옥등기 있슴
- 가액 : 3천만원

2. 위치 : 마곡사근처 토굴 방 2개
- 가액 : 1천만원
- ※ 암자 토굴 다량 보유

017)409-9599

포교당 안내

- 위치 : 울산 도심 유일 포교당
- 평수 : 40평
- 현재 법회중. 시설 A급
- 시설비 : 답사후 결정 불사관계로 양도
-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

052)274-2024
011)853-1368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 주택 아파트 중심지역
- 법당 : 2층 약 50평(방2개, 주방, 세면실, 화장실)
- 삼존불, 개금불상, 후불, 신중, 산신, 인등, 인등단, 영가단 모셔져 있슴
- 현재 법회중 (부처님 전당 최고 수준)
- 특혜 : 시설비 절반으로 답사후 결정
- 보증금 1천만원, 월 45만원
- 주지스님 공찰때문에 '급' 해결

011)9343-0780

봉은 불교 미술원 탱화. 벽화 전문

- 천불탱 괘불탱 팔상탱 후불탱 칠성탱 신중탱 관음탱(천수천안) 지장탱 감로탱 지옥탱 십왕탱 현왕탱 팔금강탱 나한탱(오백나한) 산신, 독성탱

※ 먹탱화 홍탱화 ※ 무속종합탱(각종족자)

충남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 1구 493
041)541-3545, 3547 / 016)751-3545
홈페이지 www.bongen.pe.kr / www.bongen.com.ne.kr
(불모 오재택의 작품사진 300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 모 오 재 택

사찰안내

- 위치 : 경기 이천시 현대전자에서 10분거리
- 부지 822평, 법당 20평 산신각 3평, 요사채 27평, 창고 10평
- 오래된 고찰입니다
- 1000년 이상된 미륵부처님 모셔져 있음
- 가액 : 3억 5천만원

031)632-1775
017)236-177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광명시 전철7호선 광명역 앞 (4층 건물중 3층)
- 법당 : 40평
- 삼존불, 지장보살 3자, 각단 탱화 등
- 보증금 :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일체 2천만원

02)2618-0908
011)9717-9002

사찰 안내

- 위치 : 팔공산(대구시내약15분거리) 삼존불, 신중, 칠성, 산신, 용왕有 슬라브집 2채
- 평수 : 5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2천5백만원(절충 가능)
- ※ 도력있는 스님을 모십니다 몸만 오십시오

018)502-8080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여수
- 대지 300평, 법당 15평
- 삼존불, 종각 범종 500관 산신각 2평, 요사채 3평, 방 6개
- 가액 : 1억 2천만원

011)9606-104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1동 269-53
- 건물 : 약 30평. 단층 기와집. 대지 65.5평
- 동래온천 관광호텔, 동물원, 금강공원, 동래별장, 허심청 모두 도보로 3분거리
- ※3 억에 구입했으나 일본유학관계로 2억 2천선에서 양도하겠슴
- 지하주차장 있으며, 주위 약 10대 주차 가능함
- 현재 석탑과 석등이 모셔져 있으며 전세 4천만원 들어있슴

02-914-3958 (주인직접)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고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걸어서 7분)
- 대지 : 200평
- 법당 : 콘크리트 27평 1층
- 산신각 : 7평 2층(1층은 스님방)
- 요사채 : 27평
- 공양간 : 입식(현대식)
- ※ 주방 별도로 있슴
- 가액 : 1억 5천만원

052)294-7025,293-7025
019)292-7025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광진구 중곡동 4층건물중 4층 대로변 상가 주택
- 법당 : 약 60평
- 가액 : 2천만원, 월 120만원
- 시설비 : 5천 5백만원

011)776-4170
02)2294-4170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
- 산 2,000평
- 건물 : 법당 14평 산신,용왕각이 각각 2평, 요사채 30평, 창고 13평
- 종교시설부지가 350평임
- 가액 : 1억 3천 5백만원

011)811-5466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내중심(수성구)
- 평수 : 30평
- 시설 : 방, 공양실, 사무실(3개) 옥상(방1) 사용가능
- 포교당 운영하실 분, 일반사무실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500만원, 절충가능)

053)767-8866
011)518-2739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용동면
- 대지 : 150평
- 법당 : 20평, 요사채 30평
- 특징 : 현대식 건물로써 논산 20분거리 (비구니스님 거쳐지로 용이함)
- 가액 : 1억 2천만원

011)811-5466

사찰 안내

- 경북 문경시
- 법당 : 25평
- 요사채 : 30평
- 부지 : 130평
- 가액 : 1억 6천만원

011)506-6733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 북안
- 평수 : 164평, 田 256평
- 건물 : 20평
- 슬라브 요사채(방3개, 거실, 욕실)
- 법당 : 조립식 10평, 화장실: 실내외 각각 1개
- ※ 스님이 급한 불사로 저가로 양도코저 함
- 가액 : 4천 5백만원

011)486-1275

사찰안내

- 위치 : 노원구 수락산 부근 전철역에서 3분거리
- 부지 : 약 320평
- 평수 : 건물 45평, 법당 20평 방 3개, 차량주차 10대
- 가액 : 2억 5천만원

011)9024-4843
02)3391-4845

토굴(별장)안내

- 위치 : 물좋은 고장 경북 예천
- 계곡 최상류 독가 남향 (해발 600m) 1급수 사계절 풍부한 청정지역
- 전지 2,000여평에 두릅, 고사리, 호두, 밤, 감, 매실, 산초 생산
- 배산임수 명당지. 공부, 기도처 중앙고속 예천IC 30분거리
- 가액 : 8천만원

054)655-2792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시내 중심가
- 3층 건물 2,3층 합 100평
- 큰방3개, 넓은 주방, 넓은 거실, 창고방 2개
- 법당, 목조 불상, 석가모니 삼존불(관음전)
- 전체 전세 8천만원과 보증금 5천만원, 30만원 중 택일
- 내부 시설비는 면담후 결정 살림 및 즉시 법회가능. 시설A급

011)9301-2293

사찰 안내

- 위치 : 수원역 5분 거리 수원도청 입구, 대로변
- 삼존불, 후불, 신불, 지장, 산신, 칠성탱화
- 3층 건물에 2층 20평
- 법당 15평, 스님방 5평
- 주방시설 완비
- 보증금 5백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 1천만원 모든 집기류 일체 제공

011)669-4221
031)257-6622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동이면 목사리 큰 도로변, 사찰 최고 명당
- 대지 380평, 건평 1층 80평, 2층 70평, 합 150평 법당, 요사채
- 사정상 급매. 위치, 시설 최고 시설비 일체 포함
- 가액 : 6억5천만원(답사후 절충가능)

02)373-4084
011)252-0039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와 만나는
불교와 문화
2003년 3·4월호 www.kbpf.org



집중기획 - 스님, 틱낫한을 말한다
3월 16일 방한하는 살아있는 부처님, 틱낫한 스님에 대한 그간의 왜곡과 오해를 벗긴다.
• 틱낫한은 음유시인이 아니다 - 틱낫한 스님에 대한 기존의 왜곡과 오해들
• 프랑스 플럼 빌리지 수행프로그램 체험기

특별기획 시리즈 / '생명' ④ - 낙태와 버려지는 아이들,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낙태 반대운동을 전개하는 종교계에서조차 간과되고 있는 버려지는 아이들에 대한 문제와 낙태 현실을 진단한다.
• 우리시대에 낙태, 왜 할 수밖에 없는가
• 의학적인 측면에서 본 낙태의 폐해
• 천주교와 기독교에서는 낙태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 낙태에 대한 불교계의 현황
• 인터뷰 / 낙태아 천도재 중요성 알리는 묘각 스님
• 불교에서는 낙태를 어떻게 바라보나

해외통신 - 지금 인도에서는 이렇게 수행한다
• 깨달음의 성지, 보드가야의 수행풍경

내가 만난 불교문화 - 서지학자 천혜봉
국보 초조대장경을 고증해내는 보람

영화 속에서 만나는 불교 - 클래식
- 일회용 사랑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들에게 아련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며 잔잔한 감동을 주는 영화. 그 안에서 불교와 만난다

현장 속으로 - 불교계, 대구 지하철 참사 돕기
- 최근 발생한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피해자들의 구호활동에 동체대비 정신으로 발벗고 나선 불자들의 활동을 소개한다

윤창화의 근대 불서 출판이야기
• 개항 이후 최초의 불교 출판사, '삼장역회' 와 용성 스님

성낙주의 문화재소설 - 경주 황룡사 구층탑
• 사로잡힌 넋

지상중계 / 종범 스님의 『금강경』 강의
• 『금강경(金剛經)』은 어떤 경전일까?






격월간 불교와문화 전화 : (02) 719-2606, 팩스 : (02) 719-5052 인터넷 홈페이지 : www.kbpf.org ▶ 정가 7,000원, 1년 6호간 구독료 42,000원

목어

화두(話頭)와 코드



김징자
언론인·본지논설위원

20세기 막바지에 선가(禪家) 용어인 '화두'가 세속에서 유행어처럼 쓰였다면 21세기 초입 바로 오늘에 '화두'를 대신 할 만한 유행 단어는 '코드'다.

'코드'의 의미는 규약, 부호, 기호체계 등 여러 가지다.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를 쓴 현각 스님은 '오직 모를 뿐' 등 선가적 화두를 쏟아내는 숭산스님의 설법을 듣고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공부해 온 것들과는 '코드'가 다르다"고 중얼거리며 불교에 귀의했다고 밝힌다. 그리스 철학, 그리고 기독교 중심 사회의 서양적 가르침과 부처님 가르침은 코드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코드'라는 단어를 이해하기에 적합한 인용이 아닌가 싶다.

'토론'이라는 말도 '화두'처럼 뜨고 있다.

토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코드 하나가 토론의 전체가 될 수 없다. 물론 하나의 코드를 보다 탄탄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코드끼리 토론을 벌일 수는 있다. 그러나 다양한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고루 통합 할 목적이라면 토론에는 하나만이 아닌 다양한 코드의 참여가 필요하다.

사람들의 의견이나 주장은 영원히 가지각색일 수밖에 없어서 토론은 이 같은 의견 주장 견해들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마침내 견해 차이가 가장 적은 새로운 방안을 찾는 것이지 처음부터 어느 하나의 코드만을 밀고 나가겠다는 자세는 자칫 편견과 독선으로 빠지게 한다.

통합이라는 의미에서라면 아무래도 '코드'는 '화두'라는 단어 아래 개념의 하나일 것이다. 물론 '코드'도 중요하다. 하지만 전체를 아우르고 싶다면 이 시대에도 코드보다 '화두의 참구'를 권하고 싶다.

대구지하철 참사 달래는 달마도

16일 대구 달서구 두류동 불교문화예술대학. 30년 넘게 달마도 그리기에 매달려 온 범주스님은 이날 '대구지하철 참사 유가족 돕기 달마도 퍼포먼스'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갑작스런 사고를 당한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다. 스님은 퍼포먼스를 통해 그린 대형 달마도와 달마선원에 보관 중인 달마도를 팔아 성금으로 전달할 계획이라 한다.

장군죽비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 문제가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다시 강서구 염창동에서 강남구 일원동에 이르는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34.2㎞)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도로는 연주암, 삼막사, 대성사 등 사찰이 많은 관악산과 우면산을 관통한다고 한다. 제2의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계획 단계에서 신중을 기하길 고대한다.

불자 세상보기



박병상
인천 도시생태·환경연구소장

물부족 해결, 댐 건설 능사 아니다

한강 둔치를 걸어보자. 콘크리트 호안 너머 강물이 넘실대지만 발 옮길 적마다 먼지가 풀썩인다. 분명히 강변이지만 개구리 한 마리 없는 사막이다. 오랜 세월 굽이쳐 흐르며 온갖 생물이 어우러졌던 강줄기를 불도저로 가로막고 포크레인으로 파고 콘크리트로 마감하며 직선으로 획일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 강물 위로 유유히 떠다니는 유람선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홍수가 날 적마다 중계 카메라가 몰리는 중랑천을 보자. 현재는 민망할 지경으로 말랐고 오염된 바닥은 코를 쥐게 한다. 역사와 문화를 안고 흘렀을 중랑천은 홍수 나면 넘치고 비 없으면 마르는 한낱 도랑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에 둘러싸인 도랑은 작은 비도 감당 못하고 빗물 뒤에 오물만 남긴다. 중랑천을 비롯한 우리 땅 곳곳에 직선화된 강들이 다 그 지경이다. 때를 기다리다 한꺼번에 내버리는 공장의 폐기물까지 포함된 오물이 물살이 잠잠해진 바닥에 켜켜이 내려앉는 우리의 강들은 홍수와 가뭄에 유난히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이고 앞으로 세계 인구의 절반이 마실 물도 구하지 못할 것이므로 댐을 더 만들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는 이들이 있다. 댐을 지어야 먹고사는 조직과 대개 무관하지 않다. 과연 어떨까. 집중호우가 노도와 같이 댐에 흘러들어 바닥에 오물을 가라앉힌 이후의 대책은 무엇일까.

다행이라 해야 하나. 무모한 지방행정으로 아름다운 보길도의 역사와 문화가 수장될 뻔했는데, 단식에 들어간 한 시인을 포함한 주민들의 반대운동으로 댐 계획이 저지되었다고 한다. 역사와 문화, 그리고 아름다움이 없는 세상은 누구나 상상하기 싫을 것이다. 시인의 아름다운 분노는 주민들의 심연을 일깨웠지만 아직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건 왜일까.

완도군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는데, 사실 우리는 돈과 소비에 얽매인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관광객 유치나 개발로 잘 살 수 있다는 인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난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자연 그대로 아름답던 시절, 주민들은 지금보다 가난하고 불행했을까? 그릇도 반찬도 옷도 집도 읍내도 단출했던 시절, 물 소비가 많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몸과 마음은 더 깨끗했는데.

누군가 물 전쟁을 경고한다. 물 분쟁은 지역을 넘어 국가 단위까지 증폭될 것을 우려하는데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나. 댐이 아니라면 무엇일까. 환경단체는 녹색댐을 주장한다. 상류의 숲을 자연스럽게 보전하거나 나무를 많이 심어 산의 보습력을 높이자는 발상, 즉 댐 없이 맑은 물이 사시사철 흐르게 하자는 제안이다. 또한 빗물을 포함한 물의 재사용을 촉구한다. 정화처리한 물을 버리지 말고 허드렛물로 재사용하자는 제안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물 소비를 줄이는 일일 것이다.

거대한 세탁기를 한없이 만족시키는 의복 가짓수를 대폭 줄이고, 물 소비가 많은 식습관을 고쳐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겨도 다시 끓여 먹을 수 있는 찌개를 줄이자는 뜻이 아니다. 사육에서 도축 포장 폐기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물 소비를 요구하는 육가공이나 낙농제품을 덜 먹자는 말이다. 그러면 물 소비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요는 소비자의 각성을 발판으로 수요 관리를 하자는 것이다. 공급 늘리기의 댐 건설은 끝없는 물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물의 해'를 맞으며 모두가 새겨야 할 일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역사민속학회, 단체종목 현황과 대안 모색 발표회

무형문화재 단체종목 30% 원형훼손

'무형문화재 단체 종목' 56개 중 약 30%가 원형이 훼손되거나 체계적인 분류를 거치지 않은 채 지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역사민속학회(회장 박경하)가 문화재청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동안 전승실태에 대한 종합조사를 벌인 결과다. 역사민속학회는 지난 7일 '무형문화재 단체종목의 현황과 그 대안 모색'이라는 이름으로 조사결과 발표회를 가졌다. 〈편집자〉

무형문화재 단체종목의 현주소

주강현 (우리민속문화연구소장)

애초에 잘못 지정돼 원형이 훼손되는 등의 부작용과 폐해가 있는 종목이 17개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기지시줄다리기, 은산별신제, 피리정악 및 대취타, 안동차전놀이, 위도띠뱃놀이 등은 지정 당시에 원형이 훼손됐거나 원형을 정확하게 찾지 못한 종목들이다. 현재 충남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는 당제와 줄다리기를 함께 하는 것으로 지정돼 있으나 두 행사는 원래 서로 다른 시기에 행해졌던 것을 무리하게 통합했다. '띠뱃놀이'는 원래 '띠뱃굿'이나 78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놀이'로 바꾼 것이다.

무형문화재 84호인 '농요' 중에서도 고성농요와 예천통명농요는 하위 단위로 분류된 반면 남도들노래는 51호로 따로 지정돼 있는 등 분류 체계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중요무형문화재 50호 영산재는 개인보다는 공동체적 문화 성격이 강한데도 보유자를 개인으로 지정해 이로 인한 문제점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경우다.

잘못된 지정으로 부작용·폐해 많아

지정 과정과 보존·전승의 제문제

이필영 (한남대 역사교육과 교수)

지금까지의 무형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야기되는 기본 문제로, 임기응변식의 심의와 지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체 무형문화재의 불균형과 비체계성을 지적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기응변이란 전체 무형문화재의 균형과 체계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시로 혹은 간헐적으로 심의 요청이 들어오면 종목에 대해 심의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짓는 과정을 일컫는다.

따라서 전체 무형문화재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 수 있고, 이 종목들은 어떠한 분류체계 안에서 편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한 기준이 마련된다면 무형문화재 정책은 그 심의 및 지정, 그리고 새로운 종목 발굴 및 지정 권고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다.

이제는 무형문화재의 표준화된 분류체계 안에서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무형문화재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또 하나 언급해야 할 것은 유·무형 문화재에 대한 인식의 불균형이다. 그 동안 유형문화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주 소홀히 취급되었던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증대되어야 한다.

표준화된 분류로 균형있는 정책펴야

독자투고

조선일보 사설을 논박함

조선일보는 8일 '대통령 한마디에 고속철 중단돼서야'란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노 대통령의 공사 중단과 노선 재검토 지시를 '노선 선정의 법적 제도적 절차를 일거에 뒤엎었다'고 했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 절차를 뒤엎은 것은 국민들의 원성 속에서도 공사를 강행한 건교부측이다.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이 내린 지시는 '백지화'가 아니라 '재검토'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는 법과 제도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사설은 '대통령이 한 스님이 관통노선 백지화를 약속한 대선공약을 지키라며 농성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라고 했다. 이 내용은 조선일보가 고속철도 문제를 '한 스님의 농성'으로 축소 왜곡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천성산과 금정산 고속철도 환경문

고속철 문제 '한 스님의 농성'으로 왜곡

제는 '한 스님'이 아니라 이미 여러 종교단체와 환경단체 및 부산시민과 수백만 국민들이 함께하는 문제다.

사설은 '노선선정은 2년여에 걸친 준비 작업의 결과다… 환경영향평가와 공청회 등이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당시 천성산의 그 많은 산중 늪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당시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천성산의 22개 늪지에 대한 기술은 단 한 구절도 없고, 30여종이 넘는 보호대상 동식물도 단 한 종도 언급되지 않은 엉터리였다는 사실을 조선일보는 알고 있는가.

사설은 '물동량 수송 차질을 비롯해 개통지연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천문학적 숫자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강행했을 경우 자연이 입는 피해는 영구적이다. 당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 오늘의 정책들이 결정돼야 한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국책이다. (보리방송 모니터회)

종교법인 광명사 설법대학 제 1기 학인모집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땅에 전래된 이래 불교는 우리 아사달 민족의 정신적 지주로써 민족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역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겨 왔습니다.

대한불교웅변인협회가 이러한 민족불교의 의지와 신념을 웅변으로 밝히고 실천해온지 33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 각 부처의 후원과 협조로 매년 부처님오신날에 맞춰 「세계불교도법륜기 수여 전국웅변대회」를 개최하여 600여개가 넘는 장관상과 3부요인 상이 시상되었고, 특히 서울특별시에서는 2001년도부터 본 협회에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시장표창을 비롯하여 1,000만 그루 식수의 나무를 적극후원하고 있어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출된 수많은 연사들이 불교적 가치관과 인생관을 결속, 사회 각 분야에서 불법홍포와 문화창달의 역군으로 소임을 다하고 있음은 본 협회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불교웅변인협회」는 드높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가치 있는 삶의 추구와 시대변화에 걸맞는 교육철학의 정립을 위해 「설법대학」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설법대학에서는 삶과 생활의 지혜를 열어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불교교리는 물론 웅변, 설법, 서예, 동양화, 다도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연차적으로 일반교양의 교과 과정도 폭넓게 개설하여 전통적 교수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말씀을 통한 참된 지성인의 인격도야를 위한 배움의 장에 불자님과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동참이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불기 2547년(서기2003년) 3월

대한불교웅변인협회 회장
(종교법인)설법대학 학장 표 자 원 합장

모집기간 및 개강일
- 모집기간: 불기 2547년 3월 1일 ~ 3월 30일 까지
- 개 강: 2003년 4월 12일(토) 오전 10:00

모집내용
- 정규반 50명
- 초·중·고반 50명
- 방송 성우반 20명
- 서예 사군자반 20명
- 정치 지망생반
- 스님 특별반
- 사진반
- 다도반

지원자격
- 포교사 자격희망자
- 설법을 요하는 스님
- 대학 진학 특기장학생
- 성우 지망생
- 미술전공 희망자
- 학원설립을 원하는 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대학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승적증사본
- 증명사진 3매
- 스님 추천서

강의일시 및 장소
- 일 시: 매주 토·일 요일 오전 10:00~12:00
- 장 소: 광명사 1층 강의실

교수진 (불교)
- 표자원 스님: 대한 불교웅변인 협회장, 광명사 주지, 서대문구 사암연합회장
- 무진장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전 포교원장, 제2대 불교웅변인 협회장
- 표도철 스님: 초대불교웅변인 협회장, 국제포교사 한미사 회주

교수진 (서예·동양화)
- 지촌 허룡: (단원, 전통, 한국문화, 한국미술, 현대미술, 대한민국 미술대전)심사위원역
- 매창 안영자: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상 4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교수진 (웅변·설법·성우)
- 김계원 KBS 성우
- 이종래 대한웅변인 협회 전 회장, 웅변부문 대통령상 수상자
- 손은봉 다산정치학회 회장, 웅변부문 대통령상 수상
- 김수웅 대한불교웅변인협회 사무총장, 전국웅변대회 심사위원장
- 유인배 선거유세위원 4회연속 당조직 연설, 종교부위원장

교수진 (건강·사진·의식)
- 김기원 진주산업대 새생명광명회 대표
- 이치란 서계불교도(WFB,WFBY) 한국본부사무총장, 해동불교대학 교무처장 국제포교사
- 이우탁 대한민국 사진대전 특선, 저서 : 나도 사진 작가가 될 수 있다.
- 김삼경 박사 자연의학 연구가, 스리랑카 벨라나 국립대학 명예교수, 미국 황제 동양 한의과 대학 명예교수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 2동 44-498 설 법 대 학
대한불교웅변인협회 총본부 부설 Tel. 02)732-5509, 736-1895, 735-1896 / FAX. 02)723-4350

동화사에 성보박물관 세운다

통일대불전 지하에 현대식 수장고 갖춘 전시장

4월 공사 시작 … 연말 개원
교육장도 갖춰 시민공간으로

대구 팔공산 동화사에 성보박물관이 생긴다.

동화사는 최근 8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확보, 통일대불전 지하1,2층 700여 평의 공간에 현대식 수장고 등을 갖춘 최신시설의 성보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4월 공사가 시작돼 연말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설계에 돌입한 동화사 성보박물관에는 사명대사 유물인 영남도총섭인장, 영남치영아문현판을 비롯 동화사 본말사의 수백여 점의 불교관련 유물이 전시된다.

특히 동화사는 성보박물관에 항온항습 시설이 갖추어진 전시공간, 수장고 등의 '하드웨어'와 문화재 관련학과를 전공한 전문인력, 효율적인 운영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를 충실히 확보해 그간 사찰 성보박물관 운영상의 미비점으로 지적되어온 전문성 부족을 보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 하도록 준비중이다.

이와 함께 부대시설로 각종 세미나, 강의를 위한 교육공간도 갖춰 지역 불자 및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은 "성보박물관을 불교 문화재의 도난을 방지하거나 전시를 위한 불교문화재 보존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강좌, 세미나 등을 통한 불교문화를 널리 알리는 문화포교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영산회상도 전시회 열어
한국불화연, 22일까지

한국불화연구회(회장 장환진)는 17일부터 대구시립중앙도서관 1층 전시실에서 '영산회상도' 전시회를 연다.

22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불화작가이자 한국불화포교원장인 영범스님(대구 세심사 주지)의 지도 아래 지난 4년간 불화를 전수받은 한국불화연구회 25명 회원들의 60여 작품이 선보였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모습을 담은 '영산회상도'를 회원들이 여러 분야로 세분화 해서 나누어 그린 뒤 전시장을 장식하는 퍼포먼스가 연출돼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박원구 기자

"신생팀이 13년 경력팀 이겼다"

부산불교보현회 청년회, 장애인 축구대회

"야! 이변이다. 성우원이 천마재활원을 이겼다!"

9일 괘법초등학교 운동장은 성우원 축구팀의 함성으로 넘쳐 났다. 정신지체 장애시설에 축구팀을 만들어 지도해온 부산불교보현회 청년회(회장 전진호)가 마련한 축구대회에서 지난해 7월 창단된 성우원 팀이 13년 경력의 천마재활원 팀을 누르고 승리했기 때문이다.

이날 축구대회는 부산불교보현회 청년회(회장 전진호)가 창립 15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과 함께 두 시설의 축구팀을 후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여서 더욱 뜻 깊었다.

이날 청년회원과 조기축구회 등 참가자들은 쌀, 라면, 축구화, 운동복 등을 성우원과 천마재활원에 전달했으며 천마재활원 황선무 이사장은 13년 동안 한결같은 봉사활동을 펼친 부산불교보현회 청년회에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부산불교보현회 청년회는 매월 첫째, 셋째주 토요일과 일요일마다 축구를 지도하며 축구경기를 통한 장애 극복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

그 결과 천마재활원 축구팀은 세계 정신지체장애인 축구 대회에 우리 나라 대표로 출전할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갖춘 팀으로 성장했다. 이 밖에도 매월 정기 법회로 신심을 다지는 한편, 생일파티 열어주기, 크리스마스 선물주기, 명절 때 용돈주기 등 정신지체아들의 가족이 되어주는 훈훈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전진호 회장은 "우리의 조그만 관심이 아이들에게 큰 행복이 된다는 좋아서 힘든 줄 모른다"며 "좀 더 잘해주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싶은데 재정적, 물적 한계 때문에 안타까울 때가 많다"며 불자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관심을 호소했다.

천미희 기자



◇보현회가 창립한 성우원, 천마재활원 축구부.

부산불교자비원 후원회
마산 결핵요양원 방문

부산불교자비원 후원회(회장 장일선)는 9일 마산 결핵요양원을 방문, 자매결연을 맺은 환자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장일선 회장을 비롯한 회원 5명은 가족이 없는 환자와 자매결연을 맺고 매월 결핵요양원을 방문, 현금 후원, 물품 후원과 함께 대중공양 법회를 열어 환자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있다. 장일선 회장은 "찾아 와 줄 가족이 없다는 외로움을 씻어내고 환히 웃는 환자들을 보면 더 자주 오고싶다"며 준비해간 양말, 속옷, 영양제 등을 환자들에게 전달했다.

천미희 기자

대한적십자사 불교봉사회 출범

박추자 회장 "자비사상 · 적십자 정신 접목 봉사할 터"

대한적십자사 산하의 불교봉사회(회장 박추자)가 11일 적십사회관 8층에서 창립 결성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

이날 창립 결성식을 가진 불교봉사회는 불교조직이 따로 없던 98년 원불교 단위회 회원으로 가입 봉사활동을 시작했던 돼 있다.

불교봉사회 창립 결성식은 국제적십자 기본원칙 낭독, 봉사원 서약, 반야심경 봉독, 회기 수여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불국토 이사장 정관스님, 부산불교사회복지협의회 회장 혜총스님을 비롯 대한적십자사 김일휘 회장이 참석했다.

박추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의 은혜를 이웃으로 전하는데 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봉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적십자 정신과 불교의 자비사상을 접목시켜 사회의 어두운 곳에 도움을 주는 봉사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불교봉사회가 11일 창립됐다.

대한적십자사 불교봉사회는 45명의 봉사자와 20명의 후원자로 구성됐으며, 영광재활원 장애인 봉사를 시작으로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무료급식보조, 금정구복지관 재가노인 반찬 서비스, 성애원 목욕서비스, 매월 저소득자 쌀 후원 등을 비롯 북한동포돕기, 보리수 쉼터 돕기 등의 봉사를 펼치고 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사명대사유품 300여점 소장 표충사 유물관
문광부 지정 '호국박물관' 등록

사명대사 유물이 전시돼 있는 밀양 표충사유물관이 문화관광부 지정 호국박물관으로 등록됐다.

문화관광부는 8일 문화재위원회 박물관분과위원회를 열어 밀양 표충사호국박물관 등 6곳을 문광부가 인정하는 박물관으로 등록했다.

표충사(주지 혜오)는 사명대사의 유품을 전시하기 위해 지난 92년 유물관을 건립, 지난해 유물관을 정비하면서 시설, 형태 등 기준이 마련돼 이번에 박물관으로 등록됐다.

표충사 호국박물관에는 국보 제75호로 지정된 청동함은향완 등 300여점의 사명대사 유품이 전시돼 관람객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청동함은향완은 1177년에 제작된 것으로 현존하는 고려 향로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며 아름다운 곡선과 섬세한 문양으로 고려 공예미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광부 지정 박물관으로 등록되면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시설 관리 등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

천미희 기자

어려운 이들을 돕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고민중이라면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홈페이지(www.bulgukto.or.kr)에 접속하면 그 길이 보인다.

불국토가 홈페이지에 접속, <불국토 후원>을 클릭 하면, 불국토 후원시스템의 후원 신청하기를 통해 불국토 산하의 복지기관인 용호복지관, 개금복지관,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양정청소년수련관, 컴넷 하우스 등의 후원자로 참여할 수 있다.

효율적인 후원자 관리를 위해 개발된 불국토 후원 시스템은 기관 선택뿐 아니라 정기후원, 일시후원, 물품 후원 등 자신의 여건에 맞는 물적, 인적, 재정적 보시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후원회원으로 등록된 이후에는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후원한 후원금 사용내역과 후원금 결산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 후원금의 투명성도 확보된다. 천미희 기자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은가요?
불국토 홈페이지 클릭하세요"

부산서 나라사랑 캠페인 벌여

나눔의 집 · 인권센터, 4월 1~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고통을 담은 그림(사진), 영화가 부산을 찾는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전문요양원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찻집도 열린다.

나눔의 집과 평화인권센터은 4월 1일부터 3일까지 제4회 나라 사랑 캠페인 행사를 부산에서 마련한다. 부산대 총여학생회는 본관 대회의실 3층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영화상영 및 강연회, 세미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생생한 증언의 자리를 마련하고 고통의 해결을 시대적 역사적 과제로 부각시킨다.

2일에는 부산불교회관 2층 보송에서 하루찻집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그린 피해역사 그림과 사진 전시회도 함께 연다. 이날 행사에서는 위안부 문제 사죄촉구 및 일본 역사왜곡 반대를 위한 지역민 서명도 펼친다.(031)768-0064

천미희 기자

구미 수다사 대웅전 동종
경북도 문화재자료 지정

경북도는 3일 구미 수다사 대웅전에 있는 동종을 도지정 문화재자료(제435호)로 지정 고시했다. '건룡 27년' 명문이 새겨진 수다사 동종은 조선중기에 만들어진 범종중 형태, 크기, 문양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원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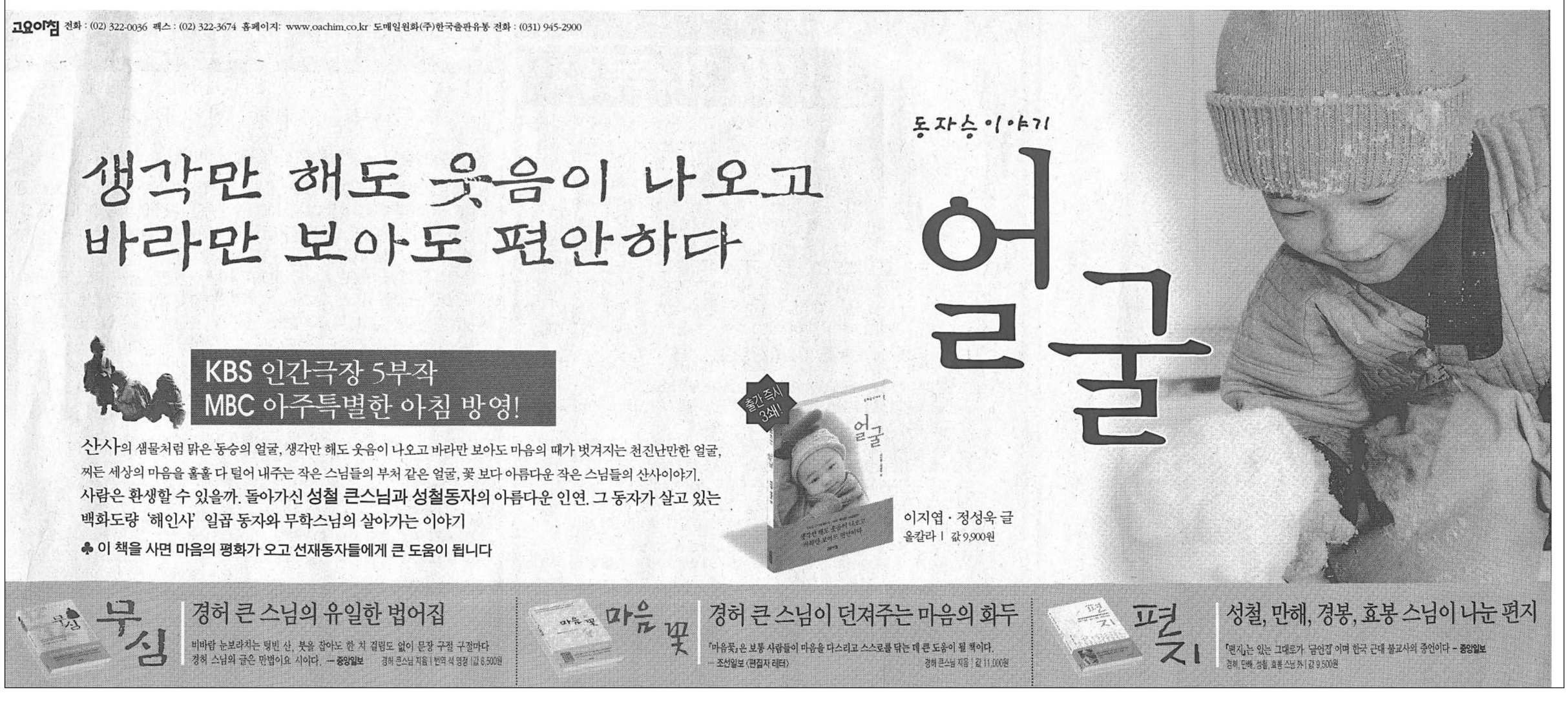
'깨달음으로 가는 순서' 목요 특강법회
지장선원, 석달간

부산 구서동 지장선원(주지 신일)은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라는 주제로 목요특강법회를 연다.

4월 3일부터 3개월동안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이번 특강은 '보리도차제론'을 초펠 스님이 우리말로 풀어쓴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여시아문>을 교재로 마련된 특강으로 체제적인 수행의 순서에 대한 이해를 돕게 된다.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를 주교재로 불자들의 기본 심성정화와 하사도(下士道), 중사도(中士道), 상사도(上士道) 등의 수행단계를 제시하며 궁극적으로 공성(空性)에 대한 자각을 통해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수행 과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3개월 동안의 특강을 통해 삶과 죽음이 반복되는 윤회의 고통을 직시한 후,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수행을 하고 중생에 대한 끊임없는 자비심으로 이타행을 행해 보리심을 닦는 순서적인 수행 가이드를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051)514-7936

천미희 기자





◇순천 송광사가 시민 휴식처로 조성할 신평리 연꽃단지 예정지.

송광사, 1600여평 연꽃단지 조성

호젓한 산책로,

정자 갖춰 시민 휴식처로

지역 관광산업 발전,

소득 증대 효과 기대

전남 순천 승보종찰 송광사(주지 현봉) 일대에 대규모 연꽃밭이 조성된다.

송광사는 전통 문화유적 정비의 일환으로 순천 송광면 신평리 사찰 입구 1,600여평의 부지에 모두 2억여원을 들여 계단식 연꽃밭을 조성하기로 했다. 연꽃밭 주변에는 송광사로 연결되는 친환경 산책로를 개설하는 한편 다리, 정자 등 부대시설을 건립해 시민들의 휴식처로도 제공한다. 또 연차적으로 재배면적을 늘려 신평리 일대를 대규모 연꽃단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연꽃단지는 어린이 · 청소년의 환경관련 현장학습장으로 제공되며, 인근지역의 벚꽃 · 단풍철을 잇는 여름철 관광명소로 육성된다. 이에 따라 송광사는 계단식 논에 농약, 질소질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연꽃을 재배하는 한편, 연근 · 연차 등은 특화상품으로 판매, 소득을 지역민 복지와 연꽃밭 확장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연꽃 확산을 위해 연뿌리를 전국 각 지역에도 보급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연꽃밭이 조성될 경우 연꽃의 높은 정화능력으로 주암호 유입수의 수질 개선은 물론 인근지역의 관광산업 발전, 지역민 소득 증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광사 주지 현봉스님은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면서도 향기로운 꽃을 피워 오탁악세에도 물들지 않는 청정함을 상징해 전통적으로 사찰에서 많이 키워왔다"며 "광주, 전남지역의 상수원인 주암호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재배하고, 다른 지역으로도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광사는 연꽃밭 조성을 위한 첫 사업으로 4월 5일 식목일을 이용해 지역민과 불자들이 참여하는 연꽃심기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불자들의 연꽃심기 동참도 받고 있다. (061)755-5301.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송광사 연꽃단지 위치도.


◇각연사 통일대사 부도

각연사 통일대사 부도 등 보물지정

문화재청은 10일 충북 괴산군 각연사 통일대사부도와 충북 영동군 반야사 3층석탑, 전남 함평군 고막천 석교 등 3건을 각각 보물 1370, 1371, 1372호로 지정했다.

괴산 각연사 통일대사 부도는 1965년 무너진 채 발견된 것을 1982년 복원한 것으로, 통일신라시대 팔각원당형 석조부도 양식을 충실히 계승한 전형적인 고려 전기 부도다. 보물 1295호인 통일대사탑비(958년 조성)와 같은 시기인 고려 광종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영동 반야사 3층석탑 역시 고려 전기 석탑으로 백제와 신라 석탑의 양식을 함께 수용하면서도 고려 나름의 특징을 살린 독특한 형식의 석탑이다.

1390~1495년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함평 고막천 석교는 널다리 형식으로 만들어진 돌다리로 원래 위치에 원형을 간직하고 남아 있는 석교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권형진 기자


◇반야사 3층석탑

LA관음사 창립30주년 기념법회

"대학설립, 방송포교에 진력"

미국 LA관음사(주지 도안)는 9일 4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0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주지 도안스님은 "LA에 한국사찰을 개산한지 30년을 맞았다"며 "앞으로 도제양성을 위한 정규대학 설립, 자원봉사자 양성, 방송포교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음사는 문화원 대강당에서 도문스님(대각회 회장) 초청법회를 개최했다. 법회에 고려사, 달마사, 대각사, 반야사, 법보선원, 법왕사, 보광사, 보문사, 원명사 스님과 신도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김원우기자

정읍지역 문화예술계

내장사 불교박물관 설립 추진

정읍 내장사에 불교박물관을 만들자는 지역여론이 거세다.

정읍지역 문화예술계는 내장산 집단시설지구 중간에 위치한 우체국건물의 70평 내부를 박물관으로 개보수해 내장사가 소유하고 있는 불교관련 문화재를 전시하는 방안을 시에 요구했다. 또 각종 향토유물과 사료도 함께 전시, 지역홍보에 나서자고 밝혔다.

현재 한옥형태인 우체국 건물은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상태에서 방치돼 있다.

정읍 내장사 한 관계자는 "지역문화계의 요청에 대해 최근 시에서 사찰에 불교박물관 설립 의향을 타진했다"며 "하지만 우체국 공간이 불교박물관으로 개조하기에는 너무 비좁아 폭넓은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원우기자

한미불교신문 창간

김응수씨가 주도하는 (가)한미불교재단은 4월 25일 격주간 '한미불교신문'을 창간할 예정이다. 한미불교신문은 미국 전지역 사찰과 한인밀집지역에 배포된다. 또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를 알리기 위한 영문잡지도 발간할 계획이다.

김원우기자

우리 절 우리 신도

"허드렛 일도 기도정진"

서울 도림사 이철은 보살

"남을 위해 봉사하고 보시행을 펼치라는 부처님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삽니다."

서울 동작구 흑석3동에 위치한 전통사찰 도림사에서 20여년간 한결같이 궂은 일을 마다않고 보시행을 몸소 실천하는 이철은 보살(61, 법명 연화)은 기자의 질문에 "불교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며 한사코 손사래를 쳤다.

이 보살은 사찰의 신도회장도 그렇다고 신도회의 간부도 아니다. 하지만 20여년간 절에 법회나 행사가 있는 날이면 새벽같이 사찰에 나와 봉사한다. 이 보살은 지병인 허리디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찬 공기 쐬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법회가 있는 날이면 가장 먼저 법당에 들어가 향을 피우고 초를 밝힌 뒤 청소부터 말끔히 한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공양간에 들어가 그날 행사에 필요한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친다. 그래서 사찰에 나온 지 얼마 안되는 초보신도들은 이 보살을 공양주 보살로 착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법회나 행사 있는 날이면 아침 일찍 사찰에 올라가 정성스럽게 준비 한다음 신도들을 맞이해야 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도들이 조금이라도 편한 분위기에서 기도정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기 때문이지요. 걱정과 근심거리를 가득 달고온 신도들이 기도 회향을 잘 하고 비빔밥 한 그릇이라도 맛있게 먹고 가는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습니다."

법회준비, 공양간 일 가장 먼저 준비

'사랑의 라면 보내기' 등 봉사에도 앞장


◇사찰 행사가 있는 날이면 아침마다 가장 먼저 법당에 나와 초와 향을 밝히는 이철은 보살.

이 보살이 느끼는 기쁨은 아마도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조그만 힘이 됐다는 보람 때문이다. 그 보시행의 참 맛을 알아서일까. 이 보살의 봉사는 사찰 내에서만 머물지 않는다. 도림사 인근의 을로초등학교 결식아동돕기와 불우가정에게 보내는 '사랑의 라면보내기 운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 행사 때 남은 음식은 따로 봉지에 싸두었다가 주지스님과 함께 동네 노인정이나 독거노인들에게 나눠준다. 이외에도 이 보살은 한달에 한 번 있는 군법당 위문법회에도 빠지지 않는다.

"사찰에 나오면 남이 꺼리는 일을 하고, 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을 저는 수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드렛일을 하는 것도 기도정진의 연장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 보살이 도림사에서 스님들과 신도들에게 한껏 사랑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다.

김주일기자



추천의 말

무연스님 도림사 주지

말보다 실천이 앞서는 분

이철은 보살님은 항상 말보다 실천이 앞서는 분입니다. 묵묵히 사찰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궂은 일은 도맡아 하는 등 봉사행 실천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이 불자의 기본자세입니다만 살다보면 이를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보살은 우리절의 모범 신도입니다.

『국내 명상 최면의 최고 권위자 법운선생 특별지도』


원장 법운

- 現 '삼경그룹' 고문
- (주)하조건설 고문으로 재직
- (주)오조코스메틱 대표이사


지도교사 박봉순

※ 저 서 ※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었다.'

◈ 「명상 최면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의100% 활용에 도전한다.
〈명상 최면 지도사〉가 되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 명상최면으로 하는 제령 천도-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나 빙의령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 전생퇴행 명상최면 - 무의식속에 기억 되어져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 하는 기법
※ 원격제령 명상최면 - 제 3자가 명상최면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하는 기법. 명상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 수 있음.

[특전] 동방 명상 전생연구학회에서 명상 최면 지도사 자격증 발급

- 전 문 반 : 일주일 과정(참가비 150만원)
- 평생연구반 : 일주일 과정이 끝난후 정기적으로 보충교육실시 (참가비 300만원)
- 적용분야 : 일반적인 최면수업외 태아령 조상령 빙의령 축생령 구병시식 천도 및 제령
- 적용대상 : 스님, 법사, 상담가, 기공수련가(수업을 끝마치신 많은 분들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 특강일시 : 수시접수

2002년 12월11일 부산시 사하구에서 발생한
"조카딸 유괴 살해 암매장 사건"을
단 한번의 명상최면으로 해결하다.

◆ 수업에 참가하신 많은 스님들이 영가천도 및 제령부분에서 영가와 직접 대화가 이루어져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의 말씀들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 십 수년씩 기공 공부를 하신 분들이 수업을 끝내고 난 후 지금까지 채울 수 없었던 부분을 정리하고 완성 시킬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 뛰어난 영매자들이 수업을 참관하고 난 뒤 자신의 보호령과(몸주신) 기타의 영적존재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질 수 있었다는 감사의 말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동 방 명 상 전 생 연 구 소

◈ 문 의 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볼이 터질듯 미소를 머금고 있는 마애삼존불(국보 제84호).



◇가야산 줄기인 상왕산 기슭에 자리잡은 보원사터 당간지주(보물 제103호), 오층석탑(보물 제104호) 등이 지나간 시간을 이야기 하고 있다.

부처님 미소 볼 터질듯…

서산 마애삼존불의 本寺

폐사지를 찾아서 장지현의 잊혀진가람 탐험

보원사지



봄소식을 기다리다 못해 남하하기로 하였다. 꽃샘바람 속에서 3 · 1민족공동행사를 치른 후, "봄은 / 오는 것이 아니라/ 엄중한 시련 속에서도 짓고 있더라/ 겨울 새벽 수직으로 뻗은 배나무 가지가/ 언 땅 밑에서 길어 올린/ 빙어 눈 같은 알갱이 씨봄을/ 아스라이 하늘 끝까지 송신하고"라는 어느 시인이 보낸 봄 메시지를 읽고 문득 파릇한 풀 내음을 예감하였다.

무청처럼 싱싱한 봄기운을 밀어 올리는 서해 물결. 그 시린 물빛에 마음을 씻으며 서산 땅 세심동(洗心洞)에 이르자 개심사(開心寺) 물소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가란다. 열기 무섭게 스스로 닫히는 문. 새싹들은 언 땅 속에서도 '빙어 눈 같은 알갱이 씨 봄을 하늘 끝까지 송신하는' 데, 탐진에 짓눌린 세속 도시의 주민은 개심사 문턱에 이르러서도 마음의 돌쩌귀를 뽑지 못한다. 어쩌랴 용현골 느릅나무들은 산비탈에 기대서 손사래를 치는데, 이 땅의 춘삼월은 막무가내로 가슴을 파고드는 것을….

보원사 들목의 미륵장승님은 언제나 그 때처럼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낭당 돌무지 위에 발목을 묻고 중생의 보관을 머리에 인 채 56억 8천만 년을 하냥 아슴한 미소를 흘려보내고 있었다. 탑으로 쌓아올린 돌무덤은 이 들목을 지나친 나그네들의 발길일 것이고, 가슴에 얌전히 모은 두 손은 미륵불에게 올린 필부필녀의 정성을 영원으로 접수했다는 수인(手印)일 것이다. 설레는 마음 여기서 지체할 수 없다. 용현골짜기에서는 날마다 무슨 좋은 일 있는지 계곡의 깊이를 더할수록 만나는 것 모두가 웃음을 머금고 있다. 얼음장에 박힌 물돌들도 계곡에 박힌 산돌들도 웃거나 웃음을 참고 있다. 잿빛하늘을 날아가는 산비둘기도 무언가를 숨긴 듯하다.

용현골 미소의 진원지는 개울 건너편 계단 위의 인암(印岩)이다. 볼이 터질 듯 미소를 머금고 있는 존불' 이라는 전각의 당호는 차라리 어색하다. 국보 제84호라는 대접도 쑥스럽기만 하다. 그저 그렇게 이승을 지나치다가 우연히 이 계곡에 들려 심심풀이로 하늘 이야기, 땅 이야기를 주고받는 하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다.



◇아무런 장식없이 수풀 속에 장중하게 자리잡은 석조(보물 제402호).

통일신라시대 화엄 10찰중 하나

당간지주·백제양식 5층탑 등 성보 수두룩

전국최대 석조(石槽) 사찰규모 웅변

세분의 마애부처님! 전각의 창문이 서산에 빗긴 햇살을 가리지 않았다면 바위에 기대선 채 함박웃음을 머금고 있는 세 분 부처님들의 미소는 계곡 밖에서 길을 일러주던 영낙없는 아낙들의 그것일 것이다. 애칭대로 '백제의 미소' 이다. 끼어들고 싶은 심정을 주체할 수 없는 데도 망설이는 것은 영혼의 안팎에 너무 걸친 것이 많기 때문이다. '서산 마애삼존불' 이라는 전각의 당호는 차라리 어색하다. 국보 제84호라는 대접도 쑥스럽기만 하다. 그저 그렇게 이승을 지나치다가 우연히 이 계곡에 들려 심심풀이로 하늘 이야기, 땅 이야기를 주고받는 하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다.

가야산 줄기인 상왕산(象王山) 기슭 서남쪽 운산면 용현리에 자리한 보원사터(普願寺, 사적 316호). 깊은 산중에 이렇게 한갓진 절터가 온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 천년의 시공을 초월한 미소인 마애삼존불의 본사(本寺)로서, 통일신라 화엄10찰의 하나로서 결코 손색이 없는 것이다. 계곡 입구의 미륵장승이나, 마애삼존불의 미소를 닮은 질박한 충청인의 인심이 천년의 절터를 지켜 온 것이다.

보원사의 창건 연대와 폐사 내력에 관해서는 밝혀진 문헌이 없어 제대로 알기 어렵다. 한때 고란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고 마애삼존불의 본사이며, 출토된 유물들의 면면으로 보아 백제 시대에 창건되어 통일신라와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법등을 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69년 보원사지 금당지 남쪽 건물터에서는 6세기 중엽 백제시대의 금동불입상이 출토되었고, 국립중앙박물관에는 1918년 금당지에서 가져간 거구의 통일신라시대의 철불 두 분이 소장되어 있다.

보원사지에서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4.2m의 늘씬한 자태를 자랑하는 당간지주이다. 길옆에 바짝 붙어 여기가 간단치 않은 사지임을 일러주는 당간지주는 당간을 받치는 간대(杆臺)까지 남아있어 보물 제103호로 지정되어 있다. 다만 최근에 복원한 받침돌의 색깔과 당간지주의 색조가 대비되어 눈에 거슬린다. 갈대 우거진 징검다리를 건너면 멀리에서도 그 웅장함이 눈에 띄는 오층탑(보물 제 104호)이 다가선다. 5층의 지붕돌이 상승감을 이루며 치솟는데 피뢰침 같은 찰주까지 남아 있어 이 또한 원형에 가까움을 짐작케 한다. 백제의 양식을 이어받은 고려 초기의 석탑으로 하층 기단의 면석에 열 두마리의 사자상을 새긴 것이 이채롭다. 사자상은 보통 부도의 기단석에 새기는 것인데 드물게 석탑에 사자상을 돌린 것이다. 그런데 어느 몹쓸 이교도의 짓인지 사자상 일부에 붉은 페인트가 칠해져 있다. 여기까지 찾아와 훼불이라니, 도대체 무슨 인과를 보려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보원사의 주인은 역시 절 터 맨 뒤쪽 산 밑에 자리 잡은 법인국사의 부도인 보승탑(보물 제105호)과 부도비인 보승탑비(보물 제106호)이다. 산 밑에 축대를 쌓아 말끔하게 정리되었는데 양옆의 허름한 함석지붕들이 폐사지의 쓸쓸함을 자아내게 한다. 부도의 주인공 법인국사(900~975)는 나말여초의 고승으로 고려 광종의 국사를 지낸 탄문(坦文) 스님이다. 스님은 화엄종의 승려로 정진하던 중 949년 광종의 즉위와 더불어 왕사가 되었으며, 이때 광종의 즉위를 기념하여 철조장륙상을 조성하여 보원사에 봉안하였는데 이것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보원사터 장륙철불좌상이다. 975년 임종을 앞 둔 탄문스님이 보원사로 떠나자 광종은 태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개경의 교외까지 나와 그를 전송하였다고 한다. 스님은 그해 3월 보원사에서 열반하였으며, 그의 영향력을 기려 978년 보승탑과 부도비가 건립됐다.

보원사지에서 가장 주목되는 성보 중의 하나는 절 터 오른쪽 수풀 속에 놓여진 석조(보물 제102호)이다. 엄청나게 큰 돌을 한 땀 한 땀 정으로 쪼아 길이 3.5m 깊이 90㎝, 폭 1.8m의 거대한 석조를 만든 것이다. 아무런 장식이 없어 오히려 장중한 맛을 주고, 군데군데 금이 가 세월의 덧없음을 일깨워 준다. 보원사지 석조는 전국 제일의 것으로 전성기의 보원사 승려가 1천여 명이 넘는 거찰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3만평이 넘는 절터에는 보리밭과 비닐하우스가 군데군데 숨어 있지만 사지로서 어색하거나 쓸쓸하지 않다. 아마도 그것은 수십 그루의 감나무 고목이 절터 전체를 감싸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시인 ·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사진=고영배 기자
다음은 당진 안국사지 편

보원사지 가는길

보원사지는 서해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서산, 당진IC에서 내려 운산 고풍저수지와 터널을 거쳐 용현계곡으로 2㎞정도 올라가면 된다. 서산 → 운산→마애삼존불→보원사터를 다니는 버스도 있다. 철도로는 삽교 역에서 내려 수덕사 입구를 지나쳐 서산 목장 길을 달리다가 운산사거리에서 역시 고풍저수지와 터널을 거쳐 용현계곡으로 오르면 된다.

세계최고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이루어 진다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잡기와 악귀를 물리치는 금강염주

불자님의 고민 금강염주가 해결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다.
소원 2가지가 꼭 이루워진다고 전래되는 금강염주는 北韓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는 세계 하나 밖에 없는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서산대사의 고향이며 원효대사께서 해골물을 드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이다.
금강염주는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사업이 풀리지 않는 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 승진을 기다리고 계신 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 연분을 찾고 계신 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투병중인 분. 큰 고민거리를 갖고 계신분은 신비의 금강염주가 해결사 역할을 한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다. 금강염주는 수천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며 불에 넣어도 타거나 녹지 않고 24시간 생육광선과 강력한 氣가 발산되는 세계유일의 염주다. 부처님 성구인 염주를 판매하는 사람이 정중히 취급하지 않거나 사용하는 사람이 함부로 넘거나 막 사용하면 그 염주는 영험이 다 떠나 **되는 일이 없으며 성구가 아닌 악세사리 구슬에 불과하다.**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받고 소원이 성취된다. 금강염주는 12단주와 108주염주 1set이며 신용카드도 분할구입되며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한다.

농협 : 743-02-563237 정해철 금액 : 195,000원

금강염주 점안식 방법

금강염주를 받으면 사용하실 분이 꼭 개봉해야 하며 사찰에서는 부처님 앞에 놓고 가정에서는 상위에 올려놓은 다음 2가지 소원만 꼭 기원하며 3배 하신 후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높은곳에 올려놓고 3일 후 부터 사용하시면 된다. 점안 3일간 첫째날은 집안에 있는 잡귀들을 물리치는 날이며 둘째날은 집안에 氣를 넣어 가족을 건강하게 하고 마지막 셋째날은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드리는 날이다. 점안식 3일간은 어느 누구도 염주를 만지면 영험이 없어지므로 높은 곳에 개봉하여 올려 놓으면 된다.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어디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406호

왜 치아로 고생하세요
스님 7일만 닦으시면 고생 않하세요.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잘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스님은 치아로 인한 고생은 없으세요. 미국구강학회에서 만든 브라이트를 사용해본 스님들이 고맙다고 말씀하세요. 일반치약과 같이 사용하고 3일만 사용하면 입 냄새는 없어지고 7일만 사용하면 치통, 충치,찬음식 뜨거운 음식을 드실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 미백 효과도 있어요.
1set면 1년이상 사용하는데 가격은 60,000원입니다.
스님 저도 남는것이 없어요.
※농협 : 360-12-046446 최 능 우

신비의 은행석편지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온 은행석입니다. 저는 죽어가는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약 20분이면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 25알을 넣으면 붕어는 10분내로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또한 기침을 심하게 하는분은 베게속에 은행석 25알을 넣고 2시간 정도면 기침이 뚝 멈춤니다. 이외도 죽어가는 것은 다 살릴수 있어요. 스님 베게속에 은행석 25알만 넣고 주무시면 스님은 평생 뇌졸증, 중풍, 치매, 고혈압 등이 걸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없어지고 하얀얼굴로 미백효과가 뛰어나요. 스님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거와 같이 숙면을 해 머리가 맑고 상쾌해요. 제 고향, 북한에서는 고위층 인사들이 저를 잘 믿고 베게속에 넣고 주무시는데 한국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스님만은 저를 믿고 베게속에 넣으시면 스님은 평생 뇌에 관한 병은 없으시고 15년은더 건강하게 사세요. 저는 북한보건원에서 검증을 다 받고 한국에 왔어요. 스님 건강하시고 포교 많이 하세요. 스님 35,000원입니다.
스님 제 전화는 (02)722-1850 입니다.

★농협:1143-12-049474 송명화

"'쓸데 없음' 도리 알아야 잘 쓰죠"

산문밖의 獨

전각가 심무용 씨


◇전각이 표현하는 오묘함과 광활함을 느껴보라고 말하는 심무용 씨.

"'쓸데 없음'은 텅 빈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흙을 개어 그릇을 만들 때 오목히 빈 데가 있어야만 그릇의 구실을 하듯이 말예요. 대부분 '쓸데 없다' 는 말을 들으면 매우 싫어하지요. 그런데 '쓸데 없기'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텅 비워 그 빈 마음에 모든 것이 자유롭게 노닐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야죠."

무용(無用) 심 군(59 · 沈 君)씨는 자신의 호이자 법명인 '무용(無用)'에 빗대 '무용론(無用論)'을 펼쳤다. 심무용 씨는 새 봄을 맞아 지난 2월 부산 초량동 프랑스문화원에서 전각전시회를 열어 호평을 받았다. 다양한 작품중 특히 64개 돌에 새긴 <반야심경>은 각기 다른 모양과 글씨체가 독특한 멋을 주어 관심을 끌었다.

심무용씨는 1959년 불화로 예술인생을 시작, 44년 동안 서예, 미술, 전각 등 다방면에서 예술가의 삶을 살아왔다. 1945년 중국 간도에서 태어난 그는 같은 해 5월 아버지를 잃었다. 일본에서 미술을 전공했던 아버지에게서 예술적 재능을 물려받았는지 그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림에 뛰어난 소질을 보였다. 불심이 깊었던 그의 모친은 수소문 끝에 당시 진주 의곡사 주지로 있던 석정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에게 14살의 어린 무용을 맡겼다.

그는 출가자 '무용'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처음에는 스승을 따라 불화를 그렸다. 그러다가 석정스님이 전각가로 이름을 날렸던 운여 김광업 선생에게 보내 전각을 배우게 했다. 조그마한 돌표면에서지만 그는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전각에 매료됐다. 그림처럼 공간적인 배치나 창조를 필요로 하는 전각이 배울수록 재미있었던 것이다.

"어른 스님들이 전각을 못하게 해서 산에 가서 몰래 연습했는데 내가 좋으니까 열심히 했지요. 한번 시작하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날 새는 게 예사였어요."

한 달에 두번, 운여선생이 있는 부산까지 찾아가는 그의 바랑에는 스승의 점검을 받을 전각들이 가득 들어있었다. 운여 선생은 기독교 장로였지만 뛰어난 재주를 가진 승려 제자인 그를 유독 아꼈다.

44년 동안 서예 · 미술 · 전각 활동
반야심경 · 금강경 · 선시 등 전각으로
'無用體'로 일가 이뤄…작품집도 출간

"멋 부리지 말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기본에 충실하고 정석을 따르다 보면 멋은 저절로 우러나는 것임을 일깨워 주셨지요."

그는 점점 전각의 세계에 매료되어 갔지만 전각을 잔재주로 여겼던 어른스님들의 꾸중은 날로 심해졌다. 해인사, 통도사 승가대학을 거치며 경전 공부에 두각을 나타내자 그를 강사로 키우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는 강사 소임을 피하기 위해 도망을 쳤고, 그때 반야심경 전문을 돌에 새겼다. 이후 더욱 작품활동에 몰두해 선서화와 전각으로 69년부터 국내는 물론 미국 등지에서 전시회를 열며 예술을 통한 부처님가르침 전파에 나섰다.

그는 전각에 더욱 전념하기 위해 속세로 돌아왔다. 환속을 만류하는 어른 스님을 하루종일 설득한 끝에 선택한 그의 전각 인생은 '무용체(無用體)'로 불리는 그만의 독특한 전각 세계로 승화되며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전각은 단순히 새기는 예술이 아니다. 서예는 물론, 미술, 조각, 시(詩) 등이 어우러져야 하는 종합예술이다. 좁은 인면(印面)에 한정된 문자를 표현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중도에 포기한 이들이 많은 전각에서 일가(一家)를 이룬 데는 '쓸데 없음'의 경지를 알아야 한다는 무용론(無用論)이 한 몫을 했다.

"새긴다는 것은 또 다른 여백을 만드는 일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것 뿐 아니라 비어있는 곳에서 아름다움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여백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우리 사회는 한층 밝고 좋아질 거예요"

새기되 여백을 두고, 거꾸로 새기되 찍으면 바른 모양을 드러내는 그의 전각에는 전도몽상(顚倒夢想)의 삶을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이 느껴진다. 그는 나무, 돌, 도자기, 상아, 호박꼭지, 동(銅), 은(銀) 등 소재를 가리지 않고 새겼고 염색한 타조알에 반야심경을 새겨 넣는 독특한 시도로 호응을 얻었다. <무용인존(無用印存)> <독화실 인존(讀畵室 印存)> 등 2권의 작품집도 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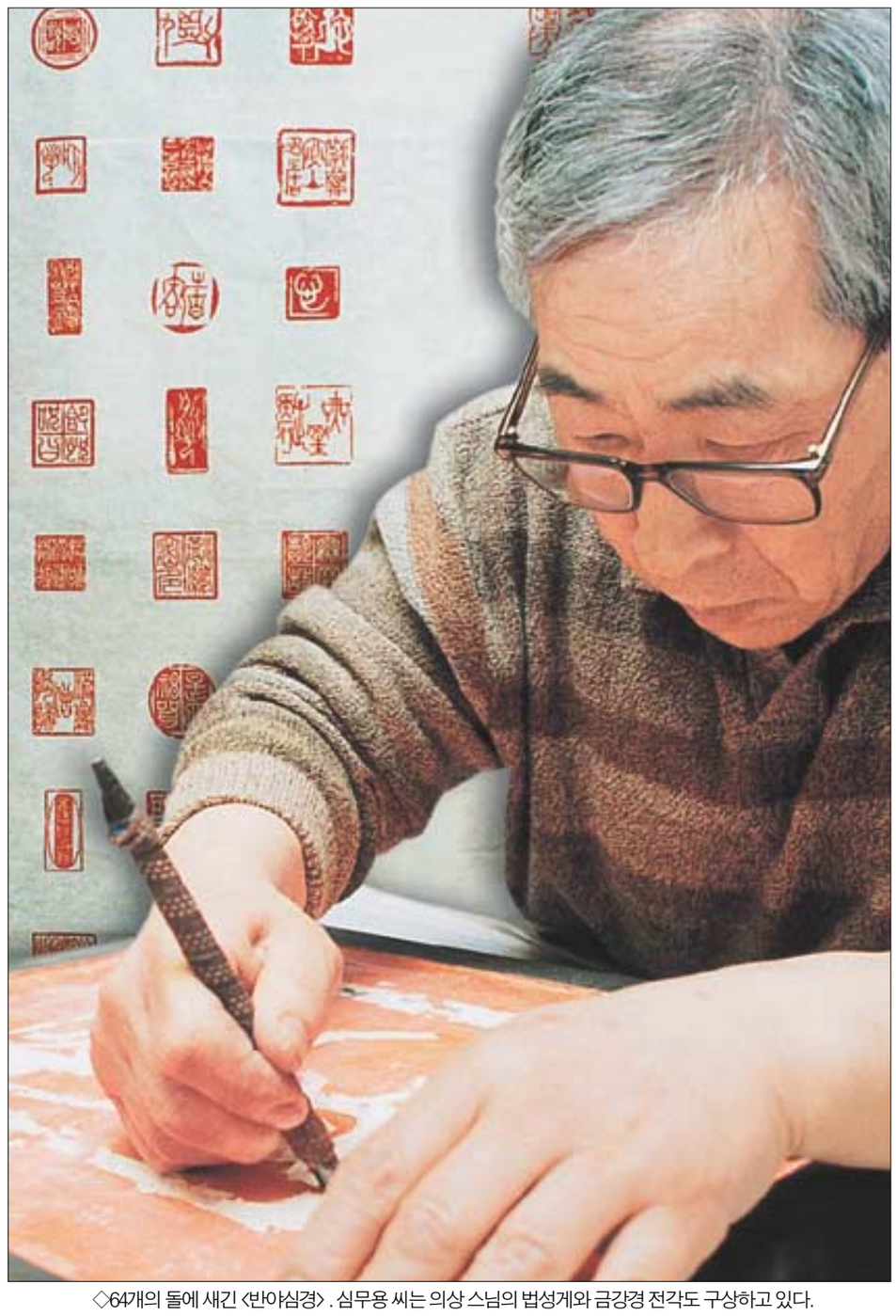
심무용 씨는 1998년 불의의 사고를 당해 혼수상태에 빠졌다. 중환자실에 50여일 째 누워있다가 의식이 돌아왔지만 그는 부인과 아들조차 알아보지 못했다. 언어 장애로 의사소통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초인적인 인내로 병마와 싸웠다. 병상에서 틈틈히 참선을 했다. 부인은 회복에 도움을 줄 요량으로 그의 분신과도 같은 전각 작품집과 작업 중이던 부채를 침대에 갖다놨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부채에 그려진 그림의 낙관자리에 도장을 그려놓았던 것이다.

"그때부터 전각을 다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정말 전각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는 전각을 다시 시작하면서 빠르게 회복됐다. 석정스님은 사고 이후 그가 한 전각을 한번 보시더니 "이제 걱정할 것 없다. 살 수 있겠다"고 했을 정도로 전각은 그의 생명이요, 분신(分身)이었다.

표현할 것은 많은데 언어가 따라주지 않듯, 그가 인면(印面)에 새겨 넣은 선(禪)적 세계와 깨달음의 경지는 인주로 찍어낸 한정된 공간을 초월해 출렁인다. 획이 부드럽고도 날렵해 마치 그림 같은 그의 전각에는 사슴도 뛰어 놀고, 구름이 흘러가고 바람도 불어온다. 새기는 면이 좁을수록 그 속에 압축되어 담기는 세계는 광활하다.

그는 요즘 의상조사의 법성게와 금강경 전각을 구상중이다. 상설전시장을 마련해 일반인들에게 전각에 새겨 넣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선시(禪詩), 다시(茶詩) 등의 멋과 여유를 전하고 싶은 꿈도 내비친다.

부산=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사진= 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64개의 돌에 새긴 <반야심경> . 심무용 씨는 의상 스님의 법성게와 금강경 전각도 구상하고 있다.

발명특허원 15826호

어머니 청국장 발효기 (菩土)

– 진이 잘 나지 않으면 배상하여 드립니다.



◇ 가 격 : 77,000원
(종균, 볏짚, 약콩 1회용 포함)
◇ 모델명 : KT-870
◇ 발효용량 : 276 × 305 × 322
◇ 사용전압: 220v
◇ 정격소비전력 : 73w
◇ 무 게 : 3.7kg

제품의 특징
◇ 생으로 먹을때는 낫도, 찌개로 먹을때는 청국장으로 만들 수 있다.
◇ 냄새를 안나게 할 수도, 진하게 할 수도 있다.
◇ 무염 발효식으로 염도 조절이 가능.
◇ 질 좋은 국산콩을 선택하여 청국장을 만들 수 있다.
◇ 요구르트는 너무나 잘 된다.

우리콩운동본부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이현리 25-1 신청 : Tel.(033)481-4894

펀치볼 서리태(속청) 할인판매!
◇ 무농약 고랭지 콩이라 맛이 좋습니다.
◇ 밥에 검은 물이 들지 않습니다.
◇ 항암 효과로 알려진 「아이소 플라본」이 평야지 콩보다 무척 많이 들었 있습니다.
◇ 가격 12,000원(Kg당) 할인 → 9,000원

지금 펀치볼에는 새역사가 펼쳐집니다.
– 6개의 무농약 콩 작목반, 120만평의 콩단지 조성

● 온 라 인 : 농협 123-17-000466 정 락 훈

릴레이 수행일기 <上>



황경환

(주)진양유조선 대표이사

내 길지 않은 삶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부침을 거듭해 온 것은 불교에 대한 관심이었다. 나는 불교에 대한 관심으로 일관하면서 잊을 수 없는 다섯 분과의 만남이 있었다. 그들은 내 삶의 스승이었으며 선지식이었다.

그 첫번째 분이 76년 세상을 하직한 아버님이시고, 두번째 분이 세수 91세로 통도사 극락암에서 열반에 드신 경봉 큰스님, 세번째 분이 96년 세상을 떠나신 한국불교연구원의 이기영 박사님, 네번째 분이 안양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이시다. 다섯번째 분이 인공지능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자로 고타마 명상에 심취한 김사철 박사님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아버님으로부터 불교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아버님의 불교에 대한 지식은 신통과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으며 당신께서는 항상 관세음보살을 지극히 염송하시곤 했다. 어느 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작은 배를 가지고 해상 운송업을 하실 때의 일인데 바다에서 일어난 기적적인 일을 직접 경험하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관세음 보살님의 확실한 가피력이었다는 것이었다.

경봉 스님과의 인연은 82년 7월 스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까지 약 12년간 지속되었다. 큰스님 생존시 매월 첫 일요일은 법회가 열렸는데, 나는 10년 넘게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이 참석할 정도로 스님의 설법에 매료되었다. 항상 자주 반복하시는 말씀은 "주인공을 찾아라."였다. 나 그네가 길을 가다 해가 저물면 남의 집에 하루 유숙하고 가도 잘 쉬었다 간다고 주인을 찾는데, 평생을 묵고 쉬어가도 주인 한번 안 찾는다는 게 말이 되나 하시면서 대중들에게 나무라시는 투로 자주 이 말씀을 하시곤 했다. 그리고 하루가 24시간인데 9시간 일하고 8시간 잠자고 4시간을 놀아도 3시간이 남는데, 이 3시간 중 단 30분, 아니 단 10분이라도 나를 끌고 다니는 이 주인공을 찾아보라는 그 말씀. 나 역시 스님이 떠나시고 난 한참 후에야 그 의미에 한없는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 그 자비롭고 포근했던 만남도 가실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음을 예측이나 하셨던지 열반에 드시기 며칠 전 스님을 뵈었더니 "부모미생전에 본래 면목을 찾아라"는 화두를 던져주신 것이 스님과의 마지막 만남이 되었다.

이기영 박사님은 내가 75년경 부산 동명불원 낙성식에 갔다가 처음 뵈었다. 당시 박사님은 동명불원의 아름다운 건축 양식을 찬탄하면서 옆의 기둥 4개와 앞의 기둥 8개가 부처님 교설의 핵심인 사제 팔정도를 의미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 날 따라 그 의미가 매우 새롭게 들렸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교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77년 통도사 화엄전에서 한국불교연구원 주최, 하계 수련회에 처음 참석하여 이기영 박사님께 인사를 드린 것이 지금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와 연구위원이라는 직함을 가지게 된 계기였다. 나의 불명 '무진'도 그 때 수련회 회향하는 날 통도사 벽안 스님이 내려주셨다. (계속)

삶의 여정 속 잊을수 없는 다섯 스승

불교에 대한 관심 일관토록 이끌어 줘

13시간 주력, '자성 밝히는 힘'

주제가 있는 수행현장

정심사의 '능엄 주력'

1일 경기도 하남시 정심사(주지 원영 스님)에서는 오후 2시부터 철야 능엄기도 법회가 열렸다. 매달 첫째 토요일은 능엄주력으로 철야정진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대자비로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 대희대사 베푸시어 제도 하시고…"

능엄기도는 108참회로부터 시작됐다. '예불대참회문'은 시방의 여러 부처님께 절을 올리며 업장을 참회하고 그 예배공덕을 모두 일체 중생에 회향하겠다는 기도문이다. 108배를 끝내자 30여 수행자들은 일제히 앉아 한목소리로 '대불정 능엄신주(大佛頂楞嚴神呪)'라고 부르면서 능엄주를 염송하기 시작한다.

"스타타가 토스니삼 시타타파트람 아파라지탐 프라퉁기람 다라니…"

불자들이 빠르게 '능엄주'를 염송하기 시작했다. 도량은 '우~웅'하며 진언소리로 가득했다. 불자들은 마치 썰물과 밀물이 오가듯 능숙하고도 일사불란하게 능엄주를 읽어 내려갔다. 초보자들은 따라 하기 힘든 것은 고사하고 앉은 다리가 저려오기 시작한다. 1편 독송에 걸리는 시간은 7분 정도. 모두 108편을 독송해야 기도가 끝이 난다. 약 13시간이 소요되는 쉽지 않은 철야정진이다 보니 2시간 간격으로 20분씩 휴식한다. 철야정진은 3시경에 끝나 새벽예불로 마무리되었다.

'부처님 정수리에서 나온 진언'이라고 하는 '능엄주'. 이 진언을 마음과 입으로 외우면 온갖 죄업이 소멸되고 청정한 본래의 자기로 돌아간다고 해서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일과 중에도 염송하는 진언이다. 한국 불교에서는 <천수경>의 신묘장구대다라니와 함께 가장 많이 지송되는 다라니 가운데 하나다.

성자현행(60, 서울 여의도동) 정심사신도회장은 "능엄기도는 업장을 소멸하고 온갖 장애와 잡념을 없애주어 늘 편안한 마음으로 살게 한다"며 "진언의 위신력으로 자신감 있는 삶과 수행을 병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철스님문도회 사찰에서는 반드시 수행하고 있는 능엄기도는 '법신비로자나 진언'(옴 아비라 훔캄 스바하)을 포함한 '아비라 기도'로도 잘 알려져 있다. 능엄기도가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라면 아비라기도는 1년에 몇차례 결제를 앞두고 4박5일씩 기간을 정해 실시한다.

예불대참회, 법신진언, 능엄주력을 함께 하는 일명 '아비라기도'는 성철 스님이 한국전쟁이 끝난 후 고통에 빠진 신도들에게 "우리가 받는 모든 고통과 악업은 과거생으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지어온 업장의 과보"라며 일러준 기도다. '예불대참회'와 능엄주를 외우게 하며, 소원을 비는 불자들에게는 무릎을 꿇은채 합장하고 법신진언을 외우도록 일러주면서 비롯됐다. 그때부터 성철 스님은 열반할 때까지 40여 년을 일관되게 이 법을 지켜왔는데, 이는 중국 당대(唐代)의 총림 수행법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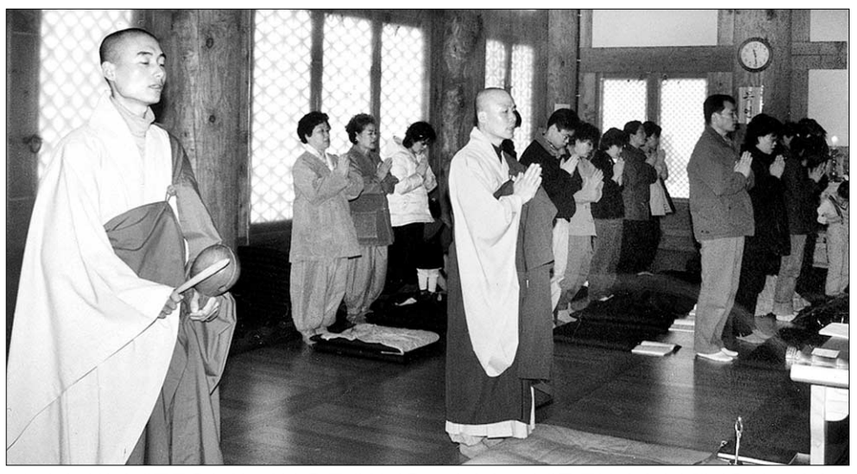
20여년전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을 친견한 뒤부터 능엄주력을 해온 신도회 기도부장 도림윤(58, 서울 성북동) 보살은 "생활 속에서 능엄주를 하다보면 어렵거나 힘든 장애를 쉽게 극복하고 평상심으로 살아가게 됨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성철 스님은 타력(他力)에 의한 기원이나 스님들에게 의뢰하는 기도와 불공을 배격하고, "자기가 지은 악업은 자신의 노력으로 참회하고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이 맑아질 때 과보(果報)가 바뀌어지며 행복이 이루어진다"며 철저한 자기 정진을 강조했다. 또한 어떤 요행이나 사행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업장을 더하는 결과라며 남과 내가 둘이 아닌 화엄법계 보현행원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부처님의 바른 법이라고 일러주셨다. 이런 의미에서 능엄주력은 참선 수행자들로부터도 타력과 자력을 겸한 수행방편으로 애송되고 있는 것이다. (031)791-77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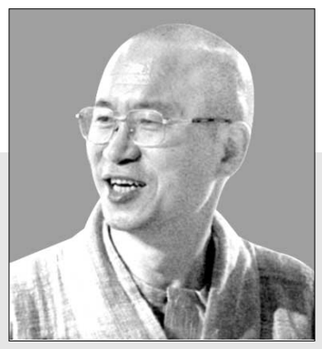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진언통해 자신 있는 삶, 수행 병행

지성으로 외우면 업장소멸, 평상심 되찾아"



◇하남 정심사 대중들은 능엄주 염송을 통해 업장을 소멸시키고 장애를 극복하면서 수행력을 얻고 있다.



정심사 주지 **원영** 스님

능엄다라니 지송하면

청정 근본으로 돌아가

"능엄신주 기도는 마음을 곧게 모으고 수행의 장애를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정심사 주지 원영 스님은 능엄주의 뜻이 '용맹스럽게 정진하여 선정을 닦는 데 힘을 돕는 주문'인 것처럼 마음의 온갖 장애를 이겨낼 수 있고 수행의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선종 사찰에서는 전통적인 수행법으로 능엄주 독송을 해왔다고 말했다.

원영 스님은 능엄경의 정수를 담은 능엄신주 기도는 아비라기도와 함께 종합수행도량인 총림의 중요한 기도법이었다고 밝혔다. "427구로 이루어진 능엄다라니를 일념으로 지송하면 모든 마장을 물리치고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며 모든 소원을 이루고 마침내 최고의 깨달음에 이른다고 능엄경은 설하고 있습니다. 이 능엄주를 독송하면 온갖 죄업이 남김없이 사라져 청정한 본래 근본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원영 스님은 성철 큰스님께서 미망에 허덕이는 우리 불자들에게 이 능엄주를 매일의 일과로써 수지독송하도록 일러주셨다며, 큰스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늘 능엄주를 진심으로 독송하여 몸과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지켜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수행 캘린더

■수능엄경 강좌=동국역경원은 매주 목요일 오후 5시30분부터 2시간씩 동국대 명진관 204호에서 역경원 현성수 상임 증의위원의 강의로 수능엄경 강좌를 개설한다. 교재는 감산 스님의 <수능엄경소>. 무료. (02)2260-3893

■좌선 및 금강경 독송=김해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은 매달 셋째주 월 · 화 · 수요일 오후 5~7시 좌선 정진 및 '뜻풀이 금강경 독송'을 한다. (055)342-66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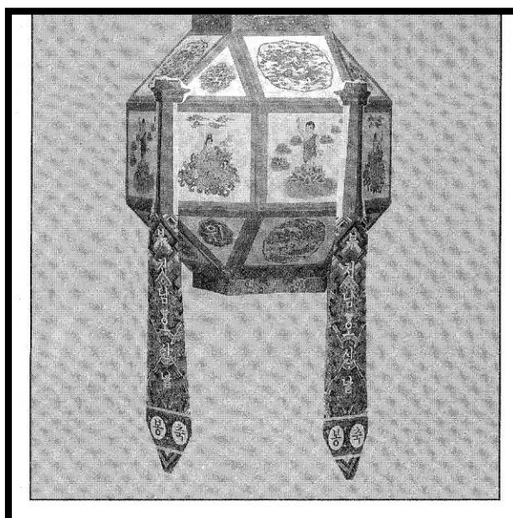
■선도회 참선법회=선도회는 7개 지부에서 정기 참선법회를 연다. 서울 목동법회(첫째 셋째 일 오전 7시30분, 02-658-6090), 정릉법회(매주 일 오후 2시, 02-913-3746), 신촌법회(매주 화 오전 7시, 02-705-8453), 인천법회(매주 월 오후 7시, 011-741-0132), 대전법회(매주 목 오후 7시 30분, 042-868-5232), 광주법회(매주 토 오후 3시, 011-619-1346), 성남법회(매주 수 오후 3시 30분, 매주 일 오전 7시, 031-711-8112)

■신앙체험 수련회=단양 구인사는 3월 22~23일 제1회 연리회 및 학생회 지도교사연합회 신앙체험 수련회를 연다. (043)423-7100

■고엔카 위빠사나 10일 명상='한국 위빠사나 10일 코스 준비위원회(http://cafe.daum.net/dhammakorea)'는 4월16일 오후 4시~ 27일 오전 8시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고엔카 위빠사나 10일 명상 코스'를 연다. 대만의 조지 샤오(George Hsiao) 법사가 진행한다. 묵언 정진이 기본이며 매일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개인 면담시간, 오후 9시부터 30분간 질문 시간. (011)9159-8203

■선기공 지도자 과정=세계선무도협회(www.golgulsa.com)는 동국대 사회교육원 선기공 지도자 과정 원생을 모집한다. 2년 수학후 수료증과 세계선무도협회 지도자 자격증이 수여된다. 선무도협회는 20개 국내지원 및 4개 해외지원, 8개 대학 교양과목의 수강생도 모집한다. (054)744-1689

■위빠사나 수행=동산 불교청년회는 3월20일부터 6월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정원 호두마을 지도법사를 초청, 위빠사나 수행을 한다. (02)732-1206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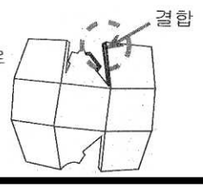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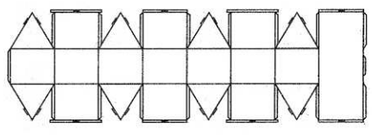
▣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한「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 (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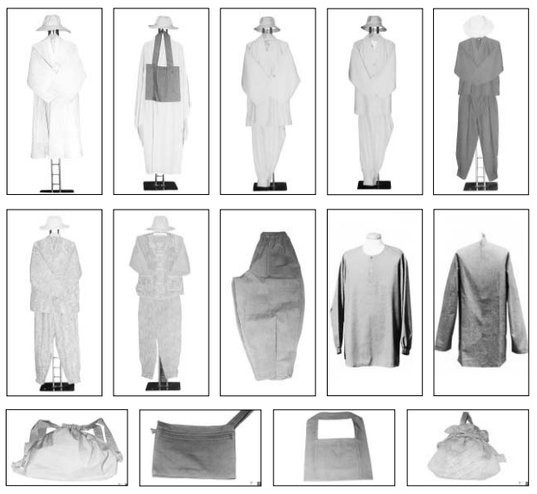
현우기획

전화 : 02)467-1513 핸드폰 : (016)552-9360

봉은승복사 할인매장

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30년을 한결같이 부처님께 시봉드는 마음가짐으로 종사해 온 저희 봉은승복사가 올해로 개점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개점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의 어려운 제방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전제품을 할인(30%)된 가격으로 모시고자 하오니 직접 내방하시어 타사의 제품과 비교해 보시고 좋은 고견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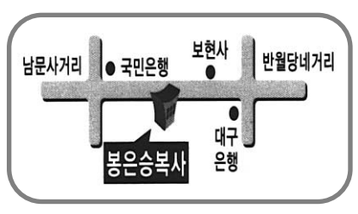


가격안내

❖ 모직혼방
1. 두 루 막 ~~130,000원~~ (110,000원)
2. 장 삼 ~~180,000원~~ (150,000원)
3. 동방바지 ~~180,000원~~ (140,000원)
4. 적삼바지 ~~130,000원~~ (100,000원)
5. 개 량 복 [*할인금액*] (여)80,000원 (남)90,000원
6. 조 각 면(조끼, 바지) 50,000원
7. 반가사 50,000원
8. 대가사 80,000원

❖ 천연염색
1. 티셔츠 20,000원
2. 바 지 25,000원

봉은승복사
전 화 : 053)421-5451 / 053)424-5462
휴대폰 : 011-821-5451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72-18





"손짓 대화하며 하나임을 느낍니다"

바라밀현장

법음전파, 편견해소, 공감대형성 위해 정진

불교수화, 점역경전 보급등 장애인포교 앞장

원심회의 '수화포교'

"반드시 실력을 충분히 쌓은 후 수화를 써야 해요. 어설프게 사용하면 청각장애인들에게 큰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10일 서울 조계사 불교대학내 지하1층에 위치한 원심회(회장 덕신스님) 법당에서는 제 42기 수화 초급반 강의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수강생은 열명 남짓하지만, 덕신 스님(성남 장경사)은 장애인 현황과 그들에 대한 포교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수화교육시 유의사항을 자세히 일러주었다.

스님의 인사말이 끝나자 강사인 김동숙(37) 수화통역사의 손가락으로 숫자를 표시하는 지화(指話) 강의가 시작된다. 권정애(30) 보조강사와 함께 손가락을 굽혔다 폈다, 팔을 내밀었다 하면서 수강생과 함께 숫자 지화를 익힌다. 이어 한글의 자음과 모음에 대한 지화도 차근차근 가르친다. 처음엔 다소 헛갈리면서도 다들 즐거운 표정들이다.

원심회가 1988년 7월 수화 기초교육을 시작한 이래 배출한 수강생은 모두 831명. 대부분 수료와 동시에 후원자로서 회원이 되지만 직접 자원봉사를 하는 회원들은 50여명이다. 이밖에 청각 및 시각장애인 30여명은 매주 조계사에서 장애인법회를 보고 있다.



◇원심회 회원인 김동숙(오른쪽) · 권정애 회원이 수강생들에게 '숫자 지화'를 가르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등록된 장애인은 모두 100만여명. 하지만 비등록자를 포함한 UN의 집계로는 400만여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불자는 4%(90%정도는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다고 하니 장애인 포교의 열악함은 말할 나위도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15년간이나 장애인들과 함께 희로애락을 함께 한 불자모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반가운 일이다. 원심회는 그동안 꾸준히 활동을 펼쳐 으뜸가는 장애인 포교단체로 자리잡았지만 숱한 난관이 있었다. 재정난 등 물질적인 난관이 컸으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원심회 강경미(23) 간사는 가장 어려웠던 점이 비장애인들의 '그릇된 인식'이었다고 말한다.

"누구나 한 순간의 사고로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예비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장애인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물질보다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길 원하죠."

이런 나눔의 마음으로 원심회는 장애인에게 부처님의 법음을 전파하는 동시에 비장애인과 장애인간의 편견 해소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진해 왔다. 대외적인 수화통역봉사와 수화강사 파견과 함께 <불교수화 용어집>과 자막 비디오 테이프를 발간하고 점자부(부장 박규락)를 개설하면서 <아미타경>과 <법화경> <천수경> 등의 컴퓨터 점역 경전도 보급하고 있다. 수시로 사경법회, 참회법회, 수계법회, 수화공연 등도 열어 장애인들이 부처님의 제자로 거듭 나도록 돕고 있다.

원심회는 특히 지난해 한글대장경 316권 완역을 계기로 한글대장경 등 녹음불서 제작, 점자불서 출판을 위한 자원봉사 입력 작업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점자 경전을 점자도서관 등에 보급하고 청각,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불서 대여도 확대할 예정이다.

95년부터 점자불서 발간을 주도해 온 시각장애인 이연주(32, 마포점자도서관 실장) 회원은 "비상업용을 전제로 한 한글대장경 전산자료의 공유와 점자책 권당 60만원(입력비, 교정비, 점역비 등)이 소요되는 경비 마련이 관건이라"며 불자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02)720-4528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원심회 김장경 부회장

15년간 수화포교 저변확대

"모든 스님들이 목사님들처럼 수화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원심회가 창립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장애인 포교에 대한 관심은 나아진 게 없어 아쉬워요."

김장경(36, 컴퓨터 수리업) 부회장은 창립이후 장애인 포교에 대한 종단과 스님들의 무관심은 서운하지만, 그나마 원심회가 꾸준히 수화 교육생들을 배출하고 장애인법회를 개최하는 등 저변확대에는 기여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불교계의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은 장애인의 출가를 금지한 제도에서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진정한 대승불교라면 소외받는 이들을 외면해선 안되지요."

김 부회장은 불교계가 이런 정서를 개선하는 한편, 100만 장애인 가운데 4%에 불과 불자 포교의 현황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된다며 스님들의 관심을 거듭 호소했다.

心 마음비추기

배려·성찰은 또다른 행복의 길

엊그제 아침 TV 프로그램에 마흔이 넘었음에도 코미디언의 꿈을 버리지 못한 채 현실과 갈등하는 한 여성의 모습이 그 가족들과 함께 방영되었다. 유명해지고 안해지고는 나중 문제고 어엿한 코미디언이 되어 자기가 지닌 기량을 한번만이라도 세상에 내보일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텐데 가족들의 반대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함께 출연한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은 막무가내였다.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주부가 현실을 망각한 채 주제도 모르고 다른 일도 아닌 코미디언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방송이 끝날 때까지 그녀와 가족들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자기들 입장만을 고수했고 그녀는 급기야 원망의 눈물을 흘렸다. 방영도중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찬반의 견에는 그녀가 꿈을 포기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월등히 많았는데, 지켜보자니 안쓰러운 마음까지 생길 정도였다.

이럴 경우 과연 부처님은 어떤 입장을 취하셨을까?

코미디언이 되겠다는 당사자의 손을 들어주고 가족들의 협조를 구하셨을까, 아니면 가족들의 손을 들어주고 그녀의 마음을 돌리게 하셨을까, 그도 아니면 양쪽의 의견이 다 맞다고 하셨을까.

하지만 아무래도 부처님께서는 양쪽 모두를 향해 훈계를 하셨으리라 짐작된다.

먼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여인을 향해서는 "여인이여, 무릇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까닭은 욕망과 집착 때문이니라. 그대 하나의 욕망으로 스스로는 물론 많은 사람들까지도 혼란에 빠져있고 상처를 받고 있지 않느냐. 이 세상의 가장 큰 행복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에 있느니라. 세상에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서 즐거워하는 길도 있고 그 욕망을 포기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길도 있느니라." 하셨을 것같다.

또한 가족들을 향해서는 "여인의 가족들이여, 사랑은 희생을 필요로 하느니라. 그대들의 아내며 어머니인 저 여인은 자신의 뜻을 성취하지 못해 큰 괴로움에 빠져있지 않느냐. 저 여인을 향해 자기 욕심만 부린다고 나무라지만 그대들도 똑같이 욕심에 치우쳐 있는 줄 왜 모르느냐.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붙잡아매고 다스리려 하는 것은 서로간에 고통만을 키울 뿐이니라." 하셨을 것이다.

부처님은 늘 중생의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아집을 보게 하고, 그로부터 벗어날 것을 가르치시기 때문이다.

남의 욕심은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자기 욕심은 한번 돌아보는 것이 행복의 또 다른 방향일 수 있다.

적연(유마선원장)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지유 케넷 선사 (上)

서구형 선불교 '불교명상종' 창종

서구에 맞는 선불교를 전하기 위해 개혁을 시도한 영국의 지유 케넷(1924~1996) 스님은 1962년부터 일본 조동종 본산 총지사 방장 고호 스님 문하에서 공부한 후 견성을 인가받았다.

비구니계를 받고 일본의 한 절에서 주지 소임도 맡았던 스님은 비구니로서의 포교에 한계를 느끼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샤스타수도원을 설립, 서구형 선불교인 불교명상종을 창립했다. 서구인 문화에 맞게 영어로 독경하고 영어 법명을 수여하는 등 독자적인 선불교를 가르친 것이다. 예를 들면 독경할 때 영어 경전을 그레고리안 성가 같은 음악에 맞춰 읽고, 스님들의 법명은 낯선 일본 이름이 아니라 고풍스런 영국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식이다.

지유 스님은 자신의 묵조선(默照禪) 수행과 견성 체험을 <사자후(Roar of the Tigress)> 등 몇권의 저서로 집필해 선불교 포교에 큰 역할을 했다.

1924년 페기 케넷(Peggy Kennet)이란 이름으로 영국에서 태어난 지유 스님은 어린 시절 <아시아의 등불(The Light of Asia)>이란 책을 통해 처음 불교를 접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수행을 하게 된 것은 30세가 되어서야 였다. 54년 영국불교회에 가입한 그녀는 곧이어 강사가 되었고, 4년만에 관리위원이 되었다. 이 때 정진하다 만난 고승이 일본 조동종의 고호 선사였다.

日 조동종 사찰서
묵조선 매진
영어독경·법명수여 등
독자적 가르침 펴

그러나 지유 스님이 일본에 가서 수행하기 시작한 62년은 아직 불교가 서구에서 발전하지 않은 때였으며, 조동종의 본산이 총지사에서도 외국인 수행자는 드문 형편이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비구승 밖에 없는 절에 외국인 여성이 출가했으니 자연 놀림과 외면, 따돌림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지유 스님은 구도의 길에서 힘이 되어줄 도반의 부재와 주변의 무시라는 이중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깨닫고야 말겠다는 발심 하나로 정진해 이런 역경이 오히려 수행의 밑거름이 되었다.

심지어 비구승들의 짓궂은 장난도 많았는데, 어느 날 총지사의 뜰에서 한 스님이 지유 스님의 머리에 사마귀를 올려 놓은 적이 있었다. 깜짝 놀라거나 울음을 터트릴 것으로 예상했던 비구승은 오히려 실망했다고 하는데, 이는 이미 깨달음을 얻었던 까닭이라고 한다. 지유 스님은 저서 <사자후>에서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나는 조심스레 그 사마귀를 잡고 머리에서 떼어 놓았는데, 사마귀의 몸을 둘러싸고 있는 황금빛 광채를 보고 절로 탄성이 나왔습니다. 사마귀를 내려놓은 황금빛의 풀잎 역시 마찬가지 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가요!"

지유 스님은 총지사의 고호 방장 스님이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제자로 받아들였으며, 나중에는 직접 견성을 인가하고 법을 전해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스승의 인가에도 불구하고 일본 조동종에서는 외국인이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질시를 받았으며, 영국불교회에서는 진짜 일본 스님이 아니라는 이유로 스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반감은 지유 스님이 고호 선사의 인가 이후 미국과 유럽으로 활동무대를 옮긴 뒤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지유 케넷 선사

70년, 드디어 지유 스님은 종파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선불교 포교를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에 샤스타(Shasta) 수도원을 설립, 그가 창립한 '불교 명상종(Buddhist Contemplative Order)'의 본산으로 삼는다. (계속)

김재경 기자

韓國佛敎 海東宗
創立 5週年 紀念 大法會

인사말씀

귀의 삼보하옵니다
교계 스님, 종도님, 불자님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호가 충만하시기를 합장 발원 하옵니다.
금번 저희 한국불교 해동종에서는 아래와 같이 창립 5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코져 하오니 공사다망 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증 명 : 종정 경우
● 봉행 위원장 : 혜 우
● 봉행 부위원장 : 대 법
● 봉행위원(무순)
보각 도일 정일 도월 천강 현덕 진수
법헌 지원 도심 인묵 도법 도승 혜월
화도 정안 도일 혜경 일심 도원 불선
덕화 도관 보련 혜광 자당 정윤 혜명
혜화 혜인 혜심 혜월 혜관 효심 혜선
도일 비경 도월 천우 혜정 자인

한국불교 해동종 종도 일동

아 래

● 일 시 : 불기 2547년 3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충북 충주시 목행동 이화예식장 별관
● 주 관 : 한국불교 해동종 종무원
● 문 의 : 043-853-2855

韓 國 佛 敎 海 東 宗

대한불교종단진흥회



2003년 3월 7일 대한불교종단진흥회 회장이시며 (사)대한불교일승종 총무원장 慧定스님께서는 종단진흥회 癸未年 첫 임시회의에서 부회장에는 법사종 원덕 총무원장, 해동종 송산 원장, 운영 위원장에 정토종 회암 원장, 홍보 위원장에는 조계율종 혜인 원장, 사무총장에는 미륵종 송정 총무원장을 각각 임명하였습니다.

대한불교종단진흥회 임원 공고

직 위	법 명	종 단
회 장	能虛堂 金慧定	(사)대한불교 일승종 총무원장
부 회 장	圓德 成順慶	통일불교 법사종 총무원장
부 회 장	東海 李松山	(사)대한불교 해동종 총무원장
운영 위원장	秀峰 鄭回俺	한국불교 정토종 총무원장
홍보 위원장	孫 慧 印	대한불교 조계율종 총무원장
사무총장	滿岩 尹松亭	(사)한국불교 미륵종 총무원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11-5번지
전 화 : 02)3446-1819 팩 스 : 02)511-2028



화엄삼매의 구체적 모습

화엄삼매는 모든 법계에 충만한 지혜롭고 자비로운 부처님의 생명력을 보살들의 무량한 삼매로써 꽃피워 내는 것이다. 입법계품에서는 보살들이 펼쳐 보이는 화엄삼매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하기 시작한다.

"그때 저 보살들이 부처님의 삼매광명이 비치었으므로 곧 이러한 삼매에 들어갔으며, 제각기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 티끌수의 크게 가엾이 여기는 문을 얻어 모든 중생들을 이익케 하고 안락케 하는데, 몸에 있는 털구멍마다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 티끌수 광명을 내고, 낱낱 광명에서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 티끌수 보살들을 변화하여 나타내니, 그 형상이 세간 임금과 같으며, 일체중생의 앞에 나타나서 시방 법계에 가득하게 차 있으면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교화하고 조복시켰다."

이것은 부처님이 스스로 들어간 삼매[自受用三昧]의 광명이 곧 보살들도 삼매에 들어가게 해서[他受用三昧], 보살들도 한량없는 대비심을 가지고 모든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고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 일체중생의 앞에 나타나 여러 가지 방편으로 교화하는 것을 설한 것이다. 이것은 결국 보살들이 삼매에 들어가 부처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아 자비로써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중생들을 교화하는 것을 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가지 가지의 문[門]으로써 중생들을 교화하고 조복하는 법을 설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량없는 모든 보살의 수행하는 문도 나타내고, 큰 서원의 문도 나타낸다. 열 가지 바라밀문 · 불법을 구하기 위해 무수히 신명을 버리는 문 · 모든 부처님을 가까이하여 모든 법을 물으면서도 고달픈 생각이 없는 문 · 모든 중생의 그때 그때의 욕망을 따라 그들이 있는 곳에 나아가서 방편으로 성숙시키어 온갖 지혜바다의 광명에 머물게 하는 문 · 모든 마귀를 항복받고 외도들을 제어하여 보살의 복과 지혜의 힘을 드러내는 문 · 모든 기술을 아는 밝은 지혜의 문 · 모든 중생의 차별을 아는 밝은 지혜의 문 · 모든 중생의 마음으로 좋아함이 차별됨을 아는 밝은 지혜의 문 · 모든 중생의 근성, 행동, 번뇌, 습기를 아는 밝은 지혜의 문 · 모든 중생의 갖가지 업을 아는 밝은 지혜의 문 · 모든 중생을 깨우치는 문 등도 나타낸다. 보살이 부처님의 경계를 펼쳐내는 데에는 이렇게 가지 가지의 문이 있다.

그러면 보살이 무량한 문으로써 부처님의 경계를 펼치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장소를 설한다.

"이와 같은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수 방편문으로 모든 중생이 있는 곳에 나아가 성숙케 하나니, 이른바 천궁에도 가고 용궁에도 가고 야차 · 건달바 · 아수라 · 가루라 · 긴나라 · 마후라가궁에도 가며, 범왕궁에도, 인간의 왕궁에도, 염라대왕의 궁에도, 축생 아귀 지옥의 사는 곳에도 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분명히 모든 중생이 있는 곳이 바로 보살이 부처님의 경계를 펼쳐야 하는 곳이라고 설해져 있다. 부처님은 맑고 고요한 곳에 고고하게 안주해 계시는 분이 아니다. 부처님은 우주 법계에 보편한 무한한 광명으로서 한없이 지혜롭고 자비로운 영원의 생명력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언제나 어둡고 고통스러운 세계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보살이 부처님께 귀의하여 그 뜻을 받들어 중생들을 위해 대비이타의 행을 실천한다면, 그는 이미 부처님의 분신(分身)으로서 부처님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삼매통한 대비심으로 일체중생 교화

보살행만이 불법의 생명 꽃피워

입법계품에서는 다시 평등한 큰 자비 · 큰 원(願) · 지혜 · 방편으로 중생들을 거두어 주는데, 중생들의 마음에 좋아함을 따라서 그들의 처소에 나아가서 이익을 얻도록 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부처님의 경계를 펼치는 보살 모습을 밝히고 있다.

"불자여, 이 보살들이 어떤 대에는 한량없는 변화의 몸[化身]구름을 나타내기도 하고 동무가 없는 혼자 몸을 나타내기도 하나니, 이른바 사문의 몸도 나타내고 바라문의 몸도 나타내고 고행하는 몸도 나타내고 원기왕성한 몸도 나타내고, 의사의 몸도 나타내고 장사주인의 몸도 나타내고 깨끗이 생활하는 몸도 나타내고 배우의 몸도 나타내고, 하늘을 섬기는 몸도 나타내고 공교한 기술자의 몸도 나타내어 모든 시골과 도시와 서울과 마을에 있는 중생들의 처소에 가서 마땅한 대로 갖가지 형상 · 갖가지 위의 · 갖가지 음성 · 갖가지 언론 · 갖가지 사는 곳으로써 인드라그물과 같은 모든 세간에서 보살의 행을 행할 적에 세간의 훌륭한 사업을 말한다."

보살이 중생을 위해서 나타내 보이는 여러 가지의 분신에 대해 설한 것이다. 세상 속에서 다양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보살행을 실천하여 부처님 생명을 꽃피워 가는 구체적인 모습이 설해져 있다. 이 내용을 통해 불법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며 불교인의 바람직한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보조지눌의 '간화결의론' ⑦

화두의 언어적 특징

보조는 화엄을 비롯한 모든 교설을 사구(死句)라고 단정적으로 말한다. 교설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가져다주는 장점도 있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정신을 그 관념적인 체계 속으로 안주하게 하는 역할도 한다. 우리들의 인식이란 도서관의 목록카드처럼, 새로운 사실들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이런 체계와 개념에 의하지 않으면 인식하기가 어렵다. 나아가서 그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경향도 있다. 그래서 자유로운 정신에게는 오히려 지식은 앎의 장애가 된다. 그래서 보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문에서 원돈신해의 참된 가르침이 모래알처럼 많지만, 모두 사구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앎의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다만 처음 발심하여 공부하는 자들이 경절문의 활구를 아직 제대로 참구하지 못하기에, 성품에 맞는 원만한 이론으로 그들을 신해로부터 물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상근기의 사람으로서 비밀히 전하는 가르침을 감당하여 교학적인 앎의 웅덩이를 벗어난 사람이라면, 경절문의 의미 없는 말을 듣자마자 지해의 병에 걸리지 않고, 곧바로 마음 자리를 알게 한다. 이를 일러서 하나를 듣고서 천 가지를 깨닫는 대총지를 얻는 사람이라고 한다.

개념적 체계 벗어나면 정신의 자유

간화란 '이야기를 지켜본다'는 의미라면, 역시 간화선에서도 언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화두도 언어라면 전통적인 언어관에 따르면, 그것은 분명하게 지시하는 대상과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의미에 기초하여 각각의 분제(分齊), 곧 차별에 의한 의미체계를 지향해야 한다.

그러나 화두라는 언어는 가리키는 대상에 질문을 던짐으로써, 대상과 의미를 배제하여 언어라는 병 속의 새를 자유롭게 날아가게 하는 언어이다. 의미를 발생시키기보다는, 그 언어의 길과 대상의 추구하는 버릇을 봉쇄함으로써, 반대로 의미체계라는 정교한 언어의 집을 무너뜨리는데 목표를 둔다.

이런 화두가 가지는 언어적 성격을 보조의 '원돈성불론圓頓成佛論'에서는 '집착을 깨뜨리는(破執)' 언구라고 규정하고, '간화결의론看話決疑論'에서는 '의미 없는 말(無味之談)'이라고 했고, 비유하여 '앎과 이해를 깨뜨리는 기장(器杖)', 혹은 '얼굴을 태워버리는 불꽃'이라고 했다. 말하자면 화두는 인식과 대상의 관계를 구성하는 문법과 의미를 생산해 내는 인식구조 자체를 해체시키고, 깨뜨리는 '뜻 없는 기호'인 것이다.

모든 언어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화두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화두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보면, 분명하게 정상문법에 속하지 않는다. 이점이 화두 간화선을 어렵게 만드는 점이지만, 동시에 간화선의 중요한 특징이다. 오히려 화두라는 언어는 정신의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개념화된 은폐물로서 문법체계를 벗겨내는 일종의 치료적 도구라는 성격을 가진다. 자신은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지시하여 의미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전혀 무의미한, 작용이 없는 언어가 아니다. 비유하면 정신의 방안을 청소하는 일종의 빗자루이다. 빗자루는 세계의 방을 구성하는 요소는 아니지만, 개념과 사회적인 체계에 의해서 그려진 세계의 방을 벗어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간화선에서 강조하는 경절(徑截)이란 '곧바로 가로 질러간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바로 개념적인 체계로터 정신의 자유로움을 가리키는 말이 다름 아니다.

■인경(禪상담연구원장)
(02-733-5311, www.seontherapy.org)



인식의 과정

부처님의 눈에는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가 겉모습인 세속제(世俗諦)와 속모습인 진제(眞諦)라는 이중 구조로 보이는데 왜 중생들의 눈에는 진제가 보이지 않고 세속제만 보이게 될까?

부처님은 사물을 보는데 있어 중생과 부처님과 인식(認識)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셨다. 그래서 사물을 보는 인식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셨다.

부처님은 사물을 보는 인식 과정에서, 눈이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은 단지 중개 역할만 하는 것이고, 사물을 보는 주체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셨다.

사과를 본다고 가정하자. 불교의 유식학(唯識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빌리면 안근(眼根), 즉 눈의 망막에 사과의 상(像)이 비쳐지게 되는데 이것을 상분(相分)이라 한다. 이 상분은 다시 뇌의 시각중추에 가서 비쳐지게 되는데 이것이 견분(見分)이다. 마음속의 기억창고 속에는 과거에 저장된 사과의 상(像)이 있는데 이것을 자증분(自證分)이라 하였다. 이 자증분을 끄집어내 견분과 비교함으로써 견분과 동일한 것인가를 확인한다. 이때 확인작업을 하는 주체를 증자증분(證自證分)이라 했다. 여기서 증자증분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인식의 주체를 마음이라고 하셨다.

인간의 모든 감각작용의 주체는 '마음'

외부자극 정보 파동 형태로 뇌에 전달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사물을 인식하는 과정을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부처님이 인식하는 과정과 중생이 인식하는 과정이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셨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그 이유를 탐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결국, 중생의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셨다. 즉 부처님의 마음은 청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물의 겉모습도 보이고 속모습도 보이지만 중생의 마음은 때가 묻어 청정치 못하기 때문에 사물의 속모습을 보지 못한다고 하셨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청정하면 동전의 앞면도 보고 뒷면도 볼 수 있는데, 마음에 때가 묻어 청정하지 못하면 동전의 앞면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보는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귀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코가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며, 혀가 맛을 보는 것이 아니고, 피부가 접촉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 이러한 모든 감각작용의 주체는 마음이다.

그러면 오늘날 의학에서는 인식의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미국의 뇌생리학자며 신경외과 의사인 칼 프리브람은 눈으로 보든, 귀로 듣든, 혹은 냄새를 맡든, 5가지의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 자극이 인체에 들어오면 그것은 곧바로 전기 화학적인 변화를 거쳐 뇌에 전달되는데 이때 뇌에 정보를 전달할 때는 이진법으로 파동의 형태로 전달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비록 눈, 귀, 코, 혀, 피부 등의 감각 기관은 서로 다르지만 뇌에 정보가 전달되는 순간에는 모두 파동의 형태로 전달된다고 했다. (계속)

■충남大 의대 산부인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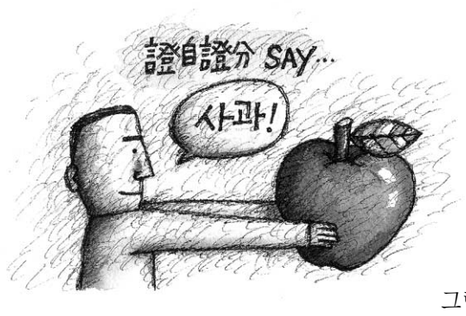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육임래정비법혁신판 「수정보완본」 완간 출시

드디어 「수정보완본」 전12권이 완간되었습니다. 본서(本書)를 애호하시고 선입금하신후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어른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 포교원을 여십니까? ■ 독살림을 계획하십니까?
■ 절 살림이 여의치 않습니까? ■ 오행을 미처 못해 어려움을 겪습니까?

※ 출생 연월일시를 물을 필요가 없고 만세력도 볼 필요가 없으며 그날 그시간만 보면 됩니다

여기, 쉽고 빠르고 간단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기서(奇書)가 있습니다

- 이 책에서 밝혀진 귀신(작사鬼와 병鬼)과 산소탈과 빌미부정은 정확하기로 검증되어 있습니다
- 이책에서 적시해 놓은 귀신해소법은 영험하기로 유명합니다.
- 매일 하루치를 꺼내보고 넣고하므로 세세영영 간편히 보게되어 있습니다.
- 이 책은 살림을 넉넉하게 해주는 보서입니다.
- 현재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의 말씀입니다.
- 감히 말하건대 이책 이상의 편리하고 정확한 활인천역서는 없을 것입니다.
- 이 책은 귀하를 편안하게, 넉넉하게, 명성있게 해 줄것이 틀림없습니다.

■ 책값이 비싸지만 비싼만큼 더 큰 효과가 있게 된다는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효사육임강의록」을 증보합니다. 전에 구입하신 분은 교환 신청하십시오. 무료 교환해 드립니다. - 효 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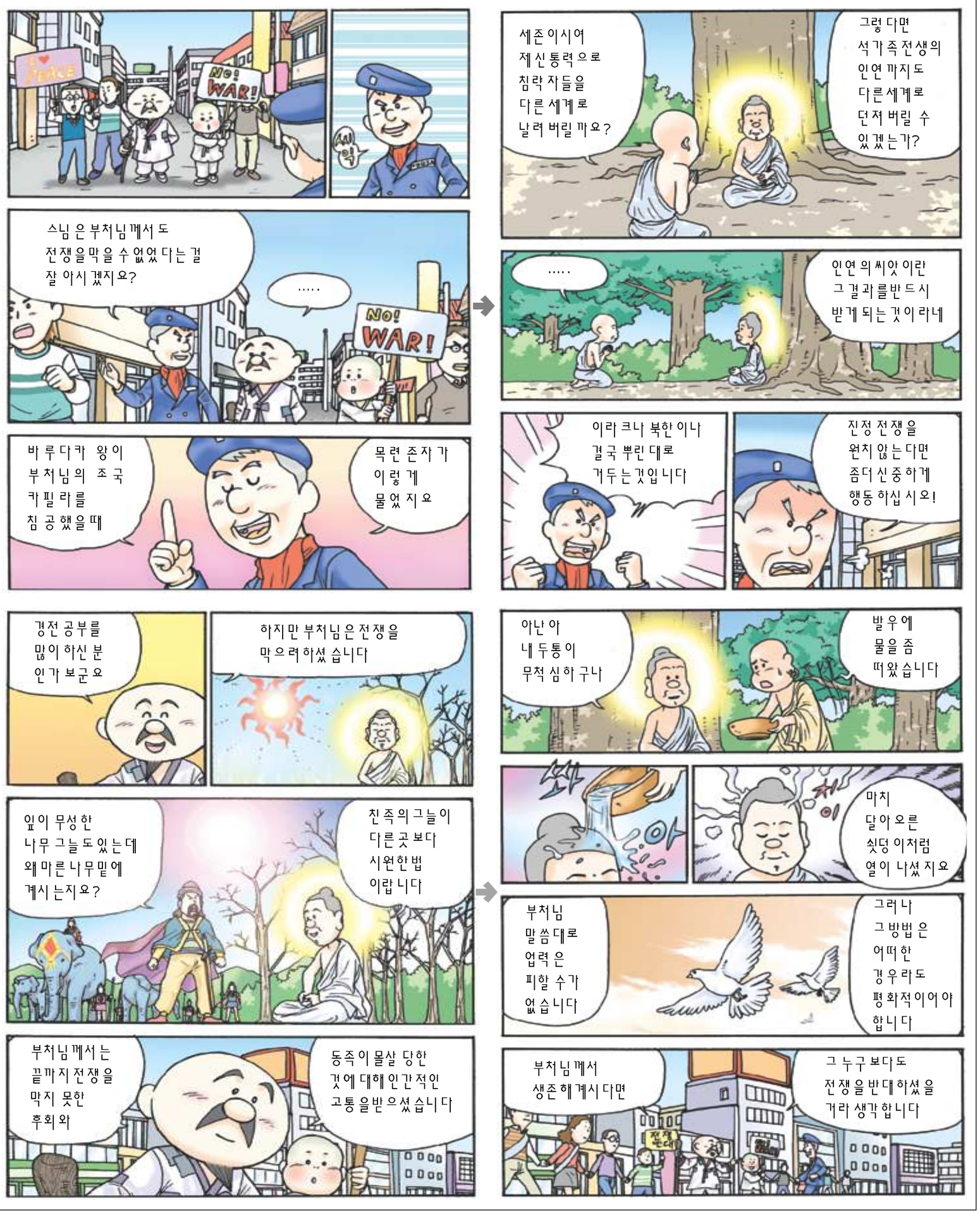
주문 전화 (02)993-8680 / 부산 지사 (051)851-2349 / 입금 계좌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신용카드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卜問

아함경에서 건진 지혜 (제11화)

"업력은 피할 수 없다"

〈출전 : 증일아함경 제26: 등견품 2:2-691중〉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욱



이렇게 들었다

대통령과 검사들의 토론회

향기 없는 꽃

최근에 선재는 참 보기 드문 몇 가지 일을 보았다. 우선 행정부의 최고 수반이 임명한 장관이 결정한 일을 일반 검사들이 뒤집겠다는 집단 행동이 그랬다.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군대만큼이나 강한 검찰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더 놀랄 일이 생겼다. 최고 상관에게 항명하고 있는 검사들을 징계하면 그만일 행정부 수반이 직접 그들과 대화를 나누겠다고 한다. 그리고 선재는 두 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된 그 놀라운 토론회를 보았다.

선재는 토론회를 보면서 부처님께서 법륜을 굴리실 때의 모습을 상상했다. 부처님의 전법 세월 45년 모두가 대화의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부처님은 특유의 대화법으로 상대를 조복시켰다. 그것은 이미 연기법이 부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발견'한 것이라는 선언에서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인지 '신통력'으로 교화하는 일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런 부처님께서는 네 가지 거침없는 말로 설법하셨다. <화엄경>이 전하는 내용이다.

"첫째는 법무애변(法無碍辯)이니, 온갖 교법에 통달하여 걸림없이 말하는 것이고, 둘째는 의무애변(義無碍辯)이니, 온갖 교법의 바른 뜻을 알아 걸림없이 말하는 것이며, 셋째는 사무애변(辭無碍辯)이니, 여러 가지 말을 잘 알아 통달하고 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넷째는 요설무애변 (樂說無碍辯)이니, 온갖 교법을 알아 중생의 근기에 따라 중생이 좋아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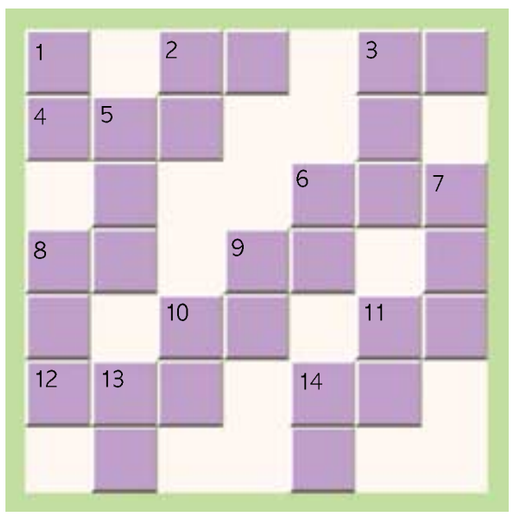
아무리 말이라는 것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선재는 이번 토론을 보면서 그것을 새삼 확인하였다. 대화하는 일의 어려움을 배운 것이다. <법구경>에서 이런 말을 배운다.

"사랑스럽고 색깔이 아름다울지라도 향기가 없는 꽃처럼 실천이 따르지 않는 훌륭한 말은 효과가 없으리라."

부처님께서 교화에 성공하신 것은 그에 따르는 실천 때문이었다고 선재는 생각한다. 자, 토론회 이후 어떤 실천이 이루어질 지 지켜볼 일이다.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교리퍼즐



가로

2. 탑상(塔上)의 구륜(九輪)에 꿰는 기둥을 말함 3. 길함과 흉함. 4. 관불회(灌佛會)와 동일어.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하기 위해 행하는 법회. 6. 수자(受者)에게 수계의 작법을 교수하는 스님. 8. 육근(6根)은 번뇌를 만들어 낼 뿐 아니라 온갖 허망한 대상들을 받아들이는 문과 같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말. 9. 자기 중심에 아(我)가 있음을 믿고 그에 의지하여 교만해진 마음이나 방자하게 구는 번뇌. 11. 12연기의 하나로 명색이 있게 되면 명색을 따라 발생하는 것. 12. 우리나라 국보 제 1호. 14. 경(經)을 넣어 경총에 묻는 금속 혹은 도자기통.

〈412호「교리퍼즐」정답〉



세로

1. 6바라밀의 하나. 참고 견디는 것. 2. 사람이 생사를 반복하는 것을 뜻함. 3. 보리수와 동일어. 부처님이 이 나무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함. 5. 불이의 경지를 상징하는 문. 6. 겸손함이 없이 건방지고 방자함을 뜻함 7. 삼십칠조도품 중 첫번째의 수행도로서, 범부의 상(常)·아(我)·정(淨)의 네 가지 치우친 견해를 깨뜨리는 것. 8. 집에 있으면서 8계를 수지하는 남자. 9. 부처님의 사촌동생이자 10대제자 가운데 한분, 다문제일. 10. 불교의 가르침을 설한 문구를 총칭함. 11. 육신통이라고도 함, 초인적 여섯가지 능력. 13. 한국의 사원에서는 좌선당 겸 식당을 말함. 14. 팔리어 5부 중 소부(小部)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원어는 <숫타니파타>임.

삼환양초는 4월 초파일 모든 법당에서 특별하게 쓰입니다.

15년 역사의 불교양초 제조사 삼환양초가 제안해 하는 특별한 양초

식물성 양초



① 식물성양초 원기둥 – 지름 7.4cm x 29cm
② 식물성양초 돈타레 – 지름 5.6cm x 27cm
③ 식물성양초 밀대 – 지름 4.6cm x 26cm
④ 식물성 6각초(氣) – 지름 7.5cm x 30cm
⑤ 식물성 복(福)초 – 지름 6cm x 24cm
⑥ 식물성 쌍대 – 지름 3.4cm x 22.5cm
⑦ 식물성 3" x 6" – 지름 7.3cm x 14.5cm
⑧ 식물성 3" – 지름 7.3cm x 1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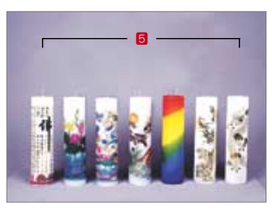
① 1.8cm x 12.5cm 등초 小(1봉 20) ③ 연화 3호 ④ 바람막이 小
② 2cm x 12.5cm 등초 大(1쌍) ⑤ 바람막이 中 ⑥ 연화 2호
⑦ 컵 초



① 전사지양초(호랑이, 용, 반야심경) 지름 7.5cm x 45cm
② 쌍용(용이마주보고 있음) 지름 8.3cm x 30cm
③ (전사지)용 – 지름 9.2cm x 31cm
④ (전사지)반야심경 – 지름 9.2cm x 31cm



⑥ 밀대양초 지름 4.6cm x 25cm (백색, 핑크, 청색, 살색, 적색, 연두, 전사지–연화, 반야심경, 무지개)
⑦ 글대(쌍대)양초 지름 3.4cm x 22.5cm 백색, 전사지, 반야심경, 연화



⑤ 원기둥 양초 지름 7.4cm x 29cm 전사지, 반야심경, 연화, 용, 호랑이, 무지개, 금박, 호랑이, 용



⑧ 돈타테 양초 지름 5.6cm x 27cm 백색, 적색, 청색, 핑크, 노랑, 전사지, 연화, 호랑이, 용, 반야심경

삼환양초공업사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문형리 35-16 전화 : 031-766-0242 / 팩스 : 031-766-0233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 전구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 : 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휠라멘트가 6배(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이 밝고 절전 효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 (탑돌이, 방생) 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 합니다. (건전지 사용)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02)2266-2634 · 2263-2638
구입문의 (031) 986-0277~8 (011)630-7092
http://www.bulje.co.kr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389-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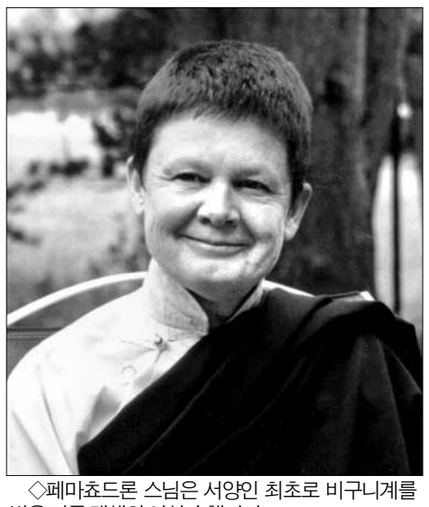


삶에 대한 불안함,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전쟁의 공포, 사고에 대한 불안…. 현대 문명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이 바로 불안함과 불확실함이다. 마음 한구석에서 그것은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되어 현대인의 병으로 자라고 있다. 불안한 세상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담은 책이 바로 <편안해지는 연습>이다.

'편안해지는 연습'

페마 쵸드론 지음 / 김연수 옮김

화니북스 / 8천5백원



◇페마쵸드론 스님은 서양인 최초로 비구니계를 받은 미국 태생의 여성 수행자다.

불안한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서양인 최초로 비구니계를 받은 미국 태생의 여성수행자 페마 쵸드론 스님이 이 책의 저자다. 국내에는 아직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을 포함한 서구유럽에서는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이 책은 페마 스님이 펴낸 책 중에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도움이 될만한 108가지의 가르침을 가려 엮었다. 페마 스님은 우리 모두가 '깨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다고 말한다. 즉, 본래부터 우리는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상처받기 쉽고 여린 그 마음이 다칠까봐 겁을 낸 나머지, 그 주위에 벽을 두른 채 살아간다. 페마 스님은 그 벽을 부수고 올곧게 살아가는 기술을 얻으면, 원래의 깨친 마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좋은 자질에 바치는 노래 / 이 좋은 자질들이 있으니 모두가 완전한 지혜를 얻기를, / 삶의 적들을, 나쁜 행동들을 물리치기를, /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폭풍과도 같은 물결에서, / 윤회의 바다에서, 내가 모든 존재를 자유롭게 하기를.'

한걸음 더 나아가 페마 스님은, 본래의 깨친 마음을 점점 확장시켜 '터득한 깨친 마음'을 갖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통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어두라는 것. 그러면 사랑, 즐거움, 평온,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이 다른 사람을 향해 번져간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두려움 · 스트레스 다스리는 108 가르침

페마 스님은 이 책에서 '깨친 마음'으로 가기 위한 다양한 수행법을 소개한다. 호흡을 통해 고통은 받아들이고 즐거움은 나누어준다는 '주고받기 수행법'이나, 힘 있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그 말들이 우리의 존재에 스며들게 하라는 '용감한 말 수행법' 등 책을 읽으면서 곧바로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일러주는 것이다. 각 주제는 짧은 강론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하나하나의 주제는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이 108개의 주제들은 삶에서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다스리고, 늘 편안한 마음을 닦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려준다.

페마 스님의 가르침이 서구인들에게 환영받는 이유는 불교의 세계관을 현대인의 삶에 맞게 쉽고도 명쾌하게 풀어내기 때문이다. 페마 스님은 인생의 절반을 평범한 미국 여성으로 살았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공부를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등 보통 여성과 똑같이 현실의 즐거움과 고통을 겪었다. 그러한 그이기에 티베트나 인도, 네팔의 그 어떤 선사보다 더 생생하게, 이 불안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고통을 가슴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은 더욱 생생하게 살아있으며, 그녀의 시선은 더욱 따뜻하다. 페마 스님의 가르침에는 여성의 섬세함, 어머니의 자애로움, 스승의 날카로움이 모두 들어 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자료와 증언 통해 건봉사 모습 복원

'금강산 건봉사 사적'

이영선 편저

동산법문 · 전국염불만일회 / 3만2천원



◇현재의 건봉사 대웅전. 1950년 6 · 25전쟁 때 소실된 것을 94년 복원했다.

발징 · 나옹 · 사명 · 만해 주석, 정토불교 본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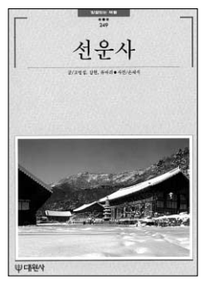
건봉사는 위치적으로 남한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석가세존의 진신치아사리를 봉안하고 있다. 758년 염불만일회의 효시이자 정토불교의 본산으로 나무아미타불 육자염불송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520년 아도 화상에 의해 창건된 건봉사에는 발징 화상, 나옹 화상, 사명 대사, 만해 스님 등 우리 불교계 큰 스승들이 주석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쳤다.

이 같은 금강산 건봉사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금강산 건봉사 사적>이 나왔다.

봉산 이영선(75세 · 정토학회 이사)옹과 염불만일회가 펴낸 이 책은, 1928년 발간된 '건봉사 사적' 이후 75년 만에 나온 것으로 문헌 자료와 관련 증언 등을 통해 건봉사의 모습을 복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옹은 건봉사 사하촌에서 출생 성장하고 이곳 봉명학교에서 수학하면서 금송 황영진 스님 문하에서 불교를 공부한 건봉사 역사의 산 증인이다. 오래전부터 건봉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각계 각층의 고증을 거쳐 이 책을 펴냈다.

이 책은 건봉사의 역사와 석가여래 치아사리, 염불만일회, 고승비문 관련자료, 비석 및 문헌자료, 문화유산 등을 통해 지난 시절의 사회상과 제도를 보여주고 있어 자료적 측면에서도 가치가 크다.



'선운사'

고영섭 外 지음
손재식 사진

대원사 / 4천8백원

동백과 미당으로 유명한 修禪도량

동백꽃과 미당 서정주. 선운사 하면 떠오르는 단어다. 선운사 입구에는 미당이 지은 시 '선운사 동구'를 그의 육필로 새긴 '미당 시비'가 세워져 있다.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리우는 아담하고 아름다운 선운산에 위치한 선운사는 천연기념물 제184호로 지정된 동백꽃 군락 외에 꽃무릇과 송악 등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선운사는 백제 위덕왕대(554~598)에 창건되어, 가장 번성 했던 조선 후기에는 89개의 암자와 24개의 수도굴 그리고 189개의 요사채가 산중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강학과 수선의 도량이었다.

대원사의 빛깔있는책 시리즈 249번째 권인 <선운사>는 이러한 선운사의 모든 것을 소개한다. 선운사의 역사에서부터 건물 배치와 각 당우들의 특징, 그 안에 모셔진 불상과 불화, 기타 유물들을 사진과 더불어 자세히 살폈다.

건물 배치 · 당우 등 선운사의 모든 것 담아

이은자 기자

새로나온 책



정토신앙의 올바른 이해

'도로아미타불'

정목스님 지음

경서원 / 9천원

"정토신앙의 염불수행은 부처님의 본원력을 진실로 믿고 행하여 정토왕생이 깨달음을 얻은 후 일심(一心)의 바다로 나아가고자 '마음을 정토에 두는 도(道)'이다."

한국적 정토신앙의 전개를 위해 애써 온 춘천 정토원 주지 정목 스님이 <도로아미타불>을 펴냈다. 원효 스님의 '아미타경소' '미타증성게' '대승육정참회'를 풀이한 이 책에서 정목 스님은 "염불수행은 한국불교의 전통이며 불교의 정맥이 도도히 흐르고 있다"면서 "오직 믿음으로 발심하고 원으로 행을 일으키는 적극적인 실천이 요구될 뿐"이라고 말한다.



불교인문학의 새로운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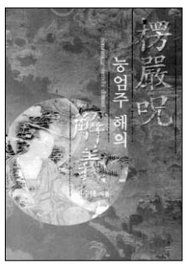
'인드라망의 세계'

신용국 지음

하늘북 / 1만원

<인드라망의 세계>는 세계를 지배하는 관념들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자본 만능과 물질 위주의 현대를 낳게 한 모든 세계관과 존재방식에 대한 시비를 가리고자 하는 책이다.

자칭 '독립군'이라고 하는 재야 불교학자인 신용국(42)씨는 이 책에서 불교를 중심으로 한 동양의 오랜 지혜를 유기체 세계라는 현대적인 언어로 되살리려 하고 있다. 저자는 존재와 세계의 실상을 말함으로써, 그를 통해 참되게 존재할 수 있는 문명적 대안을 '불교 인문학'의 새로운 시도를 통해 검토한다.



능엄주 올바른 이해 도와

'능엄주 해의'

전수태 지음

운주사 / 1만5천원

<능엄주 해의>는 능엄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첫 시도이다. 능엄주는 <능엄경>에 나오는 다라니다. 총4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제1장에서 능엄주에 대한 대체적인 개관을, 제2장에서는 부처님의 입을 통해 전하는 능엄주의 주력(呪力)을 소개하고, 제3장은 이 책을 중심으로 능엄주의 한글 표시와 한역, 로마자 표기, 그리고 우리말 번역으로 본문으로 만든 다음, <범화대사전>에서 낱낱 낱말에 대한 뜻풀이를 찾아 실었다. 제4장에서는 관련 불교용어를 풀이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한국어의미학회 전수태 회장이 집필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화	틱 낫 한	명진출판사
2	산은 사람을 기른다	윤 제 학	도 피 안 사
3	지허 스님의 차	지허 스님	김 영 사
4	아비담마길라잡이	대림 · 각묵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5	얼굴	이지엽 외	고 요 아 침
6	천하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김 재 경	마당넓은집
7	화엄경	법정 스님	동 쪽 나 라
8	천수다라니와 붓다의 가르침	전 재 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9	니가누고?	경봉 스님	휴먼앤북스
10	조선불교통사	이 병 두	혜 안

도서 안내 : (02) 737-0695

인터넷 · 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 (02)737-0695

생활 속의 금강경



영가의 바른 천도를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고자 하십니까?

우룡 큰스님 지음
신국판 / 값 6,000원

금강경을 공부해 보십시오. 시대와 종파를 초월하여 불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금강경 속에 영가천도의 비결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생활 속의 금강경』은 그토록 어렵다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생활에 접목시켜 쉽고도 재미있게 풀이한 책입니다.
이제 『생활 속의 금강경』을 통해 집안의 영가를 천도하고 우주에 가득찬 지혜와 영광과 행복을 가득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룡 큰스님의 영가천도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4×6판 / 값 3,500원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 자세, 방황하는 영가를 올바르게 천도하여 주변을 다스리고 복을 쌓는 방법, 염불천도, 독경 · 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 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정초기도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좋은 책

"기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타 큰스님의
생활 속의 기도법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4×6판 / 값 3,500원

일타 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기 도 新禱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일타큰스님 주변의 기도 성취 체험담 총 52편을 모았습니다.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한 부처님의 가피를 확신할 수 있게 되고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수 있게 됩니다.

신국판 / 값 5,000원

미타신앙 · 미타기도법 김현준 지음 / 값 3,500원

'나무아미타불'의 염불은 내생 뿐만아니라 현세까지도 극락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미타불의 참모습에서부터 극락에서 누리는 행복, 칭명염불 · 오회염불 · 관상염불 · 천도염불 등의 각종 염불 수행법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감히 불교신앙의 결정판이라 자부하며, 불자들의 1독을 권합니다.

관음신앙 · 관음기도법 김현준 지음 / 값 3,500원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가지 관음기도법, 관음관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게 풀이 되어 있는 이 책은 관세음보살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바라는 분들의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김현준 지음 / 값 3,500원

지장신앙 속에는 영가천도뿐만이 아니라 행복과 깨달음, 성불의 비결까지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 기도법,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장기도법, 행복과 깨달음, 성불의 비결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본원경 김현준 편역 / 값 5,000원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참,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책.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영가천도 · 업장소멸 · 소원성취 · 향상된 삶을 이루게 됩니다.

부록-지장보살예찬문

참회 · 참회기도법

김현준 지음 / 값 3,500원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부디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물꼬를 틔워 보십시오. 가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I 업장과 참회
II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III 절을 통한 참회
IV 참회염불
V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VI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 587-6612 · 팩스 : (02) 586-9078

‘절간이야기’

무산 오현 스님 지음

고요아침 / 9천원

옛날이야기 · 법문 같은 시



◇오현 스님이 회주로 있는 백담사 무금선원.

‘무금선원에 앉아
내가 나를 바라보니

기는 벌레 한 마리가
몸을 폈다 오그렸다가

온갖 것 다 갉아먹으며
배설하고
알을 슬기도 한다’

- 내가 나를 바라보니 -

백담사 만해축전을 통해 만해 스님의 가르침을 오늘에 되살리는 작업을 펼치고 있는 백담사 무금선원 회주 오현 스님. 스님은 시인이다. 최근 나온 <절간이야기>는 시력(詩歷) 35년에 걸친 오현 스님의 작품세계를 조망하고, 스님이 걸어온 독특한 시 세계를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이 책에는 시 같기도 하고, 옛날이야기 같기도 하며, 법문 같기도 한 32편 ‘절간이야기’ 연작 시와 구도자로서의 삶과 깨달음을 노래한 30여편의 시가 설악산의 3사인 백담사, 신흥사, 낙산사의 아름다운 사진과 함께 펼쳐진다.



구도자의 삶과 깨달음 노래

특히 연작시 ‘절간이야기’에서 오현 스님은 일상에서 만나는 절 주변 이야기를 산문시를 통해 담담하게, 조금은 능청스러운 화법으로 들려준다.

‘절간이야기 1’에는 새벽 예불이 끝난 뒤 승방의 군불 때는 부목처사의 3대에 걸친 이야기가 부목처사의 입을 통해 전달된다. 할아버지는 양산 통도사 극락교 그 큰 돌덩어리를 익산 미륵사지에서 혼자 야밤중에 들어다 놓았으며, 아버지는 밀양 표충사 대웅전 대들보를 짊어지고 왔다. 짊어지고 오다 지게가지가 부러져 운명했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그렇게 운명하면서도 스님들 말씀을 잘 들으라고 당부한다.

‘8’에는 금릉 계림사의 일흔이 된 노 석수장이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11’에서는 어머니에게 매를 맞고도 종아리가 아프지 않는 것을 한하여 우는 육상(陸常)의 이야기가 나오며, ‘12’에서는 고창읍내 쇠전거리에서 대정(大釘)을 만들어 파는 늙은 대장장이, ‘15’에서는 낙산사 원통보전 축대 밑에서 소주잔을 홀짝홀짝 거리는 여든 살의 촌노인, ‘17’에서는 주문진 앞 바다에서 만난 늙은 어부, ‘19’에서는 자갈치 어시장의 아즈매 보살, ‘20’에서는 새벽 찬바람에도 불구하고 종치기를 고집하는 종두(鐘頭), ‘21’에서는 절에서 하룻밤 유숙한 어떤 촌유(村儒)와 절에 들어온 지 달포도 안된 김행자(金行者), ‘22’에서는 시충(屍蟲)까지 나오는 생면부지의 시신을 정성스레 염습(殮襲)한 늙은 염장이, ‘27’에서는 덕사의 산지기 등이 등장한다.

이들은 하나같이 미욱하고 어리석은 중생들이다. 작은 일에 기뻐하고 슬퍼할 줄 아는 보통 사람들이다. 오현 스님은 그들의 입을 통해 그들의 어법으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바른 길인지를 은연중에 깨우쳐 준다.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이지엽 씨(경기대학교 한국동양어문학부 교수)는 “32편의 ‘절간이야기’ 연작은 오롯한 오도(悟道)의 마음을 담고 있어 어느 작품이고 쉽게 넘어가지 못하게 한다. 생이란 무엇이며 죽음이란 무엇인가. 어떤 삶이 과연 향기로운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회적으로 들려준다. 거의 모든 연작시가 평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라고 평하고 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꽃’

윤후명 지음

문학동네 / 8천5백원



“식물은 위대하다고 나는 강조한다. 그것은 우리 삶의 원초적인 뿌리에 닿아 있다.”

100가지 꽃 사랑 글 모음

시인이자 소설가인 윤후명(57)씨가 우리나라의 100가지 꽃에 대한 사랑의 글을 모은 <꽃> 이야기를 펴냈다. ‘윤후명의 식물 이야기’라는 부제를 단 이 책은 꽃과 나무를 소재로 삼은 독특한 산문집이다.

문학작품 속 꽃 · 어릴적 추억 등 담아

저자는 이 책에서 봄 · 여름 · 가을 · 겨울의 사계절에 피어나는 꽃들의 개화시기와 식물학적 특성, 꽃에 얽힌 옛 이야기와 문학 작품속의 꽃 예찬, 어릴 적 추억 등을 이야기한다.

노루귀, 복수초 같은 야생화에서부터, 가난했던 어릴적 신물나게 먹었던 감자바위의 감자꽃, <삼국유사>의 헌화가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철쭉, 선(禪) 화두의 하나인 그 유명한 뜰 앞의 잣나무에 이르기까지 꽃과 나무에 대한 저자의 애정과 관심은 끝이 없다. 10년 넘게 종로5가 야생화 꽃장수와 친분을 나누며 직접 꽃을 키우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저자의 삶은 그야말로 놀라움 그 자체다. 그러나 어린 시절 꿈이 식물학자였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리 놀라울 일도 아니다. 고등학생 시절 원예반 특별활동을 하는 등 꽃과 나무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늘 품어왔던 저자는, 문학을 하느라고 잃어버렸던 식물학자의 꿈을 이 책을 통해서 실현하고 있다.

“꽃의 빛깔, 향기, 모습에 황홀하다. 아울러 생명의 신비에 몸을 떨지 않을 수 없다. 이 원초적인 느낌이야말로 우리의 태어남의 의미로까지 이어진다. 그러므로 꽃 한송이에서 우주를 본다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이것이 내가, 우리들 사랑이 우주에 닿아야만 완성된다고 믿는 까닭이다.”

학문적 차원의 식물학자가 아니라, 식물 하나하나 마다에 깊이 스며있는 우주적 존재의 실상을 바라보는 혜안을 터득한, 또다른 차원의 그 어떤 것을 저자 스스로가 발견하고 개척하고 있다는 것을 이 책에 담긴 글을 통해 읽어낼 수 있 수 있을 것이다.

이은자 기자

전문가 서평

‘우리것으로 철학하기’

한상우 지음

현암사 / 1만2천원



우리문화 정체성 확립의 길 제시

오늘날 우리가 학문의 한 영역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철학’이라는 말은 그리스말의 번역어이다. 철학적 사유는 진행의 모든 과정에서 논리라는 선험적 도구틀에 맞추어야 하는 까닭에 대개 딱딱하고 복잡한 얼개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철학은 보통 사람들에게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리기 쉽고, 일상의 삶과는 동떨어진 ‘의미의 세계’를 구성하는 경향이 짙다.

열림과 연대가 확장되는 문명사적 전회의 21세기를 맞아 우리 사회에도 철학의 지평을 넓히는 철학 이야기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한상우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의 최근 저서 <우리것으로 철학하기>에서 ‘우리 것’은 다양한 범역에 걸쳐 있다. 우리 사상의 원천인 ‘하늘’에서 현대의 대중가요까지, 그리고 정약용의 철학사상에서 고스톱의 놀이규칙에 이르기까지, 우리 문화의 역사와 현실에 대해 그는 다각도로 조명을 던진다. 한상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의 내면세계에 바탕과 뿌리로 남아있는 ‘한국적인 것’의 원형 같은 것을 확인하게 된다. 사물과 개념을 다루는 사유의 방식만이 아니라 사물과 마주하는 느낌이나 사람들과 나누는 삶의 태도 등을 소재로 삼아 그는 ‘한국적인 것’의 특징을 굵은 톤으로 그러나 예리하게 찾아내고 평이하면서도 독특한 필치로 그려낸다.

하늘 · 다산 사상서 대중가요까지 다각 조명

노동과 자본, 남성과 여성, 인간과 자연 사이에 경계를 긋는 근현대 서양의 과학과 기술은 인간의 주체성을 명확히 하고 인류의 삶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으로 만들었지만, 이제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의 예에서 보듯 대량살상무기에 못지않은 또 다른 비인간화의 위험을 안고 있다. 오늘날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화해와 공존의 새 시대 신세계의 꿈, 새 문명 건설하기의 철학적 물결이 일고 있지만 그 결과가 매우 성공적일 것 같지는 않다. 그들이 꿈꾸는 새 시대를 향한 반성은 토대에 대한 발본적 신사유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인간과 우주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열어젖히는 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삶을 편리하고 풍요한 것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 근현대 과학기술이나 인간의 삶을 반성하는 21세기적 신사고도 멀리 보면 이름짓기=개념화를 통해 분석하고 증명하며 추론하는 그리스 원류의 생각하기 방식의 또다른 변용일 뿐이다.

논리법칙을 준용하거나 구사하는 이른바 이성의 복잡한 사유를 거치지 않고도 한국사의 주체들은 까마득한 옛날부터 자연과 어울리고 남들과 함께하며 스스로를 안정되게 지탱하는 삶의 지혜를 지녀왔다. 한국적 삶의 지혜는 엄격한 형식적 법칙이나 방법적 도구틀을 전제하지 않으며, 감성과 의지와는 구별되고 구분되는 지성적 사유의 영토 안에 머물지 않는다. 가치를 자연과 공유하는 감성, 그리고 생명을 사물과 나누는 의지가 한국적 삶의 태도에는 깃들어 있다. 한국적 사유, 한국적 감성은 사람과 짐승과 푸나무와 돌덩이를 존재론적으로 가르지 않고, 이승과 저승을 시공간적 상호초월의 관계에 두지 않음으로써 두 세계 사이를 막힘 없이 넘나들며, 자연사물을 인식주관-행위주체의 저편에 있는 순수 · 단순 대상으로 상정하지 않는다. 자연사물에 내재한 귀신이나 죽은 사람의 영혼은 저주나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정보와 지식,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소통의 상호주체인 것이 한국적 의식의 실상이다.

19세기 말 이래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인고와 시련의 비극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오랫동안 확산되어 왔다. 한국사 전체를 안팎의 침략/억압/박탈의 연속 및 그로 인한 좌절/상실/설움/비원의 덩어리로 보는 소극적 · 비관적 관점이 그것이다. 그런 관점에서는 중민(衆民)과 원귀들의 맺힌 응어리를 풀어내는 무당 푸닥거리 곧 살풀이굿이 한국문화의 정수에 해당한다. 한국문화사에 대한 주체결석의 관점은 결국 자기 자신까지를 비하한다. 이런 문화적 병리현상의 원인과 처방을 한상우는 밝히고 보여준다.

한상우의 책은 한국문화에 담긴 힘과 건강성, 공존과 화해의 정신, 여유와 해학의 태도를 찬찬히 풀어나감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긍지와 자신감이 실린 문화적 정체성을 일구어나가는 길을 제시한다. 그의 철학하기와 글쓰기는 한국문화의 고유성을 입증하고 실현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다. 나와 한국에 담긴 고유성-특수성을 살피되 인간과 세계에 실린 원천성-보편성을 아우르는 반성적이고도 실천적인 탐구가 그의 작업이다. 추상적 ‘인간’이 아닌 ‘나’와 ‘우리’의 참모습을 그려내는 한상우의 작업이 앞으로 더욱 왕성하게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유초하/충북대 철학과 교수

〈우리 것으로 철학하기〉는 한국교원대 철학과 한상우 교수가 15년 이상 전국의 문화재를 탐방하고, 철학자의 깊은 눈으로 본 우리 문화에 대한 탐구서이다.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하신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인연이 되어 옛부터 금강산에서 전해오던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기에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승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법제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 험 사 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지수 대진 합장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영가천도 「책자 무료보급」
인간의 길흉회복을 좌우하는 영가의 영향력!

인간의 고통중에서 절반이상이 영가의 장애로 부터 온다!
집안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영가의 영향력!
가정불화, 사업부진, 자녀문제, 불의의 사고나 재난, 이중에 절반 이상이 영가의 영향으로부터 온다. “100% 영가천도 영험도량”

책 자 내 용

제 1장 영가의 실체.
1. 영가천도에 대하여
2. 영가(고혼) 천도의 의미
3. 영가란 무엇인가?
4. 착신현상이란 무엇인가?
5. 영가의 장애와 천도의 필요성

제 2장 천도재에 대하여...
1. 영가천도와 업장소멸.
2. 영가천도의 공덕.
3. 천도재와 위령제의 차이.
4. 수자령영가에 대하여.
5. 효행중의 효행.
6. 지장보살의 시대.
7. 천도재 법문.

제 3장 영가천도로 안락한 삶을 영위하다.
● 영가가 천도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사례.
● 영가가 착신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 천도재를 지낸 분들의 체험수기.

그밖에 여러 사례들 - 영가천도 책자 참조 -

100%의 확실한 영가천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
천도재가 위령제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영가천도를 했는데도 영가의 장애라고 느끼거나 삶의 변화는 별로 없다고 하소연하는 불자가 늘고 있다. 전국에 조상령 혹은 수자령 영가가 천도가 안되어 이로인해 고통을 받고있는 이들이 상당 수에 이른다.

「미륵이 출세할때까지 중생들을 모두 해탈시켜서 영원히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도록 하리라!」 - 지장경 중에서 -

※ 법당 및 요사채 불사 동참 [우리은행 551-215163-02-001 성거사]

대한불교 조계종 지장도량 성 거 사
천안시 목천읍 송전리 283번지(독립기념관 IC)
041) 567-6820, 041)567-6822

제3차 한·중·일 국제 무차선 대법회 실황

“禪의 향연” 대중화 · 생활화를 위한 영상물

“큰 가르침이 담겨 있는 작은 영상물이 진리에 목말라 있는 많은 불자들에게 감로수가 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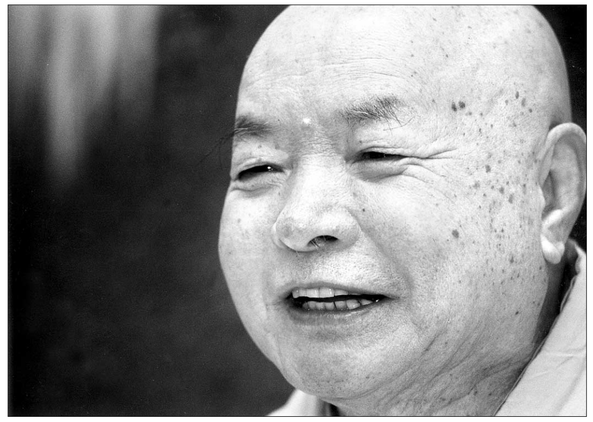
VTR
- 서옹대선사 · 진제대선사 법문 및 법거량 (90분)
- 보급가 : 2만원

CD
- 서옹대선사 · 진제대선사 법문 및 법거량 전체
- 중국 정혜선사, 일본 종현 선사 법문 및 법거량 주요장면
- 보급가 : 1만원



보급문의 : 부산해운정사 051)746-2256
전국 불교 용품점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지만 자신이 만든다는 것 몰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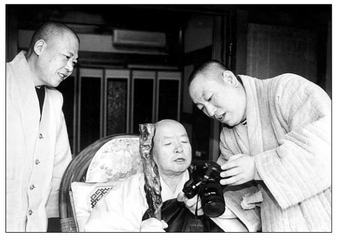
지상 백고좌

원 담 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자기마음 하나 올곧게 지키면 세계평화 꽃피우는 주역 돼





◇원담스님이 영화실을 찾은 수덕사 포교국장 정암스님에게 이치를 일러주 뒤 코를 만지며 경책하고 있다.

◇손상좌들과 법담을 나누던 원담스님이 기자의 카메라를 살펴보며 즐거워 하는 모습.

항상 해맑은 웃음…공부 미진땐 엄한 꾸중

선농일여 새 가풍 수립 · 덕숭총림 설립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평화·정법 찾는 길이고 부처 되는 길이지요"



그림 · 문병성

기자가 본 본 원담 스님

옛사람이 이르기를 '오늘은 비록 보존하나 내일은 보존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금도 방일함이 없어야 합니다. 마음과 경계가 서로 부딪쳐서 섭나무에 불이 타는 것 같이 번잡스럽게 세월을 보내 버리면, 화두 드는 공부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업보만 더할 뿐입니다.

수행할 때는 나를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렸다는 생각조차 버리세요. 상을 세워서도 안됩니다.

부처가 되어 나를 완성하면 자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참선하면 다른 사람의 목숨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나를 찾으면 모든 불행과 번뇌 불화는 모두 사라져 버립니다. 안심(安心)의 경지에 이르게 되지요.

어떤 일을 하다가도 난관에 도달하면 잠깐 시간을 내어 일념으로 참선에 들어 보세요. 참선하면 지혜가 나오고, 무슨일이든 해결되는 힘이 나옵니다.

요즘 세계가 뒤숭숭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불안과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세계 인류의 평화는 나를 찾는데서 시작하여 자신을 찾는 사람만이 완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늘 자신을 결하하게 반성하고 돌아보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개인이나 사회나 나아가 이 세상이 평화롭게 될 것입니다.

한 조각 비고 밝은 것 본래 등급고 묘해
유심 무심으로는 능히 알 수 없네.
겨울 가운데 형상 없는 이 마음은 곧
화연한 허공 같아 털끝만치도 걸리지 않네.

정리=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가드



반야경전의 초월적 경향(7)

부파불교의 유아론적 경향은 대승불교의 흥기와 함께 새로운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것은 크게 두 갈래로 구분할 수 있다. 무신론적 흐름과 유신론적 흐름이다. 무신론적 흐름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반야경전들과 <유마경>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상이다. 하파로는 중관학파가 여기에 속한다. 유신론적 경향을 대표하는 경전은 <법화경>과 <화엄경>, <열반경> 등이다.

초기 대승불교를 주도한 것은 반야사상이다. 일반적으로 반야사상은 무신론을 대표하는 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반야경전 속에서 신에 대한 언급을 발견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초월적 경향을 나타나면서 신의 속성과 상통하는 개념은 있다. 반야는 완성이란 용어이다. 흔히 이것을 반야바라밀이라 부르며, 줄여서 반야지라고 한다. <대품반야경>을 중심으로 반야바라밀의 성격을 살펴보자.

"선남자, 선여인이 이 깊은 반야바라밀을 듣고 수지 독송하며, 바르게 사유해 살바야의 마음을 여의지 않으면 두 군대가 싸우고 있을 때라도 이 선남자 선여인은 반야바라밀을 외우는 한 전투에 휩쓸리게 되어도 목숨을 잃거나 칼이나 화살에 다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대품품 제32).

"반야바라밀을 단지 베껴 써서 책으로 만들어 집에서 공양하고, 기억하지도 읽지도 않으며, 설하지도 바르게 사유하지도 않는다 하더라도 이곳에서는 사람이나 혹은 사람 아닌 것[非人]이 해칠려고 해도 그 기회를 얻을 수 없다"(상 동)

인용문에서 반야바라밀은 <반야경>을 지칭한다. 살바야는 일체의 지혜 즉 반야지다. 따라서 반야바라밀의 능력을 말해주고 있다. 반야바라밀이 인간의 보편적인 인식과 경험의 세계를 벗어난 초월적 공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반야경 도처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논리적 설득을 얻기 위해 몇 가지 더 인용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전제조건은 반야바라밀에 대한 수지, 독송, 서사, 바른 사유, 남을 위해 설명해 주는 것 등이다. "선남자, 선여인이 혼자서 빈집에 있거나 혹은 무서운 황야를 가거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게 되어도 마침내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는다"(삼탄품 제30). "갖가지 투쟁을 일으켜 파괴하려고 찾아온 사람이 있더라도 반야바라밀의 위신력에 의해 그 나쁜 마음이 바로 소멸되고, 그 사람은 오히려 착한 마음을 내어서 공덕을 더하게 된다"(별쟁품 제31). "송사가 벌어져도 반야바라밀을 독송한 까닭으로 아무 일이 없다. 반야바라밀의 위력이 있기 때문이다"(권지품 제34). "독약 넣새를 탑더라도 혹은 사악한 요술을 사용하거나 불구덩이에 빠지더라도, 칼에 죽임을 당하려 하거나 독약을 먹게 되더라도 다치지 않게 된다"(대법품 제32). "눈이 병들지 않고, 귀, 코, 혀, 신체도 병들지 않는다. 몸을 다쳐 불구가 되지 않고, 쇠약해 늘지 않으며, 결코 횡사를 당하지 않는다"

이상은 모두 <대품반야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요약한 것이다. <대품반야경>의 주석서인 <대지도론>에는 반야지의 성격을 22가지 정도로 분석하고 있다. 이 22가지 속성 중에서 반야바라밀의 불가사의한 공덕에 관해 여섯 가지 정도 언급한다. 그렇다면 반야바라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이기에 초월적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 단순한 지혜의 작용으로 이상과 같은 초월적 속성을 설명하기에는 논리적 설득력이 부약하다.

근본불교 어디에도 지혜가 이상과 같은 초월적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부파불교에서는 지혜를 유위법과 무위법으로 대별하고 있다. 그리고 무루법은 다시 택멸(擇滅), 비택멸(非擇滅), 허공(虛空)무위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여기서 선택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지혜 그것이 바로 비택멸 지혜이며, 자연지라고도 말한다. 그렇지만 자연지 속에는 생사 내지 인간사의 길흉을 주제하는 초월적 능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오히려 인도사상사 일반을 주도하고 있던 브라만교의 속성이 그대로 반야바라밀에 수용된 것이라 말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반야경>에선 경전 자체를 주문과 동일시하기도 한다. 초기불교와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점이기도 하지만 모두 브라만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나 반야사상가들은 여기서 반야바라밀을 절대화시키지 않는다. 만일 반야바라밀을 절대화하여 이원론적인 개념으로 발전시켰다면 반야사상은 유신론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반야바라밀은 우리들의 내면에서 발현되는 것이며, 언제나 수행과 함께 체득되는 것이라 강조한다. 어떤 개념, 설사 그것이 반야바라밀이라 하더라도 개념화되는 것에는 반대했기에 부정의 논법을 통해 절대화를 방지하고자 했다.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브라만교의 속성 '반야'에 수용돼
경전-주문 동일시…절대화 방지

세간과 청산 어느 것이 옳으냐.
봄빛 이르는 곳마다 꽃이 피더라.
산하대지가 나의 집이거늘,
다시 어디서 고향을 찾는가.

먹숭산 아래 한 집에 비추는 봄 광명에 또 다시 온갖 꽃이 만발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의 이치입니다.

봄볕은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차별이 없이 비춥니다. 들판의 꽃가지도 긴 것이나 짧은 것 할 것 없이 평등하게 물이 오르지요. 그러면 꽃가지는 크건 작건 제 나름의 꽃을 피워냅니다.

입체가 평안한 도리를 알려면 길고 짧은 것에 끄달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 옷은 짧지도 김지도, 작지도 크지도 않고 아무나 입을 수 있습니다.법의는 마음만 내면 누구나 입을 수 있습니다. 중생과 수행자는 말할 것도 없고, 중생과 부처도 평등한 도리가 분명 있습니다. 하루빨리 깨달음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요즘 세계를 둘러보면 어디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공포심 분노심 불평등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히 혼돈의 세상이라 할 수 있지요.

환경오염으로 인해 하늘과 땅, 바다에 사는 동식물까지 저마다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북한산 천성산 금정산이 개발로 인해 환경이 파괴될 위기에 있습니다.

많은 스님네들이 전쟁을 막고, 환경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미국인과 이라크인' 등이 모두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힘과 편의만 생각하여 남을 업신여기고, 자연도 파헤치려 하지만 그것은 종국엔 자신을 해치는 것이고, 모두가 살 수 없는 길입니다. 서로 위하면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야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우주만유 유정물 무정물이 모두 한 뿌리라는 것을 알고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조국이 광복을 맞자 반공스님께서는 온 인류[人類]가 함께 실천해야 할 정신으로 '世界一花(세계일화)'를 일러주셨습니다.

'세계는 한 송이 꽃이니, 너와 내가 들이 아니요, 해와 달, 공기와 물, 산천초목이 들이 아니요, 이 나라 저 나라가 들이 아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한 송이 꽃'이라고 말입니다.

스님께서는 우리나라가 머지않은 장래에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세계인의 마음을 정신적으로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불자들이 자기 마음을 올곧게 지키고 있으면 이 세상에 평화의 꽃을 피우는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장 원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자신이 만든다는 것을 모릅니다.

어떤이가 행복을 찾아 집을 나섰지요. 많은 세월 행복을 찾아 세상을 헤매었지요. 행복을 찾지 못한 나그네는 지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담 넘어 매화가지에서 꽃망울 터진 것을 보고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 나그네처럼 우리는 공기를 마시고 살면서도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또 다른 곳에서 공기를 찾고 있는 셈입니다. 스스로 진리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밖에서 진리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만인이 귀하해야 할 깨달음은 멀리서 다른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서 나 스스로 발견해야 합니다.

간혹 불자 중에는 불교를 '부처 믿는 종교라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자기를 찾을 생각보다는 밖에서 무엇을 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의 마음자리를 들여다보면 됩니다. 자신의 깨끗한 본래성품이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으세요. 불교의 가르침은 스스로 자신의 불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속 말고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자기 자신의 본성을 때문에 불교에서는 문자를 세우지 않고 그 문자에서 가르치는 마음의 진리만을 전하는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이 곧 '선방'이라는 것이지요. 자신을 찾는 데는 별도의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있는 곳이 어디든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자신을 찾기 위해 정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이 영원할 것처럼 세속의 일, 물질위주의 삶에 너무 집착해 있습니다. 탑 진치 삼독에 물들어 살면서도 자신은 그것을 모릅니다. 불나비가 저 죽을 줄 모르고 불속에 뛰어 드는 것과 같고, 예리한 칼끝에 물혀져 있는 꿀을 빨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집착하기 때문에 끌없는 방황과 착각과 고통에서 허덕입니다. 진실로 삶의 참된 의미를 알고자 한다면 모든 것을 놓으세요. 움켜쥐었던 손을 활짝 펴세요. 그 때 비로소 자신의 참모습이 드러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사바세계에 나타나신 것도 바로 인간 그대로가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그 이치를 가르쳐주기 위해 나투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것도 인간의 몸 그대로 부처가 될 수 있음을 당신께서 몸소 보여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이 이치를 이해하려 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밥솥 안에 있으면서 밥을 찾지 못해 굶어죽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 안에서 부처를 찾다 죽는 이는 그나마 다행이고, 물질에 집질 끌려 다니다가 허망하게 인생을 마치는 이들이 대다수 입니다.

내 마음, 내 부처, 내 본래면목을 찾으십시오. 그것만 찾으면 탑나고 성내고 어리석은 중생심은 저 멀리 사라지고 항상 안락하고 평화로운 세계가 바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처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참선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참선은 수행법 중에서 자신을 찾는 가장 편하고 빠른 지름길이지요. 참선법은 연구나 공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선정진은 일체 생각을 쉬고 일념에 들되, 일념이라는 생각조차 잊어버린 무념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사를 걸고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항상 해맑은 웃음…공부 미진땐 엄한 꾸중

선농일여 새 가풍 수립 · 덕숭총림 설립

지난 내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를 이루지 못한다"고 짧게 말씀한 뒤 웃음으로 마감하신다. 큰스님을 친견한 사부대중들은 해맑은 스님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속에 환희심이 솟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남자들이 공부를 위해 찾아오면 굉장히 엄격하시다. 이치를 일러주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곧바로 주먹이 나간다. 한대 두대 세대... 스님은 '도인'이라는 헛 껍데기에 끄달려 1700 공안만 달달 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저절로 법향이 우러나는 진실한 수행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원담 스님은 염화실에 사부대중이 찾아오면 웃음으로 화답한다. 그래서 염화실은 웃음이 그치질 않는다. 하지만 스님이 내리시는 법문은 의외로 짧다. "항상 조발심의 자세로 자신의 본래면목을 찾으라"며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성품을 지녔다"고 말씀하신다.

1926년 전북 옥구에서 태어난 원담스님은 1937년 출가, 5년간 천장사와 전월사 등에서 만공 스님을 시봉하며 행자생활을 했다. 스님은 16세가 되던 1941년 벽초 스님을 은사로 만공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스님의 은사인 벽초스님은 주지 소임을 살면서도 평생 법화에 올라 법문한 적이 없었다. 백장 스님의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선농일치(禪農一致)사상에 입각하여 일평생 직접 농사를 지으며 열심히 정진했다. 이러한 벽초 스님의 농선도인(農禪道人)가풍을 그대로 계승한 원담 스님은 일하면서 참선을 게을리 않는, 선농일여(禪農一如)의 가풍을 진작시키기도 했다.

스님은 만공 선사로부터 전법게를 받은 후 가행정진하다 1970년 수덕사 주지로 취임, 1983년 덕숭총림을 설립했다. 이후 <만공법어집>을 발간하는 등 덕숭선맥의 선풍을 계승하기 위한 수행에 힘써오다 입산 86년 덕숭총림 3대 방장에 취임했다. 현재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이다.

심산스님의 스님이야기

원통스님

몸집 작고 단아한 '풀란드 스님'
선무도 지도…영어로 법문도

작이 점도가 있다. 그래서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선무도를 가르쳤다. 어린아이 눈에 비친 외국인 스님의 선무도 강의와 실습은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시간이었다. 아마도 먼 훗날까지 아이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준 셈이다.

스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은 '미국스님'이라는 말이다. 스님은 플란드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으레 처음에는 미국스님이라고 부른다. 그럴 때면 얼굴이 뜸시 구겨진 불쾌한 표정으로 답한다. 이해가 가는 일이다.

그렇게 좌충우돌 살면서 사람들과 친해지기 시작하더니 우리말을 배우는 속도가 빨라져서 법회 때에는 신도들의 측원문을 읽을 정도가 되었다. 불꽃은 블론, 천도의식에 금강경 독송을 할 때면 신이 나서 독송을 한다. 때로는 참선에 대한 지도와 영어로 법문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지금은 처음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분야에 익숙해져서 오히려 김치를 즐기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스님이 되어 있다. 보이는 모습은 엄연히 다르지만 원통 스님이 앞으로 불교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리라고 본다.

■(사)한나래 문화재단 이사장



심산스님의 스님이야기 원통스님

출가 후 지금까지 삼아오는 동안 비교적 오래 함께 살았던 스님 중에 외국인 스님이 한명 있다. 서울 화계사 숭산 큰스님의 상좌인데 원통이라는 법명을 쓰는 플란드 스님이다. 눈은 푸르고 코는 오뚝하지만 자그마한 몸집이 외국인이라는 거대한 느낌하고는 거리가 먼 단아한 모습의 스님이다. 내가 통도사부산포교원에 사는 10년 동안 거의 5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긴 시간을 함께 한 스님이라 해도 될 것 같다.

처음에는 우리말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었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는 가운데 이런 일도 있었다. 종무소에 근무하는 보살님의 딸 선하가 초등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한창 글을 배우던 선하가 유일하게 원통스님을 잠짝 못하게 하는 강적이었다. 하루는 종무소에서 선하가 발아쓰기를 하자고 제의를 했다. 원통스님이 볼 때 안 하자니 체면이 안서고, 하기에는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었다. 결국 서로 한 단어씩 부르면서 연필로 쓰는데, 선하가 '통도사' 라고 불렀다. 각자 가리고 손 후 서로 확인을 하는데 갑자기 비웃는 소리가 들렸다. 원통스님이 틀린 것이다. 신이 난 아이의 흥분한 목소리와 몇 쩍은 스님의 서툰 표현으로 서로 놀리고 우기는 소동이 일어났다.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도 천진난만하고 재미있는 모습이었다. 초기에 그렇게 어린아이와 겨루면서 배운 한국말의 수준이 이제 거의 다 알아듣고 반 이상은 표현하는 정도가 되었다.

또 이런 문화적 충격도 있었다 한다. 처음 화계사에 와서 한철 참선수행을 하고난 후 고향에서 먼런 커피가 간절히 생각이 나서 산문 밖을 나가게 되었다. 한글을 잘 모르던 원통스님은 커피 간판이 그려져 있는 다방으로 들어갔다. 서구식 카페를 연상했던 원통스님은 실내 분위기가 심상찮다고 생각하면서 자리에 앉았다. 셀프서비스에 익숙한 스님은 주문을 받으러온 여종업원에게 어색하게 "커피"만을 외치게 되었다. 그런데 커피를 가져온 여 종업원은 커피를 내려놓고 스님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이런 저런 호기심과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저 한국켄 커피 한잔에 고향의 향수를 달래 보려던 스님은 이 해하지 못할 문화적 차이에 당황했었노라고 말했다.

그리고 함께 살던 어느 해에는 이런 해프닝도 있었다. 봄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는 요즘 같은 시기에 겨우내 버르던 철새구경을 가게 되었다. 들은 대로 쌍안경을 준비해서 새벽 예불 후에 주남저수지로 달려갔다. 초행이라 막연하게 저수지에 도착한 우리는 눈이 뛰어나올 만큼 의욕을 가지고 철새를 찾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텔레비전에서 보면 그토록 새까맣게 하늘을 뒤덮던 새들이 들을 박차고 비상하는 장엄한 모습은 어디 가고 새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구경을 갔을 때는 철이 이미 지난 후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새벽하늘을 향해 떠지어 비상하는 날갯짓을 상상으로 그리며 열심히 둘러보았다. 하지만 역시나 허탕이었고, 아쉬움의 무거운 발길을 돌리고 있을 때 저만큼 앞에 까치 한 마리가 날고 있는 것이 보였다. 원통스님이 너무 반가워하며 무슨 새냐고 물었다. 생각할 여지도 없이 까치 라고 답했다. 그리고는 절로 돌아왔다. 그랬더니 원통스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철새구경을 갔는데 까치 한 마리 보고 왔노라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는 것이다.

원통스님의 특기 중 한 가지는 선무도다. 경주 골굴사에서 배운 선무도 덕에 몸이 유연하고 동작이 민첩하다. 그래서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선무도를 가르쳤다. 어린아이 눈에 비친 외국인 스님의 선무도 강의와 실습은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시간이었다. 아마도 먼 훗날까지 아이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준 셈이다.

스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은 '미국스님'이라는 말이다. 스님은 플란드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으레 처음에는 미국스님이라고 부른다. 그럴 때면 얼굴이 뜸시 구겨진 불쾌한 표정으로 답한다. 이해가 가는 일이다.

그렇게 좌충우돌 살면서 사람들과 친해지기 시작하더니 우리말을 배우는 속도가 빨라져서 법회 때에는 신도들의 측원문을 읽을 정도가 되었다. 불꽃은 블론, 천도의식에 금강경 독송을 할 때면 신이 나서 독송을 한다. 때로는 참선에 대한 지도와 영어로 법문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지금은 처음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분야에 익숙해져서 오히려 김치를 즐기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스님이 되어 있다. 보이는 모습은 엄연히 다르지만 원통 스님이 앞으로 불교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리라고 본다.

■(사)한나래 문화재단 이사장

간(肝) 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제래식(키미술)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의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채을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기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일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대로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윗쟈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불자님, 이제 병고에서 벗어납시다!!

오랜세월 불보살님 가피를 입은 큰스님께서 세상에 한분 밖에 없는 초능력 힘을 지닌 불보살님으로 명명 받은 분께서, 병원에서도 치유되지 않는 원인모른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불자님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병명
수종증, 와사풍, 중풍(발병 6개월이내)
간질, 만성위염, 오장육부가 불편,
만성두통, 천식, 천도폐렴, 관절염,
만성피부질환, 정신질환 설사 및
어려운 병 등 (내방환영합니다)

※ 작명, 오행철학(五行哲學), 인생의 길 안내와 상담도 해드립니다

대구 팔공산 갓바위 뒷길 시 연 정 사
053)853-2211, 011-808-8880

승복 법복 안내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항상 최선이라는 자세로 번합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누비, 적삼,바지]

1. 모직혼방 물세탁 가능 — 적삼, 바지 : W140,000 / 동방, 바지 : W160,000 / 두루막 : W140,000
2. 면 100% 조각무늬 무직 — 적삼, 바지 : W130,000 / 동방, 바지 : W150,000 / 두루막 : W130,000



[누비,동방,바지]

3. 누 비 (면솜 100%) — 적삼, 바지 : W220,000 / 동방, 바지 : W240,000 / 두루막 : W200,000
4. 누 비 (혼방) — 적삼, 바지 : W170,000 / 동방, 바지 : W190,000 / 두루막 : W170,000
5. 법 복 (회색, 밤색) 조끼, 바지 : W60,000 ~ W65,000
6. 장삼 (모직) W200,000 ~ W250,000
7. 승복 (골덴) 적삼, 바지, 조끼 W200,000 / 동방, 바지 W190,000



[누비,두루막]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 전화로도 가시 주문 받습니다 ※

● 찾아오시는길 : 대구 지하철 청양로역 3번 출구 앞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섬유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대리점모집)

일붕문도회 소집공고

일붕큰스님 은제자 및 그 직계제자들의 모임인 「일붕문도회」가 제 5차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소집하오니, 공사다망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좋은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불기 2547(2003)년 3월 28일(금)
오전 11시

◆ 장 소 :
서울 일붕선원
(일붕문도회 전법도량)

일붕선원 : 서울시 종로구 신영동 93번지
TEL 02)379-2635, 736-2585
FAX 02)736-2584

일 붕 문 도 회 장

관 절 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악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 습 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3천배 철야정진 차량운행 안내

◆ 일 시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저녁 7시~일요일 아침 7시
◆ 호흡에 맞춰 절하는법 교육 (저녁7시~9시)
숨차지 않고 혈덕거리지 않으며 맥박이 빨라지지 않고 몸살나고 힘들고 졸립고 다리, 무릎, 허리가 아프지 않게 하려면 절하는 동작에 흡흡호 호흡법을 대입하는 교육을 2시간 받으시면 누구나 완벽하게 절할 수 있습니다.
◆ 3천배정진 : 500만배 성만한 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300배씩 10회로 매 시간 시작전에 마음다스리는 소참 법문을 듣고 끝내며 부처님전 감사 수행으로 마음 밝히고 축원 기도를 올리며 간절한 큰 마음으로 소원을 성취 하며 안생에 걸림돌이 되는 큰 업장이 녹아 내림을 체험한다.
◆ 차량운행 : 2003년 3월 29일 토요일
조계사앞 (4시)출발 → 지하철 2호선 삼성역 7번출구 한국전력 앞(5시) 경유하여 법왕정사 도착
◆ 차량 예약 문의 : 양 현 숙 011)222-3329

백만불사 108배 만일결사 수행 주십 도량 법왕정사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전화 0311771-7745 · 7038 · 6736 (Fax 겸용)
◦ 오시는길 : 양평 → 용문터널 → 단월 → 대명비발리파크 스키장 입구 청평방향 7Km
◦ 버스 (서울 상봉터미널) → 모곡행 → 모곡종점마지 전화 요망

밝은미소 건강한 마음 보람찬 인생

편안한 노후생활, 자연과 함께 쉬유로운 삶을 보낼수있는곳

성라 실버 타운 (유료양로원)

▸경기도 가평소재

▸시설안내◂
• 숙 실 수 : 96실(2인 기준) • 동 층 수 : A동, B동 - 지하2층, 지상4층
• 숙실평형 : 9.5평
• 부대시설 : 행사시설, 의료시설, 생활시설, 운동시설, 온천탕 (시공중) 등.

생식의 1식 6조
1.체질개선 4.산전한 다이어트
2.건강증진 (영식요법) 5.산전식사
3.피부조직 6.식습관 개선

[입주비용]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1실 1인	50,000,000	500,000	
	1실 2인	50,000,000	900,000	1인 25,000,000
평생입주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1실 1인	50,000,000	46,000,000	96,000,000
	1실 2인	50,000,000	70,000,000	120,000,000
입 주 금 헌납입주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1실 1인	70,000,000	없음	
	1실 2인	100,000,000	없음	

[입주상담 및 문의] 강선구 총무이사 011-9971-37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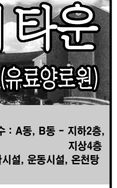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이사장 석 정 화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 성라실버타운
가평사무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49-4번지
본부사무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 2동 285번지
☎02)743-0294 / 743-4026 ☎031)585-3323~5

생식마을

살아있어서 생식입니다

건강되찾기 10년



입준규 원의학 박사
• 한양 자생원 한방병원 원장 역임
• 남원 초당 한방종합병원 원장 역임

추천서

100년을 생각한 연구를 하습니다. 몸을 생각하는 100% 자연식입니다. 고령별 생식은 감탄도 했었지 여러서 적각 대해한 계곡한 재료를 이용해 고유성, 생식법의 노하우로 배합해서 생산합니다. 재래로운 생식을 원하신다면 이제 고을 및 생식을 찾으십시오. 현당 적한병원을 통해 환자으로 공급하여 건민년과 신뢰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재래로운 생식을 원하신다면 이제 건민년에 건망님께 고을께 생식 을 이용하십시오.

1998년 11월 일 원장

생식의 1식 6조
1.체질개선 4.산전한 다이어트
2.건강증진 (영식요법) 5.산전식사
3.피부조직 6.식습관 개선

이런분들에게 필요합니다

◆ 고령 없이 체중조절을 하실 분께
저항요리 영양식으로 골라서 하는 고통없이 체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아침식사(생식)을 절대인 분인
간편하게 많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 바쁜 현대인의 식사대용으로 최적입니다.
◆ 배변이 원활하지 못해 더브해한 분들께
저켜리 식이섬유 보강, 패변을 도와줍니다.
◆ 신선한 야채섭습가 부족한 분들에게
생식의 풍부한 효소와 백아, 엽록소를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과중 성인병으로 식이 요법을 원하시는 분들께
생식의 고효능 에너지는 병환중이거나 회복중인 환자식으로 좋습니다.

"(주)고을빛 생식마을"은 태어난지 10년된 정통 전문 생식업체입니다.

※ 4개월분 구입시 25% 할인해 드립니다. 1개월분(40g × 60포)

고을빛 생식은 단식하시는 분들께 효과적 입니다.

생식완료 : 현미, 통보리, 찬두, 약용, 서근피, 율무, 보리, 참두, 수수, 찬수수, 메밀, 칡, 검은 우엉, 신선초, 계일, 현미진, 검은 참깨, 통깨, 참깨, 호박, 솔잎, 다시마, 김, 키가지, 연근, 표고버섯, 인진쑥, 결명자, 결명잎, 표백백기소 등 32종

잇단 새 봄맞이 선율

마음산책음악회 LMB중창단 찬불가·신나는 북연주

영남불교대 오케스트라 창단 첫공연 '금강경 교성곡'

니르바나 실내악단 사물놀이·해금·'부처님 이야기' 합창

온통 시방세계가 꽃물결인 춘삼월을 맞아 찬불가, 국악, 클래식, 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회가 잇달아 열린다.

창립 3주년을 맞는 불교상담개발원이 기획한 '마음산책 음악회'가 4월 3일 저녁 7시 성균관대 새천년홀에서 펼쳐진다. 제목처럼 음악을 통해 마음을 환하게 열고 각자 자신의 고요한 본마음을 볼 수 있게 해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실상사 주지 도법 스님이 "절마당의 천년고요가 한 눈에 반할만큼 매력적이고 평화롭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흙피리 소년 한태주씨가 오카리나로 '하늘연못'을 연주하며 시작을 알린다. 이어 불교남녀혼성합창단인 LMB중창단이 '룸비니에서'와 '부처님 내게 오셨네', '마법의 성'을 부른다. 이외에도 모듬북의 창시자인 김규형 국립국악관현악단 악장이 여러 개의 북을 동시에 신들린 듯 연주하며 우리 가락을 들려준다. 가만히 앉아 듣기만 해도 흥겨운 어깨춤이 덩실덩실 저절로 나올 듯 싶다. (02)737-8803

지난달 18일 창단한 영남불교대 오케스트라가 4월 9일 저녁 7시 대구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창단 첫 공연을 갖는다.

이날 공연에서는 우학스님의 '금강경'에 이달철 단장이 곡을 붙인 교성곡(칸타타) 형식의 대서사시가 연주된다. 교성곡은 순수음악으로 오페라와 비슷하지만 오페라의 무대, 분장, 의상은 없으며 극의 내용에 대한 연기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오페라와 다르다. 총 7장으로 구성된 음악 대서사시 '금강경'은 금강경 약찬게를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노래말로 바꾸어 쓴 것. 출연자들도 대서사시답게 규모가 크다. 독창 2명을 비롯해 혼성 4부합창단과 관현악단 등 총 1백5십여명이 무대에 선다.

이달철 단장은"오케스트라를 창단한 계기도 40여분짜리 '금강경' 교성곡을 연주할 단체를 수소문하다 여의치 않아 아예 영남지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음악인들을 모으게 됐다"며 "장르의 규모를 넘나들며 다양한 레퍼토리를 소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011)515-0496



◇서양의 현악기와 한국의 전통악기가 어우러진 크로스오버 음악을 연주하는 불교클래식 전문 니르바나 실내악단.

서양의 현악기와 피아노, 한국의 전통악기 대금과 가야금 등 동서양 음악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음악회도 마련된다.

'가족을 부처님처럼'이란 주제로 열리는 '제 6회 니르바나 실내악단' 정기 연주회가 바로 그것. 4월 24일 저녁 7시30분 여의도 KBS홀에서 펼쳐진다. 서현석 교수(한국종합예술대 교수)가 지휘봉을 잡을 이번 연주에서는 브람스의 '대학축전 서곡(Academic Festival Overture Op.80)'으로 막을 연다. 이어 사물놀이 '한울림예술단'이 출연해 사물놀이 협주곡 '마당'을 펼치며, 해금연주가 강은일씨가 '얼'을 오케스트라와 협연한다. '님은 먼곳에'와 '찔레꽃'을 부르는 소리꾼 장사익씨의 순서는 이번 연주회를 한껏 신명나는 무대로 꾸며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도 이번 음악회의 하이라이트는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장중한 선율을 뿜어내는 교성곡 '부처님 이야기'다. '삼귀의'의 작곡가로 유명한 최영철씨가 부처님일대기의 내용중에서 가려 뽑아 노랫말과 곡을 썼다.

불교방송 '차한잔의 선율' 진행자인 진명 스님의 감칠맛 나는 곡 해설이 함께 어우러질 이번 음악회에서는 특히 외국인 관객들을 위해 아리랑 TV 박칼린씨가 나와 영어로 통역까지 해준다.(02)415-2599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사찰음식으로 건강 다지세요"

'국제선식문화원 감로당' 여는 이여영 소장



"패스트푸드와 육식 등의 범람으로 비만과 각종 성인병의 위험으로부터 결코 안전 할 수 없는 현대인들에게 사찰음식을 통해 건강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 줄 생각입니다."

내달 15일 서울 삼청동 국립민속박물관 맞은편에 사찰음식전문점 '국제선식문화원 감로당'을 오픈하는 이여영 소장(53 · 사찰음식연구소).

30년간 쌓은 노하우를 메뉴로

"오신채가 전혀 안들어 가고 제철 채소와 나물을 주로 사용하는 사찰음식은 특히 몸과 마음을 맑게해 줘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음식입니다. 사찰음식의 올바른 포교를 위해 30여년간 연구해 온 노하우를 메뉴로 내놓을 생각이지요."라는 이 소장은 사찰 한정식 코스요리뿐만 아니라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단품요리인 '산채비빔밥', '산채모듬밥'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 맛 뿐만 아니라 사찰음식의 분위기를 한층 돋우기 위해 그릇도 연꽃문양의 도자기를 제작해 내놓을 예정이다. 이 소장은 지난해 <자연건강사찰음식>을 출간하는 등 그동안 사찰음식을 위해 헌신해 왔다. (018)236-8734.

문화소식

영화 '동승' 4월5일 개봉 명동성당서 시사회

어머니를 그리워 하는 어린 동자승 '도념'을 통해 보여지는 속세의 모습을 그린 영화 '동승'이 14일 명동성당 시사회에 이어 4월 5일 전국 100개 개봉관을 통해 개봉한다.

주경중 감독은 "올해 세계영화제에 최다 초청될 정도로 널리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동승'이 국내팬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 불자들을 중심으로 1인 2표 예매하기 운동을 벌여 수익금이 일부를 불교문화포교 사업에 보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2)762-8727.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08:30 라디오 열린마당
10:05 BBS 신행상담실
16:45 룸비니 동산
20:05 다시 듣고 싶은 노래
21:40 교리강좌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btn 불교텔레비전 <ch 32>

19일 09:40 BTN 생활문화강좌 '화(花)'
20일 07:00 송강 스님의 기초교리강좌
21일 12:20 정경 스님의 참선요가
23일 19:25 영상 니르바나
24일 07:30 지운 스님의 원각경 강의
25일 09:40 다큐멘터리 붓다의 세계

하이라이트

■불교방송:△라디오 열린마당(24일 08:30~09:00)- '휴먼닥터' 코너에서는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신호철 교수(대한가정의학회 홍보이사)가 출현해 만성피로와 스트레스에 대한 건강정보를 전달한다.

■불교텔레비전:△btn 생활문화강좌 '화(花)'(19일 09:40~10:10)-꽃꽂이의 다양한 의미와 쓰임새를 배워보는 생활문화강좌 '화'. 이번 주는 29강으로 엉겅퀴, 명자란, 조팝나무, 금잔화 등을 이용한 '늘어진 형의 꽃꽂이'를 배워본다. 또, 잘 늘어질 수 있는 꽃의 종류와 속성 그리고 작품을 오래 보존하는 방법 등을 알아본다.

전시회 2제



◇강행복씨의 판화 '차나 한잔 드시게'.

봄철 집단장에 판화 한점…

Art Styling展…100여 작가 700점 선뵈

새봄을 맞아 집단장 하는 가정이라면 거실이나 아이들 공부방에 그림 하나 걸어두는 것도 색다른 분위기 연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인사동 인사아트센터 제 1전시장에서 23일까지 열리는 '새봄, Art Styling 展'가면 강행복, 이왈종, 이대원, 황규백, 이응로, 김창렬 등 1백여 국내 유명작가의 7백여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주로 전시작품이 판화이지만 종류는 다양하다. 실크스크린, 석판화, 목판화, 세리그라프…등.

불자라면 강행복씨의 '차나 한잔 드시고 가시게'가 눈길을 끌 듯 싶다. 차나 한잔 마시고 가고 싶은 산사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마치 수묵화를 그려놓은 듯 조각해 놓았다. 또 이대원씨의 '농원'은 실크스크린기법으로 농원의 식물들을 화사한 색채로 표현했다.

이외에도 소나무 아래 의자에 앉아 사색하는 사람을 표현한 변시지씨의 '고독한 사색'과 화사한 빨간 색감이 돋보이는 김경아씨의 '7월' 등도 눈여겨 볼만하다. (02)736-1020

김주일 기자



◇나무판에 칠화종합기법을 사용해 그린 정채희씨의 '마음의 정원'.

벽화 이미지 주는 漆 그림展

정채희씨의 '마음의 정원'…몽환적 분위기

장롱과 화초장, 문갑 등 칠공예에 주로 사용되는 옻나무 수액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이미지가 펼쳐질까.

중국에서 7년간 다양한 벽화기법을 공부한 정채희씨의 '칠(漆)로 그린 그림전'에 가면 그 의문이 금새 풀린다. 오랜 시간을 두고 형성된 지층처럼 부피감과 은은한 색감이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캔버스위에 칠액을 바르고 말리고 갈고 덧칠하기를 여러번 반복한 뒤, 그리기 · 뿌리기 · 파내기 · 씌우기 · 상감하기 등 여러 기법들을 혼용한 칠화의 특성때문이다.

이런 번거로운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중도 포기가 특히 많은 분야라는게 김정희 서울대 미술사 교수의 설명이다.

그래서 나무판과 천, 아크릴 등 다양한 캔버스위에 전통칠예기법을 사용하며 입체적인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한 정씨의 이번 전시 작품들을 대하면 일찍이 그가 불교에 심취했다는 말을 굳이 듣지 않더라고 고행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22일까지 관훈동 갤러리 아트사이드에서 전시된다.(02)725-1020.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 (秘法)이 수록된 책자"

" 영가천도의 중요성 "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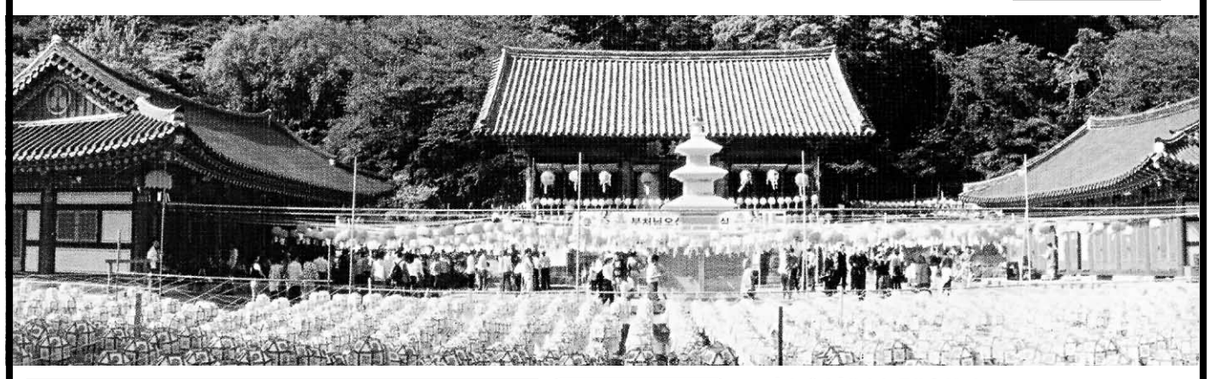
책 자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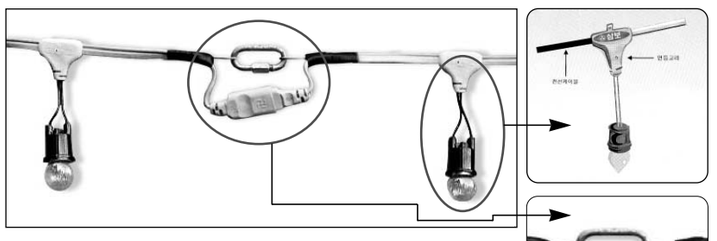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삼 보 전 기
앞선 기술력으로 천년의 생명을 지킵니다

실용신안등록 제 0190397호
실용신안등록 제 0253853호
의 장 등 록 제 0255777호
등록제품!!





거리등

T형 일체식 케이블
◆견고성 - 전선과 소켓이 일체하므로 튼튼합니다.
◆편리성 - 연등고리가 있어 연등 설치가 용이합니다.
◆일체성 - 접촉 불량이 없습니다.

외부용[연결고리]
◆외부용은 전선과 와이어를 함께 압출하여 별도의 와이어나 로프가 필요없다. 연결고리가 부착되어 설치와 철거가 용이하다.

규격
· 내부용 : 22cm, 28cm, 35cm, 40cm, 50cm, 기타
· 외부용 : 50cm, 1M, 1.5M, 2M, 3M
※ 주문시 간격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 불에 타지않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없습니다.
다양성 사찰과 법당의 규모 및 환경에 따라 최적의 전선을 사용합니다.
내구성 특수재료로 인장력을 강화하여 날씨 변화에 영향이 없습니다.
경제성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깔끔하게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생각하는 기업
삼보전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499-4
TEL. (031)972-5056
H·P. 011-327-5056

삼보전기만의 축적된 기술로 안전하게
제작 · 시공 및 확실한 A/S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아이 안전, 이렇게 지켜요



◇3월11일 서울시민 안전체험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소화기 사용법을 배우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가상체험 통해 재난 대처 방법 익혀

프로그램 이용한 인터넷 교육도 한 방법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 1999년 6월 씨랜드 화재 사고,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일상생활에서 안일하게 생각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까지 앗아가는 것이 바로 안전사고다. 이러한 사고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만 하더라도 승객들 대부분이 지하철 문 여는 방법이나 소화기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해 더 큰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가장 좋은 안전교육은 현장 체험을 통해 사고 대처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6일 문을 연 '서울시민안전체험관'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 안전학교' 등의 안전 체험학습장은 아이들과 함께 둘러볼 만하다.

서울소방방재본부가 운영하는 서울시민안전체험관(safe119.seoul.go.kr)에서는 소화기 사용법을 익히고 연기가 자욱한 복도를 따라 길을 찾아가는 등 실제 상황과 비슷한 20여 종류의 가상 재난체험을 통해 대처방법을 익힐 수 있다.

우비를 입고 들어가는 풍수해 체험실에서는 대형 송풍기와 스프링클러가 초속 10~50m의 바람을 뿜어내고 비를 뿌려 강풍과 폭우가 몰아치는 상황을 연출한다. 일반 가정의 부엌처럼 꾸며진 지진체험실에서는 진도 1에서 7까지의 지진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지진이 나면 안내원의 설명에 따라 가스와 전기를 차단한 뒤 출입문을 열어두고 식탁 밑에 몸을 숨기는 요령을 배운다.

체험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또는 전화(02-2049-4000)로 방문 3일 전 예약해야 한다. 서울시민안전체험관은 2006년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에 제2체험관을 여는 등 체험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 안전학교'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기 쉬운 안전사고의 구체적인 사례와 예방법을 체험해 볼 수 있게 꾸며져 있다. 교통안전, 전기 및 가스안전, 베란다 추락사고, 사고 발생 때 신고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을 체험 위주로 가르친다.

직접 체험관을 찾기 어렵다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교통, 화재, 가스안전 등 10개의 인터넷 안전학교를 운영하는 '어린이 안전학교'(www.go119.org)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용 프로그램과 교육지침서 등을 다운받을 수 있다. 적십자간호대가 운영하는 '꼬마안전짱'(ccoma.redcross.ac.kr)의 '엄마와 함께 배워요' 코너에서는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설명과 응급처치 방법을 볼 수 있다.

소방방재본부 김광진 구조구급과장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부터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면 안전의식이 몸에 배게 돼 위급상황에서도 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며 "주변에서 일어나기 쉬운 안전사고의 대처방법은 부모들이 평소에 설명해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어린이 안전교육장 관련 사이트

단 체 명	내 용
시민안전체험관(safe119.seoul.go.kr)	화재, 지진, 폭풍우 등의 재난을 체험하면서 대응요령을 익힐 수 있다. (02)2049-4000
어린이 안전학교(www.isafeschool.com)	5~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기 쉬운 안전사고의 구체적인 사례 및 예방법을 배울 수 있다.(02)406-5868
세이프키즈코리아(safekids.or.kr)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과 자전거 안전운전 면허시험 등을 실시한다. (02)3477-7943
어린이 안전학교(www.go119.org)	어린이 교통질서, 화재, 가스 전기사고, 놀이 안전 교육 및 응급처치법을 제공한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꼬마안전짱(ccoma.redcross.ac.kr)	적십자 간호대학이 운영하며 어린이 사고예방, 아동학대 예방법, 보행안전, 응급처치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안전생활교육회(www.childsafety.or.kr)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제시하고 적절한 대처방법을 소개한다.
한국 119소년단(www.young119.or.kr)	'119 소방교실' 등을 운영하며 화재예방교육과 안전교육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클릭 / 불교문화상품
www.mahamall.co.kr

관세음보살 양각판

수익금 복지시설 건립기금 사용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는 관세음보살. 불교전통의식교육원 연구과정을 수료한 구달 스님의 '관세음보살 양각판'은 앞면에는 관세음보살이, 뒷면에는 발원이 조각되어 있다. 작품 수익금 전액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기금으로 사용된다. 값 9만원. (02)732-1520

소설가 남지심의 化緣에서 찾은 내 안의 너 안의 나

기도의 효험

"선생님, 기도가 정말 효험이 있는 건가요?"

20대 중반의 아가씨가 손끝으로 안경을 밀어 올리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은 저는 속으로 답을 생각하며,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아가씨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정직하고 착하지만 생활력이 없는 아버지는 혼자서 가정을 꾸려 본 일이 없이 일생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어머니가 자신의 쪽배에 다섯 식구를 태우고 힘겹게 노를 저어왔는데, 이제는 어머니마저 노를 저어 갈 힘을 잃고 있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 중 누군가가 나서서 어머니가 젓던 노를 대신 저어 갈만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바라보는 가족 모두의 마음은 괴롭다고 했습니다.

슬하에 삼남매를 둔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생을 이끌어 오셨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생을 이끌어 오셨다는 말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내포돼 있는데 하나는 생활인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고, 다른 하나는 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새가 양 날개를 저어서 하늘을 오르는 것처럼 현실적인 생활과 종교적인 생활을 양립하면서 삶을 이끌어 오셨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있으면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에게서 느끼게 되는 숙연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어머니 마음속에 불보살님 계십니다

이렇게 한 가정의 중심이 되어 살아온 어머니는 어느덧 환갑을 맞이하게 됐는데, 환갑을 맞은 어머니 앞에 가로놓여있는 것은 어머니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채라고 합니다.

맏아들, 그러니까 자신의 오빠가 신장이 안 좋아서 병원을 드나들게 되었는데 그 때마다 지기 시작한 빚이 다시 빚을 만들면서 커지기 시작해 이제는 어머니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금 갚는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은 물론 이자를 갚는 일마저 힘들게 된 어머니는 사면초가의 어려움 속에서 너무도 힘들게 살고 계신데,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있으면 정말 불보살님이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애쓰고 계신가? 하는 의문에 잠기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문에 잠길 수밖에 없는 아가씨의 심경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녀 어머니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는 게 좋겠군요. 결혼 직후 남편이 생활인으로서 무능하다는 것을 안 어머니는 자신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과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결심했을 때는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직장구하는 일이 쉽지 않기도 했지만, 출산을 하고 나서도 아이 맡길 데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명문대학 수학과를 나온 어머니는 수학과외를 전문으로 했는데 다행히 반응이 좋아서 하루에 두 팀, 세 팀 아이들을 모아서 그룹과외를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정 살림을 하면서 과외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수입이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월등히 좋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을 감당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수행의 끈을 놓지 않고 새벽이면 늘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고, 시간만 나면 반야심경 사경을 해서 집에는 어머니가 사경한 사경노트가 어머니 키만큼 높게 쌓여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지켜오셨기 때문에 삼남매는 물론 아버지까지도 어머니가 노를 젓는 쪽배를 타고 인생의 항해를 무난히 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녀의 가정에 폭풍우가 몰아쳐 가족이 타고 있던 쪽배를 난파시킨 것은 맏아들, 그러니까 아가씨의 오빠가 급성 신장염에 걸리고부터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오빠에 대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오빠가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가 정신적인 고통에 깊이 빠져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 오빠가 급성 신장염에 걸리자 어머니는 20여 년간 계속해 오던 과외를 그만 두시고 오빠 치료에 매달리셨어요. 그러면서부터 저희 가정은 뿌리째 흔들리게 되었죠. 이제 어머니는 너무나도 지쳐계셔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는데 감당할 수 없는 고통만이 어머니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불보살님이 나타나셔서 저희 어머니를 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가 일생동안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셨는데요."

아가씨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 아가씨에게 어떤 답을 해줘야 할까요? 어머니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전생의 업인지도 모르니까, 업이 소멸될 때까지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용광로 속에 들어가 고열로 자신의 몸을 녹인 쇠만이 불순물을 걷어낼 수 있으니, 불순물이 없어질 때까지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할까요?

化緣 (02)704-3577

제8회 현대불교 신행수기 당선작 (관음종 총무원장상)

불립문자 직지인심 (하)

■不立文字 直指人心

김동난(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대행 스님께서는 일체 다른 말씀이 없으셨다. 그저 <삶은 고가 아니다> 책을 구해 남편에게 갖다주라는 말씀뿐이었다.

책을 사들고 경찰서로 가 남편을 면회했다. 남편과 내가 마주선 공간은 좁은데다 두꺼운 벽으로 칸이 막혀있었다. 순간 안과 밖의 경계는 어떤 차이가 있고, 왜 마주보고 서 있어야 했는지, 생과 사, 선과 악 모든 것이 둘 아닌 도리인 것을… 그런 생각이 들었다.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남편의 지시를 듣고 구청에 들러 상의할 만한 사람들을 만나려 했으나 귀찮다는 눈치를 줄 뿐 우리 편은 없었다. 이미 신문에도 기사화됐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에도 남편 면회를 했는데 이미 남편의 모습은 달라져 있었다. 죄수들이 신는 흰 고무신을 신고 손은 묶여 있었다. 그것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고 눈물이 마구 나왔다.

집으로 와 통곡을 했다.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겠지 실낱같은 희망을 품으면서도, 만에 하나 재판에서 실형을 받으면 어쩌나 걱정이 앞섰다. 변호사 비용 등 많은 경비가 들텐데, 실형을 받으면 퇴직금도 반으로 줄고, 아직 아이들 세 명 모두 결혼 전인데 어떻게 살아가나 살 길이 막막해진 나는 울부짖었다. 그러다가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받지 누가 대신 받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도 대신 받아줄 수 없다'는 가르침이 생각났다. 과거세 지은 업이 드러나 공부시키는 것이니 속지 말고 되집어놓고 녹이라는 큰스님의 법문이 떠오르면서 가까스로 진정이 되었다.

그때 아는 형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대뜸 "축하한다"고 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물으니 "남편에 관한 업무일지를 보고 재지휘 명령이 떨어져 (남편이)석방되게 되었다, 어디에 빽을 쓰신 거냐?"고 했다. 검사가 서류를 검토한 뒤 내리는 권한으로 조사기록이 되돌아와 다시 조사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단다. 그 순간 '부처님빽(?)은 이렇게 광대무변, 무시무종이구나' 생각이 들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계에 두루 하신 일체제불 보살님, 대행 큰스님, 주지스님, 검사님, 선망부모님, 일체 한마음 주인공께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를 큰 소리로 외쳤다.

남편에게서도 풀려났다는 전화가 왔다.

당시 대전 법조계 비리와 전 대법원장 부인 옷로비사건으로 나라안이 온통 시끄러워 더욱 힘들었다. 1년 6개월간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담당 검사가 수시로 바뀌고 1심 재판장까지도 바뀌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때마다 난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했다.

재판중 겪었던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다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나를 성숙시킨 큰 공부였던 것 같다. 당시는 세월이 왜 그리 더디 가던지…. 어디를 가도 편치 않았고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몰랐다. 그렇게 1년의 세월이 흘렀다. 남편의 변호사 선임 비용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해결했고 생활비는 딸아이 결혼비용 모아놓은 것으로 충당했다. 금전적인 어려움 보다도 난 남편의 누명을 벗기고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일념에 기도처를 찾아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남편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추징금 1천5백만원의 실형을 받았다. 주위에서 도저히 이기기 어렵다고 했지만 우리는 항소를 했다. 그동안 아침예불은 물론 기도를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지장보살의 명호를 부르며 마음을 다해 참회를 했다. 천도재도 지냈다.

항소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2000년 5월, 최종 판결이 나는 날이었다. 남편은 결과를 보러 집을 나섰고 드디어 11시경 전화가 왔다. "여보! 나 살았어.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 미안해" 남편의 밝은 음성이었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덕수가 사는 주소를 여기저기 대다가 담당 판사로부터 크게 야단을 맞았다고 한다.

판사가, 너같은 인간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하게 됐느냐고, 감옥에 들어갈 사람은 너 라며 큰 소리로 야단을 치자 다행히 김덕수는, 뇌물이 아니라 보증 서준 대출금 돌려주었다고 정직하게 진술을 했다고 한다.

판결은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3백만원으로 매듭 지어졌다. 남편은 공직생활을 계속 할 수 있었으나 본청인 시청에서 1심 판결 결과로 근무정지 6개월을 받았다. 6개월 후 남편은 새 부서로 발령 받아 지금까지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큰 사건을 겪게 되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내 주장자만 확실히 쥐고 간다면 주인공은 한마음이 되어 잘 돌아간다는 진리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자비를 베풀어주신 부처님께 큰 감사를 드린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불법을 더 열심히 배우고 정진하겠다고 늘 다짐하고 있다.(끝)

큰스님 법문 떠올린 순간 석방소식 들어

재판중 겪었던 고통, 나를 성숙시킨 큰 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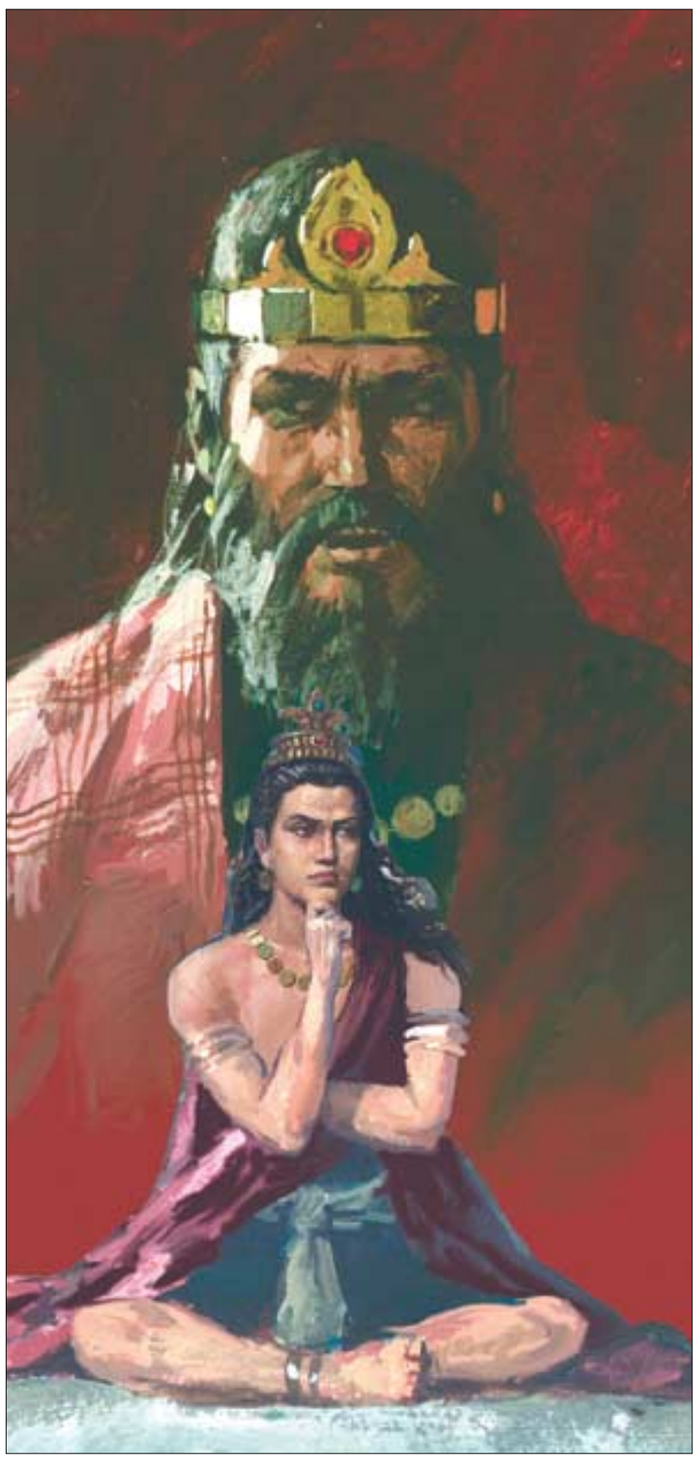
주장자 확실히 쥐면 한마음되는 도리 깨달아

그림 · 김홍인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4화 사문유관상 ②



그날 이후 태자는 태자궁의 벽을 향하여 앉은 채로 무엇인지 깊은 사색에 골똘히 빠져들고 있었다. 처음 성문을 나서면서 만났던 노인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싯다르타 태자가 한동안 태자궁에 깊이 숨어 앉아 생(生)과 늙음(老)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하여 깊은 번뇌에 빠져들었으나 아직까지의 지혜로는 아무런 해답도 얻을수 없었음이 분명했다. 그토록 불안하게 주시했던 숫도다나 라자의 걱정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태자의 마음속에 고뇌의 파도가 일고 있음을 부왕인 숫도다나 라자의 눈에는 선명히 보였다.

더 이상 방황하는 태자를 두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숫도다나 라자는 그의 총성스러운 신하들 중 가장 뛰어난 학자들을 은밀히 불러 온갖 설법을 다 동원하여 태자의 마음을 돌려보도록 하였다.

대왕의 명을 받은 노 대신들은 서로 교대해 가며 태자에게 가서 세상의 모든 예와 이치를 들고 이 세상에는 태자가 첫번째의 출궁에서 경험했던 충격들 보다 더 밝고 즐거운 일들로 충만해 있음을 증언하며 태자의 번뇌가 부질없는 것임을 설득해 갔다.

지금까지 화려한 궁중생활만 해오고 바깥세상의 경험이 부족한 태자는 결국 박식한 노대신들의 끈덕진 설득에 마음의 평정을 잃고 판단력에 큰 동요를 일으키게 되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더 흐르자 태자의 마음속에 차츰 번뇌의 충격도 잊어갔고, 또 신하들의 간곡한 권유도 있어서 다시한번 출성(出城)하여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기로 결심했다.

'또다시 지난번처럼 태자를 당황하게 만들면 큰 일이다' 고 생각한 부왕은 미리부터 신하들을 풀어서 태자가 행차할 길을 깨끗이 청소하고 단장한 후 잡인들의 접근을 철저히 막아 태자로 하여금 세상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신비로운 조화만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성밖으로 나간 싯다르타 태자는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맑고 시원한 공기를 호흡하며 역시 인생은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즐거움 속에 빠져들었다.

"아, 시원한 바람 그리고 상쾌한 공기, 사방에서 불어오는 향긋한 꽃의 향기, 과연 세상은 아름답고 향기롭도다! 내가 대신들의 말을 듣고 성문을 나서길 정말 잘했도다!"

이때의 모습을 노래한 기록이 있으니 바로 유명한 붓다챠리타(Buddha-Carita)가 그것이다. 그 한구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성밖에는 울창한 동산 숲이 있고,
흐르는 강물과 맑고 시원한 숲이 있었다.
온갖 꽃들과 과실 나무들이 줄을 이어 늘어서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었고,
온갖 이상하고 기이한 새들이 그 속을
훨훨 날아다니며 놀고 있었다.
연못과 내를 뒤덮은 네 종류의 꽃들은
불꽃처럼 타오르며 기묘한 향기를 내풍기고,
기녀들의 아름다운 연주와 노래를 태자에게 바친다.
태자는 그 아름다운 연주와 노래를 들으며
동산 숲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낸다.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니
그 동산 숲에 뛰어들어 놀아보고 깊은 생각만이 간절하다.
그것은 마치 묶여있는 코끼리가 항상
넓은 들을 그리워하는 것과 같았다."

그런데 또다른 불전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그때 정거천(淨居天)의 천인(天人)은 태자가 세상의 한쪽 면만 보며 즐기고 다른 한쪽 면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있음을 걱정하였다. 이에 정거천 천인은 갑자기 태자의 눈앞에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병자(病者)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비록 숫도다나 라자가 며칠 전부터 수많은 병사들을 풀어 모든 잡인들의 접근을 철처히 막았으나 정거천 천인의 갑작스러운 출현을 어찌 막을 수 있었을 것인가.

갑자기 태자의 눈앞에 한 병든 노인이 보였으니 몸은 바짝 마르고 배는 퉁퉁 부었으며 숨소리는 길게 헐떡거린다. 팔과 다리 또한 뒤틀려 바짝 말랐으며 슬프게 우는데 고통의 신음소리 뿐이었다. 크게 놀란 태자는 어자(御者)에게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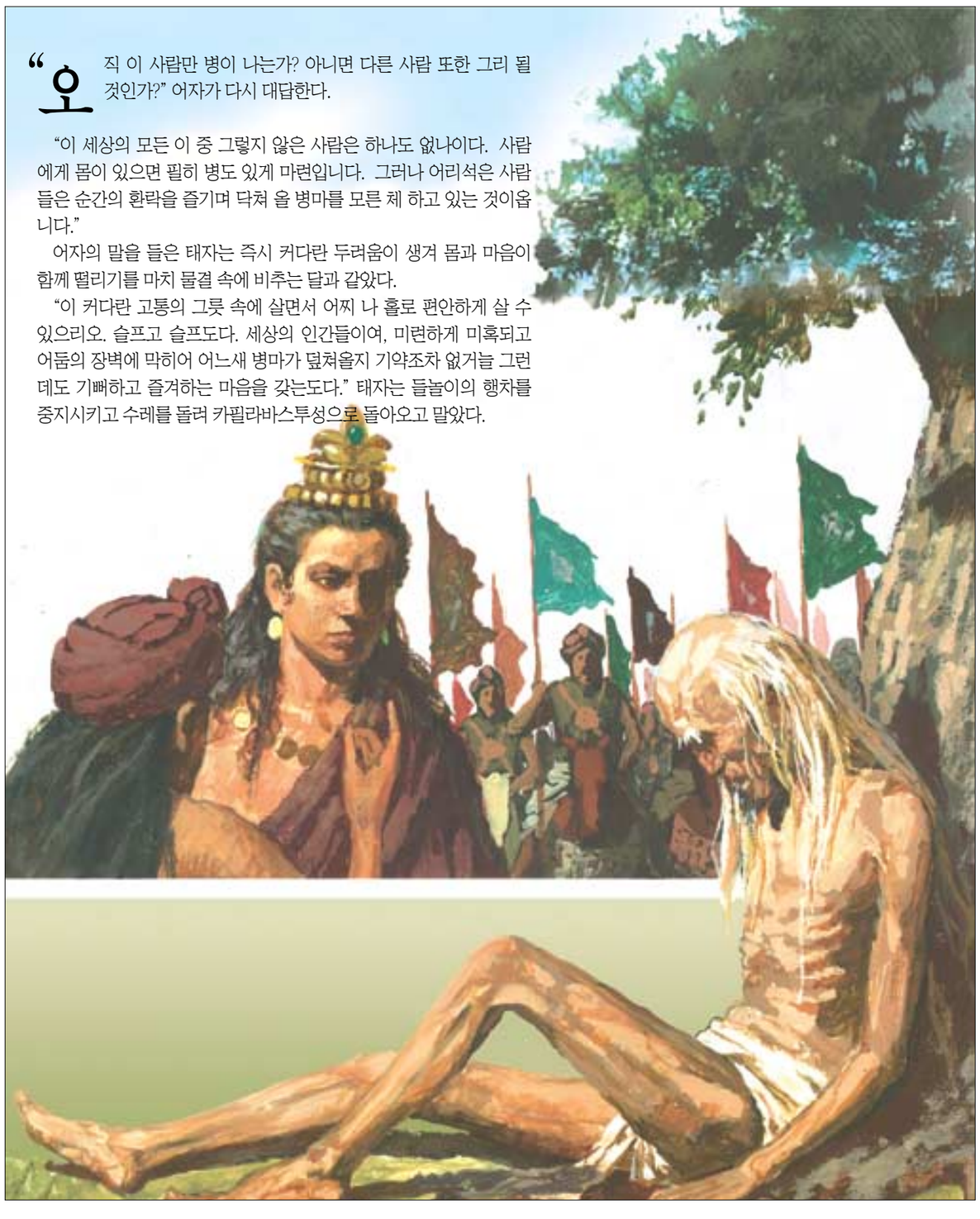
"이것은 또 어찌된 사람인가?"

어자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은 병자(病者)로소이다. 흙과 물과 바람(地水火風)이 모두 함께 뒤섞이어 혼란하니 몸의 기가 빠져 나가고 살은 여위어 고통을 이길 수 없으므로 이리저리 몸을 뒤집으며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자로소이다."

이 말을 들은 태자는 곧 불쌍하고 가엾은 생각이 들었다.





"오직 이 사람만 병이 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 또한 그리 될 것인가?" 어자가 다시 대답한다.

"이 세상의 모든 이 중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나이다. 사람에게 몸이 있으면 필히 병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순간의 환락을 즐기며 닥쳐 올 병마를 모른 체 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어자의 말을 들은 태자는 즉시 커다란 두려움이 생겨 몸과 마음이 함께 떨리기를 마치 물결 속에 비추는 달과 같았다.

"이 커다란 고통의 그릇 속에 살면서 어찌 나 홀로 편안하게 살 수 있으리오. 슬프고 슬프도다. 세상의 인간들이여, 미련하게 미혹되고 어둠의 장벽에 막히어 어느새 병마가 덮쳐올지 기약조차 없거늘 그런데도 기뻐하고 즐겨하는 마음을 갖는도다." 태자는 들놀이의 행차를 중지시키고 수레를 돌려 카필라바스투성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궁 깊숙이 숨어버린 태자는 깊은 시름에 잠겨 사람이 늙어 흉칙한 모습으로 변해 버리는 것과 몸에 병을 얻어 고통속에 몸부림치며 생을 보존하려는 노인의 슬픈 모습을 상기하며 "무슨 방법으로 그들을 고통 속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장차 이 나라의 제왕으로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전륜성왕이 될 것이라고 아시타 선인이 예언했다지. 그러나 나는 지금 늙고 병들어 고통에 울부짖는 힘없고 가엾은 나의 백성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구해줄 수도 없는 무능한 인간 아닌가. 나같은 것이 무슨 전륜성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그 선인이 너무 늙어서 망령되게 예언을 했었겠지."

자신의 무능을 한탄하며 깊은 고뇌의 수렁에서 헤어날 줄 몰랐던 태자는 이제는 미쳐버릴 것만 같은 고통을 곱씹으며 성안을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태자는 우연히 성의 서쪽 문 성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싯다르타 태자가 도성(都城)의 서쪽 문 성루에 올라 깊은 시름속에 빠져 있을때 바로 성문을 빠져 나가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흠, 저것은 죽은 사람이 아닌가? 죽는다는 것이 저와 같이 슬픈 일인 것인가? 도대체 죽음이란 또 무엇인가? 나는 아직까지 병들고 늙어가는 고통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지금 죽음을 두고 슬퍼하는 저들의 고통은 또한 어찌해야 하는가? 사람은 태어날 때 흙, 물, 불, 바람의 네 가지 요소로서 자연의 조화로 태어났다가 다시 죽음을 맞이하여 자연으로 되돌아 가버리는 윤회의 반복인데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저토록 애통해 하는 것일까?"

태자는 자기도 모르게 성문을 빠져나가 그 상여의 슬픈 행렬을 따라가고 있었다.

상여의 행렬은 얼마후 반강가(Banganga)강에 도착하였다. 강가에는 다비(화장)만 전문으로 치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시체의 머리는 강쪽으로 향하고 하얀 옷이 입혀지더니 이내 장작더미에 올려 놓고 장작아래에 쌓아 놓은 짚더미에 불이 붙여졌다. 순식간에 불길이 타오르며 시체의 타는 냄새가 사방으로 진동했다.

시체의 몸은 대부분이 수분(물)이어서 그것이 수증기가 되어 공중으로 날아 올랐다. 그것은 곧 비에 섞여 다시 지상으로 떨어지겠지…. 태자는 깊은 생각에 잠기면서 이 다비예식을 끝까지 보았다.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존경하는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큰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본래 밝게 켜져 있음을 깊이 알아 믿고 근본과 하나되어 마음대로 쓸 줄 알아야

오늘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래 우리는 항상 한자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헤어지기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99% 부처 될 가능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우리 몸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 속에는 대뇌와 소뇌가 있고, 대뇌는 다시 좌 · 우측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전체를 보이는 현상 세계 50% 보이지 않는 세계 50%라고 한다면, 대뇌의 좌측은 50%의 보이는 현상 세계 속에서 우리의 오관으로 보고 느끼며 사는 생활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대뇌의 우측은 그 나머지 50% 세계인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잠재의식 자체의 아주 광대무변한 법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뇌의 우측과 좌측이 다 같이 계합되어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사람은 참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보이는 현실 생활에 대한 판단하는 능력도 뛰어나지만, 눈으로 보이는 현상세계가 나오게 된 그 이면, 즉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에 대한 판단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뇌 안에 우측과 좌측이 한데 계합이 되어야만 어디에도 걸림없는 여여(如如)한 지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시 생활 속에서 닥치는 모든 것을, 즉 오관(五管)을 통해 닥쳐오는 모든 것을 즉시 마음으로 골라서 놓는다는 것은, 바로 대뇌의 좌측으로 들어서 우측으로 전달(통신)된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들고나는 그 어떤 것이든지 대뇌의 좌측으로 들어서 대뇌의 우측으로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바로 모든 것을 자기 근본 주인공에 놓고 사는 사람, 또 자기 근본과 한마음으로 계합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무시하고 보이는 50%만 가지고 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물의 결과 속을 환히 다 비춰볼 수 있는 마음의 능력, 즉 본래부터 다 갖춰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온 그 지혜는 여러분 대뇌의 좌측과 우측이 송두리째 계합이 되어 여여하게 되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안 나오고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시계추와 같아서 항상 좌 · 우측 대뇌로 통신이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지만 다만 여러분이 그것을 감지할 수가 없고 더구나 생각조차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의 중용을 발휘할 수가 없을 뿐입니다. 그러면 대뇌의 좌측이 먼저냐, 우측이 먼저냐? 하고 여러분은 문젠지만 이건 어느 것이 먼저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것이든지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다 똑같이 순환이 되고, 다 똑같이 대뇌로부터 소뇌로 전달되어서 모두 사대로 통신이 된다고 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고 의아해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먹어보지 못한 음식은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생각도 못하니까 먹고 싶은 마음은 더구나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한테 제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면져드리면 그때서야 여러분은 생각을 냄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애비 묘지와 자식 묘지가 있는데, 양면에 구멍이 뚫렸느냐. 그런데 자식이 애비한테 가면 애비로 하나가 되고, 애비가 자식한테로 오면 자식으로 하나가 되니 그 연고는 무슨 연고인고?' 하고 물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젊었을 때에, 그저 무조건 길을 걸을 때에 있었던 얘기입니다만, 이 도리나 우리 대뇌의 좌 · 우측 기능이 송두리째 계합이 되어 하나가 되는 도리나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면 대뇌의 좌우측은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을까요? 대뇌의 좌측에서는 항상 오관을 통해서 들어는 것을 대뇌의 우측에 말겨 놓게 됩니다. 이 말겨 놓고 말김을 받는 관계는 마치 어린 아들이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에게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말기는 이치와 같습니다. 즉 대뇌의 좌측이 아들이라면 그 우측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믿고 무엇을 탈랠 때도 '아버지!' 드릴 때도 '아버지!' 감사할 때도 '아버지!' 어려울 때도 '아버지!' 이와 같이 자기가 자라기 전까지는 아버지한테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장성해서 어른이 되어 자립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부모를 믿고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대뇌에서 좌측은 우측으로 다 말기게 됩니다. 다 말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우측 대뇌는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다 말기게 되면, 옳은 것을 말김 때에는 당연히 옳은 것이 나오겠지만, 설사 불리한 것을 말겼다 해도 불리하지 않게끔 되어 바깥으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꼭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측 대뇌는 마치 용광로와 같아서 좌측 대뇌에서 말기는 모든 것을, 즉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녹여서 좋은 새 쇠로 만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기분이 나쁘다, 속이 상한다 하더라도 한번 안으로 말겨서 거기에서 한번 걸러서 밖으로 내놓는다면, 아까 말김 때와는 달리 지금은 좋은 말로 나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화가 났다 해서 그냥 공이 골대로 대뇌의 우측으로 전달되어 돌릴 사이도 없이 골바로 쏘아댄다면, 거기까지 지혜의 능력이 밝게 비춰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능력이 밝게 비춰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밝은 등불을 저만치 놓고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고도 돌부리에 차이고,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본래 밝은 지혜의 불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본래부터 밝게 켜져 있음을 깊이 알아 믿고, 그리고 하나 되어 마음대로 쓸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99% 부처 될 자격을 갖고 태어났다는, 그 여러분 것도 다 녹여서 새로운 것으로 누구에게나 좋은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이 세상에 나왔다는 엄청난 진실을 깊이 믿고 정말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이나 물건을 받는 다면 참으로 고맙다,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자기 몸을 형성시켜서 이끌어 가는 지혜의 능력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주상 보시를 받으며 공기를 마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수화풍의 생명에게 참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지수화풍 사대의 근본, 즉 우주 천하대지와 모든 생물을 나투어 형성시켜 준 자기를 고마워할 줄을 모르고, 자기 밖의 어떤 대상이나 관념에 속아 거기에다 빌고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죄를 사해달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다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듭고 다니는 이 땅도 생명체와 같이 세포가 있고 자력 전력 광력 통신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자력이 있는 것과 같이 땅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한발 디디면 우리에게 자력이 있어서 땅을 끌어당기듯이 땅에는 자력이 있어 자기 힘대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을 딛고 다닐 수 있기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마음 주인공 안에는 모든 일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천문학이나, 지리학, 물리학, 의학 등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끝으로 땅을 딛고 다닌다 해도 서로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시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어떤 스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통지를 받고서 속가로 가서는 산소를 쓰기 위해 아버님의 관을 이끌고 밭이 가는 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딱 멈춰서지는 곳에 아버님을 매장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님께서 한 발 한 발 땅을 딛고 가기 때문에 발이 딱 멈춰진 곳 그 자리가 그대로 법이요, 좋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쁜 곳이라 해도 좋은 곳이라고 딱 지적하면 좋아지고,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해도 저 자리는 안되겠다 한다면, 아무리 좋은 데에 묘 자리를 썼다 해도 그 집안은 아주 안되게끔 되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생각을 잘 낸다, 돌린다 하는 것은 바로 운전을 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이 좋게 이루어졌다면 '아, 좋게 한 것도 거기지. 잠 감사하구나!' 하고 일일하여 딸겨 놓을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생활화 하기 위해서, 부처님 뼈다귀나 끌여 먹고, 또 부처님 이름이나 팔아서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하고 산다면 차라리 햇바닥을 깨물고 죽어버리지 하고선 그냥 내버려두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또 다시들 나오더라.

저는요, 지금까지 신도님들이 많이 나오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조차 해본 바가 없습니다. 부처님 팔아서 그런 걸 많이 해서 필 한다는 말입니까? 따지고 본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아끼고 아끼던 부모 자식도 다 버리고 가게 되고,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던 몸도 가져가지 못하고, 집도 가져가지 못하고, 내 몸마저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귀중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남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더불어 같이 돌아가면서 너와 나에게 다 해를 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 시간 약속 지켜라! 의리를 지켜라! 그러면서 그것마저도 거기에 모두 딸겨 놓고 지킨다면, 구태여 팔정도니 육바라밀이니, 사제법이니, 십이인연법이니 따지지 않더라도 계율도 다 지킬 수 있고, 또 더불어 다 같이 유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일일이 따져서 올바르게 보아야 한다, 올바르게 들어야 한다, 올바르게 정진해야 한다 이렇게 일일이다 해야 된다면, 그 소리를 다 듣고 복잡해서 언제 공부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언제 알 수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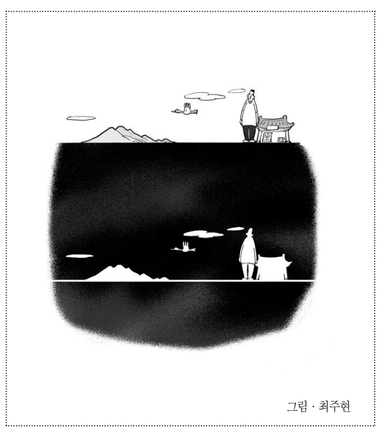
지난달에도 자세히 얘기했듯이, 여러분 각자가 이미 오신통의 재료를 충만히 갖고 있으므로 그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대로 요리해서 먹을 수도 있고 또 남에게도 먹여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골바로 들어가십시오! 언제 요것조것 따지고, 이론 따지고, 경전 따지고, 학식 따지고, 정도니 사도니 따지고 그럴 새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사람은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유 따지지 말고 골바로 들어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리가 참으로 광대무변한 법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 갖추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재료가 자기에게 다 있는 것이니 땃일께 요리를 하여 먹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떠한 사회적인 또는 자연적인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면,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나 피해를 주게 된다고 할 때, 바로 내 한생각 진심으로 낸다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나쁜 일들은 다른 데로 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작은 일이나 인류적인 큰 일을 막론하고 다 여러분 자신이 할 일이며 또 할 수 있는 일이지 누가 대신 해주거나 좋은 결과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자신이 갖추고 있는 그 재료들은 누가 갖다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빼앗는다고 해서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그러면서 항시 오고감이 없이 오고가는 그러한 지혜요, 능력이오, 원력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 모든 것을 자기 주인공에 놓다 보면 놓는다는 것도 다 놓게 되며, 다 놓게 될 때에 스스로 우리의 이루어지게 되고, 그대로 무심도가 되어서 한생각을 내면 내는 대로, 들어갈 들어는 대로 모든 것이 구족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경우, 그 한 소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옛 선지식들께서는 할! 하기도 하고, 주장자를 들어서 내려치기도 하고,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내밀기도 하고, 또는 벽력같이 소리를 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서산대사께서도 공부하실 당시에 쌀을 한 짐 마차에 싣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그만 소가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서산대사께서 그 쌀을 한번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지고 가서 사시 마지 때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고 했던 쌀인데 어째서 내가 지고 가지를 않고 소에다가 밀어 던졌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스님께서 그 쌀을 직접 짊어지고는 왔던 것이라 되돌아가서 다시 20리를 걸머지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다 마음입니다. 절대로 남에게 미루지 않으려는 마음 말입니다.

이렇게 하여 스님께서 천일 동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있는 중인데, 어느 날은 공양을 올린 다음 자리에 앉아 관하고 있으니까 벌안간 일곱 사람이 나타나 총을 겨누면서 그냥 막 쏘아대더랍니다. 그런데 총 쏘는 그 사람들을 돌아보니 그냥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나 우스웠서 그냥 하늘을 쳐다보고 얼마나 크게 웃었던지 그 소리가 저 중국대륙에까지도 전부 다 들렸답니다. 서산대사께서도 이와 같이 깨우치시고 다시 돌아다보니 총 쏘던 사람들이 간 곳이 없더랍니다.

☞ 3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모든 것 한 생각에 맡기면
삶이 곧 행선이며 참선이고
여여한 생활을 하는 길

천지개벽해도 눈 깜짝 않는 믿음
이것이 원력 · 지혜 · 영원한 밝음

보이는 50%만 가지고 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제점
해결할 수 없어

☞ 29면에서 계속

이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우리 모두 다 갖추고 있음을 명심하길

그러면 서산대사께서는 그 한 생각을 과연 어떻게 하였길래 깨우치셨고, 또 어떻게 하였길래 일곱 사람이 총을 쏘려고 겨누었으며, 그리고 총을 쏘고 나서는 얼어붙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곱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께서는 또 각각 보시겠지요. 저 칠성별도 각각 보시겠죠? 그것도 각각 보시니까 그것도 각각 보시겠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저 태양도 나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공부를 하신 서산대사께서는 그 후부터는 여태한 것들이 온다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냐? 바로 나 하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 나 하나를 버린다면 구태여 무엇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 여기에 건물을 짓고 난 후에 한 번은 도둑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부근에 집이 한 채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하루는 제가 일하는 아이 보고 "오늘은 도선생님이 오실 것 같다. 그러니 문을 꼭 꼭 잘 잠궈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어떤 선생님이 오신다구요?" "도선생님 오신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도선생님이 누구신데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가져가면 도선생이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서야 그 아이가 깔깔대고 웃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 문을 다 잠그고 있는데 결국은 내가 말을 해놓고 내가 문을 열어놓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지하실 보일러를 내가 직접 때고 그랬었는데 새벽녘이 되어서 추우니까 보일러실로 내려가서 보일러를 켜고 화장실에 갔다가 그만 화장실 문을 잠그지 않고 그냥 나왔단 말입니다. 하여튼 다시 방으로 들어와서 팔장을 끼고 앉아 있는데 누가 문을 사르르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가 새벽 4시쯤 되었는데 말입니다. 그래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내가 "어서 오세요" 하니까 "어!" 하며 아주 난감해하고 서있어요. 그런데 마침 옆에 플어놓은 시계가 있어서 내가 그것을 집어 들고 "아니 왜 사람을 놀라게 합니까? 드릴 것도 없는데, 드릴 게 있으면 오시라고 할 테니까 그때 오도록 하세요." 그러면서 그 시계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뒤에 따라가는데 한참 뒤따라가면 제일 대사는 앞서가는 서산대사를 보고 또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키는 조그맣고 몸통이는 가냘퍼서 불쌀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저분이 과연 대도를 이루었을까?' 하고 의심이 더럭 나는 겁니다. 잠생긴 자기 모습에 비하면 스승이신 서산대사는 정말 너무도 못 생겼고 불쌀이 없었습니다. 걸 생기기로 말하면 정말 너무나도 천지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명대사는 속으로 '저런 분이 정말 대도를 이루었을까? 과연 내가 진정한 스승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을까?' 하고 의심하면서 슬슬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순간, 서산대사께서 휙 뒤로 돌아서면서 벽력같이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어놈아! 그렇게도 못 믿겠고 그렇게도 보잘 것 없는 겉로 보인다면 지금 당장 돌아가거라!" 하고 사정없이 야단을 치니까 사명대사는 그만 자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아! 내 속까지 들여다보시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구나.' 하고 사명대사는 생각하다가 마침내 생각을 굳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겸심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팥으로 메주를 쑨다고 하더라도 스승이신 서산대사를 믿겠다.' 이렇게 각오를 굳혔습니다. 그 후부터 사명대사는 서산대사께서 거꾸로 간다고 해도 "네! 옳습니다" 바로 간다고 해도 "네! 옳습니다" 하고 믿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렇게 가던 어느 날, 천야만야한 절벽 위를 두 분이 가다가 저쪽 큰 집 쪽에서 커다란 구렁이가 나오니까 스승이 제자를 탁 밀어 던졌습니다. 그 천야만야한 낭떠러지로 밀어 던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명대사는 어디로 떨어졌느냐 하면 절에 부목이 나무 해다 놓은 나뭇짐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나뭇짐 위에 툭 떨어져서 자기 몸뚱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명대사가 "떠다 밀으셔도 요런 데로 떠다 밀으셨으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스님!"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사명대사는 서산대사에게로 다시 올라가서 백배 사례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서산대사가 하는 말씀이 "떨어진 것이 화가 나느냐?" 하니까 사명대사가 "아닙니다. 스님!" "그러면 떨어진 것이 좋은 일이냐?" "아닙니다." "그러면 떠다 밀어 넣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이냐?" "아닙니다. 스님!" 그러니까 서산대사께서 "그만하면 됐구나!" 하시고 그 이튿날부터 무엇 얻을 주는냐 하면, 솥일째리 짧은 물에다 날 콩가루를 타서는 한 그릇씩 주는 겁니다. 물론 서산대사께서도 같이 마시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고 난 사명대사는 설사가 어떻게나 나는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들락날락하느라고 앉았다 섰다도 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설사를 하느라고 드나드니까, 서산대사께서는 커다란 작대기를 들어 사명대사를 사정없이 후려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놈아! 나는 먹고 뀐 똥을 누는데 너는 어째서 먹고 설사만 하느냐? 지금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서 온통 난리를 치는데도 그래 설사하기에 볼일 못 본다면 그래 가지고도 어찌 막대기 하나 손가락 하나는 제대로 쳐들 수가 있겠느냐? 솥수만 배워 가지고는 철대로 안되느니라. 솥수라는 것은 우리가 급할 때라야 쓰는 것이지 진짜 우리가 도를 이루려면 그게 아니니라." 하면서 작대기로 어찌나 때리는지 그냥 설사 통곡이 다 쏙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명대사가 그 날부터야 된 똥을 누기 시작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스승이 그러한 솥수가 참으로 필요하였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체험하고 써보면서 대도를 이루신 분이 서산대사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명대사께서 새를 한 마리 잡아 가지고 덜렁덜렁 왔습니다. 제가 좀 빼먹고 말하더라는 뜻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방에 들어와서 새를 손에 쥔 채 사명대사가 서산대사에게 하는 말이 "제가 이 새를 날려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죽이겠습니까?" 이럽니다. 그러니까 서산대사께서는 아무 소리 없이 일어나 문지방에 걸터 서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가겠느냐 들어오겠느냐?" 하니까 사명대사가 그만 그 한 말씀에 뚝 떨어진 거죠.

그래서 사명대사는 서산대사에게 큰절을 올리며 스승을 의심치 않고 믿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마음 한쪽에서는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스승이 육신통을 좀 했다고 해서 정말 대도가 이루어졌을까? 저런 솜수는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사명대사는 한가지 계책을 쓰기로 하고, 무엇을 했느냐 하면 계란 쌓기를 했습니다. 계란을 아래서부터 위로 쌓아서는 지붕까지 쌓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산대사께서 쓰윽 그것을 보더니 "거 참 장난 심하구먼. 그럼 나도 장난 좀 해 볼까?" 하시고는 계란을 지붕에서부터 아래로 내려 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옳은가, 그것이 옳은가?" 하고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만 사명대사는 하는 수 없이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다시는 의심치 않겠습니다." 하면서 서산대사에게 백배사죄를 드리고 다시 스승으로 모시며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언젠가는 서산대사께서는 앞장을 서시고 사명대사는 뒤에 따라가는데 한참 뒤따라가면 사명대사는 앞서가는 서산대사를 보고 또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키는 조그맣고 몸통이는 가냘퍼서 불쌀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저분이 과연 대도를 이루었을까?' 하고 의심이 더럭 나는 겁니다. 잠생긴 자기 모습에 비하면 스승이신 서산대사는 정말 너무도 못 생겼고 불쌀이 없었습니다. 걸 생기기로 말하면 정말 너무나도 천지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명대사는 속으로 '저런 분이 정말 대도를 이루었을까? 과연 내가 진정한 스승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을까?' 하고 의심하면서 슬슬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순간, 서산대사께서 휙 뒤로 돌아서면서 벽력같이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어놈아! 그렇게도 못 믿겠고 그렇게도 보잘 것 없는 겉로 보인다면 지금 당장 돌아가거라!" 하고 사정없이 야단을 치니까 사명대사는 그만 자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아! 내 속까지 들여다보시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구나.' 하고 사명대사는 생각하다가 마침내 생각을 굳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겸심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팥으로 메주를 쑨다고 하더라도 스승이신 서산대사를 믿겠다.' 이렇게 각오를 굳혔습니다. 그 후부터 사명대사는 서산대사께서 거꾸로 간다고 해도 "네! 옳습니다" 바로 간다고 해도 "네! 옳습니다" 하고 믿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렇게 가던 어느 날, 천야만야한 절벽 위를 두 분이 가다가 저쪽 큰 집 쪽에서 커다란 구렁이가 나오니까 스승이 제자를 탁 밀어 던졌습니다. 그 천야만야한 낭떠러지로 밀어 던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명대사는 어디로 떨어졌느냐 하면 절에 부목이 나무 해다 놓은 나뭇짐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나뭇짐 위에 툭 떨어져서 자기 몸뚱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명대사가 "떠다 밀으셔도 요런 데로 떠다 밀으셨으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스님!"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사명대사는 서산대사에게로 다시 올라가서 백배 사례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서산대사가 하는 말씀이 "떨어진 것이 화가 나느냐?" 하니까 사명대사가 "아닙니다. 스님!" "그러면 떨어진 것이 좋은 일이냐?" "아닙니다." "그러면 떠다 밀어 넣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이냐?" "아닙니다. 스님!" 그러니까 서산대사께서 "그만하면 됐구나!" 하시고 그 이튿날부터 무엇 얻을 주는냐 하면, 솥일째리 짧은 물에다 날 콩가루를 타서는 한 그릇씩 주는 겁니다. 물론 서산대사께서도 같이 마시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고 난 사명대사는 설사가 어떻게나 나는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들락날락하느라고 앉았다 섰다도 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설사를 하느라고 드나드니까, 서산대사께서는 커다란 작대기를 들어 사명대사를 사정없이 후려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놈아! 나는 먹고 뀐 똥을 누는데 너는 어째서 먹고 설사만 하느냐? 지금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서 온통 난리를 치는데도 그래 설사하기에 볼일 못 본다면 그래 가지고도 어찌 막대기 하나 손가락 하나는 제대로 쳐들 수가 있겠느냐? 솥수만 배워 가지고는 철대로 안되느니라. 솥수라는 것은 우리가 급할 때라야 쓰는 것이지 진짜 우리가 도를 이루려면 그게 아니니라." 하면서 작대기로 어찌나 때리는지 그냥 설사 통곡이 다 쏙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명대사가 그 날부터야 된 똥을 누기 시작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스승이 그러한 솥수가 참으로 필요하였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체험하고 써보면서 대도를 이루신 분이 서산대사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명대사께서 새를 한 마리 잡아 가지고 덜렁덜렁 왔습니다. 제가 좀 빼먹고 말하더라는 뜻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방에 들어와서 새를 손에 쥔 채 사명대사가 서산대사에게 하는 말이 "제가 이 새를 날려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죽이겠습니까?" 이럽니다. 그러니까 서산대사께서는 아무 소리 없이 일어나 문지방에 걸터 서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가겠느냐 들어오겠느냐?" 하니까 사명대사가 그만 그 한 말씀에 뚝 떨어진 거죠.

그래서 사명대사는 서산대사에게 큰절을 올리며 스승을 의심치 않고 믿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마음 한쪽에서는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스승이 육신통을 좀 했다고 해서 정말 대도가 이루어졌을까? 저런 솜수는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사명대사는 한가지 계책을 쓰기로 하고, 무엇을 했느냐 하면 계란 쌓기를 했습니다. 계란을 아래서부터 위로 쌓아서는 지붕까지 쌓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산대사께서 쓰윽 그것을 보더니 "거 참 장난 심하구먼. 그럼 나도 장난 좀 해 볼까?" 하시고는 계란을 지붕에서부터 아래로 내려 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옳은가, 그것이 옳은가?" 하고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만 사명대사는 하는 수 없이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다시는 의심치 않겠습니다." 하면서 서산대사에게 백배사죄를 드리고 다시 스승으로 모시며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언젠가는 서산대사께서는 앞장을 서시고 사명대사는 뒤에 따라가는데 한참 뒤따라가면 사명대사는 앞서가는 서산대사를 보고 또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키는 조그맣고 몸통이는 가냘퍼서 불쌀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저분이 과연 대도를 이루었을까?' 하고 의심이 더럭 나는 겁니다. 잠생긴 자기 모습에 비하면 스승이신 서산대사는 정말 너무도 못 생겼고 불쌀이 없었습니다. 걸 생기기로 말하면 정말 너무나도 천지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명대사는 속으로 '저런 분이 정말 대도를 이루었을까? 과연 내가 진정한 스승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을까?' 하고 의심하면서 슬슬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순간, 서산대사께서 휙 뒤로 돌아서면서 벽력같이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어놈아! 그렇게도 못 믿겠고 그렇게도 보잘 것 없는 겉로 보인다면 지금 당장 돌아가거라!" 하고 사정없이 야단을 치니까 사명대사는 그만 자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아! 내 속까지 들여다보시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구나.' 하고 사명대사는 생각하다가 마침내 생각을 굳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겸심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팥으로 메주를 쑨다고 하더라도 스승이신 서산대사를 믿겠다.' 이렇게 각오를 굳혔습니다. 그 후부터 사명대사는 서산대사께서 거꾸로 간다고 해도 "네! 옳습니다" 바로 간다고 해도 "네! 옳습니다" 하고 믿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렇게 가던 어느 날, 천야만야한 절벽 위를 두 분이 가다가 저쪽 큰 집 쪽에서 커다란 구렁이가 나오니까 스승이 제자를 탁 밀어 던졌습니다. 그 천야만야한 낭떠러지로 밀어 던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명대사는 어디로 떨어졌느냐 하면 절에 부목이 나무 해다 놓은 나뭇짐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나뭇짐 위에 툭 떨어져서 자기 몸뚱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명대사가 "떠다 밀으셔도 요런 데로 떠다 밀으셨으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스님!"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사명대사는 서산대사에게로 다시 올라가서 백배 사례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서산대사가 하는 말씀이 "떨어진 것이 화가 나느냐?" 하니까 사명대사가 "아닙니다. 스님!" "그러면 떨어진 것이 좋은 일이냐?" "아닙니다." "그러면 떠다 밀어 넣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이냐?" "아닙니다. 스님!" 그러니까 서산대사께서 "그만하면 됐구나!" 하시고 그 이튿날부터 무엇 얻을 주는냐 하면, 솥일째리 짧은 물에다 날 콩가루를 타서는 한 그릇씩 주는 겁니다. 물론 서산대사께서도 같이 마시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고 난 사명대사는 설사가 어떻게나 나는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들락날락하느라고 앉았다 섰다도 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설사를 하느라고 드나드니까, 서산대사께서는 커다란 작대기를 들어 사명대사를 사정없이 후려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놈아! 나는 먹고 뀐 똥을 누는데 너는 어째서 먹고 설사만 하느냐? 지금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서 온통 난리를 치는데도 그래 설사하기에 볼일 못 본다면 그래 가지고도 어찌 막대기 하나 손가락 하나는 제대로 쳐들 수가 있겠느냐? 솥수만 배워 가지고는 철대로 안되느니라. 솥수라는 것은 우리가 급할 때라야 쓰는 것이지 진짜 우리가 도를 이루려면 그게 아니니라." 하면서 작대기로 어찌나 때리는지 그냥 설사 통곡이 다 쏙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

사찰 홈피 네티즌 끌어안기 나서

2~3년 사이 2배 증가, 팜플렛 페이지 탈피 시도
만화·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지속적 업데이트

검색엔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네이트(www.nate.com)에서 '불교'를 주제로 카타고리 검색을 해보면 불교관련 홈페이지는 488개다. 이 가운데 사찰 관련 홈페이지는 210개로 2~3년 전에 비해 거의 2배가량 늘었다. 하지만 과거에는 사찰 홈페이지의 수도 적었고 방문자도 그리 많지 않았다. 사찰 홈페이지 가운데 대다수가 팜플렛 페이지이기 때문이다. 팜플렛 페이지란 한번 만들어진 홈페이지가 업데이트 되지 않고 고정불변의 모습으로 지속될때를 말한다.

그러나 최근 사찰 홈페이지가 다양한 콘텐츠를 무기로 네티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6개월 내지 1년에 한번정도 홈페이지의 디자인을 바꾸고 사찰소개 등 기본 정보 제공은 물론 만화, 불교영화, 스님 동영상법문, 커뮤니티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다.

서울 조계사(www.ijogyesa.net)는 지난달 청장년층에 다가가는 사찰을 만들기 위해 홈페이지를 인터넷 조계사 방송국으로 개편, 조계사에서 열리는 모든 법회를 동영상 콘텐츠로 만들고 자체 라디오 방송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보관하고 있던 노전 본오스님의 독경과 합창단의 찬불가를 디지털화해 업데이트하고 있고 다음의 조계사 관련 70여개의 카페도 조계사 홈페이지 지대방 코너로 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계사는 자체 서버를 구축했고 전산담당자도 보강을 했다.

부천시 원미동에 위치한 향림사는 불교포탈 '불교야 놀자(http://www.hyanglimsa.com)'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처음에는 향림사 사찰 홈페이지로 도메인을 신청하고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나 불교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는 불교포털사이트가 없어 홈페이지를 확대개편했다. '불교야 놀자' 홈페이지에서는 향림사에서 열리는 모든 법회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고 있고 향림사에서 운영중인 불교대학 강의도 동영상으로 볼수 있다. 특히 불교만화방에는 현재 시중 서점에서 팔리고 있는 백유경, 불타 석가모니, 화엄경 등 다수의 만화를 무료로 볼수 있고 국내에서는 볼수 없는 티벳불교관련 자료, 불교미술 자료 등 많은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함께 컴퓨터에 해박한 스님과 전산 담당자들이 매일 관련 자료를 업데이트 하고 있고 사찰 홈페이지 제작, 전산종무원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외에도 합천 해인사, 양산 통도사, 순천 송광사, 김천 청암사, 봉화 청량사, 양산 내원사, 경주 불국사, 강화 전등사 등의 사찰 홈페이지도 네트즌들이 자유게시판에 활발히 글을 올리거나 동영상, 사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승가대 불교사회과학연구소 박수호 선임연구원은 "인터넷이 현대인의 일상이 되면서 사찰에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데만 급급했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아 그동안 많은 네티즌들이 사찰 홈페이지를 외면해 온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그러나 최근들어 정보화 마인드를 갖춘 사찰에서 자체 서버를 두고 전산담당 종무원이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 업데이트하고 있어 앞으로 불교문화콘텐츠의 외연을 넓히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사 찰 명	홈페이지 주소	특 징
전 등 사	http://www.jeondeungsa.org	정족산 사고, 조선왕조실록 수록
동 학 사	http://www.donghaksa.or.kr	동학승가대학, 동학지 업데이트
청 량 사	http://www.cheongryangsa.org	동영상 등 청량사 보도자료 모음
내 원 사	http://www.naewon.or.kr	고속철 천성산 통과 반대 운동
불 국 사	http://www.bulguksa.or.kr	불국사 영상, 행사 영상 등 제공
해 인 사	http://www.haein-sa.or	네티즌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활발
통 도 사	http://www.tongdosa.or.kr	수완스님 선화, 자유게시판 활성화
송 광 사	http://www.songgwangsa.org	송광사보, 인터넷 앨범 활성화
조 계 사	http://www.ijogyesa.net	사중 스님 커뮤니티, 조계사 방송국
향 림 사	http://www.hyanglimsa.com	불교포탈, 만화·불교영화 등 콘텐츠 풍부
법 장 사	http://www.bupjangsa.org	일요법회 법문 업데이트
청 암 사	http://www.chungamsa.org	청암지, 동영상으로 보는 청암사 눈길

우리절 digital·cyber 불사

화순 운주사
(www.unjusa.org)

그리 깊지 않은 골짜기 그러나 탑과 불상이 천개씩이나 들어차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염원하는 중생들의 비원이 담긴 사찰. 창건 배경과 시대 등이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불가사의의 사찰 화순 운주사(주지 정행)의 디지털 불사는 사이버 공간에 천불천탑을 세우는 것으로 요약된다.

숙제를 하는 초등학생에서 논문을 쓰는 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자료 수집의 첫 번째 방법으로 인터넷이 꼽히는 시대. 운주사의 홈페이지(www.unjusa.org)도 운주사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도량이다. 2000년 정행스님이 사이버공간의 불사를 선언하며 만든 운주사 홈페이지는 사찰의 신비를 가상세계에 그대로 옮겼다.

인터넷에 천불천탑 도량 건립 불사
사이버 법당 경건한 신행 의식 공간



◇운주사 종무원이 홈페이지에 사찰소식을 등록하고 있다.

네티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는 운주사 소개와 둘러보기다. 운주사가 갖는 신비를 홈페이지에서도 느끼고자 하는 것이다. 운주사 소개는 비교적 간단하게 사찰의 역사와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운주사의 역사가 학계에 정설로 드러난 것 보다 추측성 이야기가 더 많은 탓이다. 둘러보기 코너가 운주사 홈페이지 서핑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개괄적인 지형도에 탑이며 불상 건물들이 소개되어 있고 보고 싶은 곳을 클릭하면 상세 설명이 나온다.

물론 바위 밑에 옹기종기 모여 선 불상들, 형상이 반쯤만 남은 탑들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운주사에서 봐야할 탑과 불상들에 대한 정보는 빠진 게 없다. <동국여지승람> 등의 사료에는 일천의 탑과 일천의 불상이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고 기록돼 있다. 운주사에는 현재 22기의 석탑과 213좌의 불상이 남아 있다.

운주사 홈페이지에서는 기도를 할 수도 있다. 사이버 법당에 들어가면 아주 경건한 분위기의 법당을 만나게 되는 것. 사이버 법당을 들어가면 길게 누운 와불님을 먼저 만나고 관음정근을 비롯한 정근을 선택할 수 있다. 동자승의 안내를 받아 초를 클릭하면 촛불이 켜지고 그 다음에는 설정 모드를 움직이며 예불문과 반야심경, 천수경, 이산 혜연선사 발원문 등 9가지의 의식을 함께 할 수 있다.

연등달기, 기도접수, 인등접수도 가능해 직접 사찰을 방문한 것과 같은 마음으로 사이버 법당을 이용할 수 있다. 연등 달기는 직접 기원문을 쓸 수 있으며 인등 접수에서는 불단과 자신의 인등을 켠 원불을 확인할 수 있어 흥미롭다.

화순=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책 시급

4명중 1명 꼴로 증세 보여
조사대상중 59.9% 폭력 경험

청소년 4명 가운데 1명은 사이버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명중 6명은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조정우 박사는 38개 문항으로 된 사이버중독 지표를 개발해 전국의 중 3과 고 1학생 2,5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중학생 27.5%, 고교생 23.8%가 사이버중독 현상을 보이고 있고 전체 59.9%가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음란물에 대한 정보를 접한 경우는 전체의 59.3%가 노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사이버폭력이나 엽기 정보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12.8%가 '조금 또는 매우 심각하다'고 답해 사이버 폭력에 대해 관대한 편이었으며 스팸메일에 대해서도 19.1%만이 '조금 또는 매우 심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게시판 엿보기

일반인들이 산사의 사찰을 찾을 땐 세속에서 벗어나 부처님을 뵈면서 뭔가 마음의 위안을 삼고 깨끗한 공기로 오염된 마음까지도 씻고 싶은 생각이 많을 것입니다.

심채연, 동화사방명록

마음의 여유를 갖고 찾아보는 나의 쉼터, 정안양화 보살님의 따뜻한 감정의 표현인 시를 읽으면서 책상위의 난 한그루와 커피 내음과 나의 감정이 춤추는 듯합니다.

김현수, 원각사선우회

내가 가진 하나 우리 이웃에게 다정한 미소와 따스한 손길로 건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진다면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리고 오색영롱한 새들이 날아와 고운 소리 내며 노래할 것만 같습니다.

청량사, 청량사열린공간

해외불교사이트 순례 ——■ 트라이시클(http://www.tricycle.com)



유명한 불교계의 계간잡지 트라이시클(http://www.tricycle.com). 인터넷에서도 만날 수 있다.

세계 불교계 이슈 한눈에

불교계간지 트라이시클(www.tricycle.com)은 1991년 창간한 불교잡지로,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다. 국배판으로 세계 불교계의 각종 이슈와 불교문화에 대한 기획기사, 칼럼, 인터뷰, 소설, 최신 불교서적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면 가판 판매 가격보다 저렴하게 트라이시클을 구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신 이슈는 물론 지난 이슈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이트를 꾸미고 있으며 불교관련 상품들을 판매하는 쇼핑몰까지 구성해 다양한 불자들의 요구를 소화해 내고 있다.

트라이시클 사이트에서는 다르마센터, 불교의 기초, 매일의 법구 등 불법에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코너도 맛볼 수 있다.

불법승 삼보를 뜻하는 '트라이시클'은 선의 세계에 빠져들려는 초보자의 마음을 담았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Avatar. 밝은길 아바타 센터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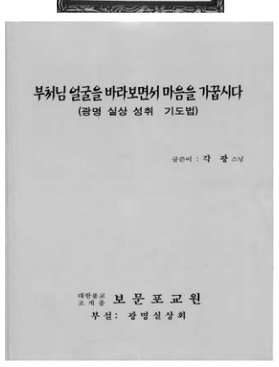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광명실상 성취기도법을 알리며 · · ·

부처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신 것은 물질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생명을 위함입니다.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체(마음)을 위함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진정한 불자(佛子: 부처님의 자식)입니다. 마음의 그림자라는 몸은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업, 병, 악, 고통, 재난, 불행, 죽음도 다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마음이 '운명'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운명과 마음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운명은 '마음'의 자취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 이치를 깨달으면 뜻하는 대로 자기 운명을 지배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실상은 '부처님의 자식'이고 '영원한 생명'이며 '실상 완전 원만'하므로 이것의 향상됨이 없이 생멸(生滅)하는 육체로서 대표시킬 수는 없습니다. 생멸(生滅)하여 항상 됨이 없는(無常) 온갖 것은 실체가 아니며 한낱 신념의 반영에 불과합니다. 이 진리를 믿는 불자님은 무한생명(無限生命)을 얻어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미숙하고 불확실한 인생의 역경이 부처님과의 인연을 소중히 하는데서 확실하고 생명력 있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라 여기게 됩니다. 행복·희망·번영·건강·성공의 근원은 부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소중히 여겨 가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금도 없고, 능력, 인맥, 학력, 가문, 문벌도 없으며 더욱 생명까지도 없었던 불자님들이 오늘날까지 살았으며 살아나갈 수가 있었던 것도 모두가 부처님과의 만남에 의지된 덕분이라 생각하며 부처님 은혜의 일념뿐입니다.





※ 이 광고를 보시고 저희에게 오시거나, 위 사진을 오려서 **광명실상회**에 편지로보내 주시면 책을 무료로 법보시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명 실상회**에서 발간한 **"부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가꿉시다"**라는 책을 읽어보시고, 새로운 마음을 내시어 **"광명 실상 성취 기도"**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본래 청정법신 이므로 **"생명의 실상"**으로 진리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다면 **행복·번영·희망·건강·성공**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며 죄와 병과 재난과 불행은 악몽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불자님께서 저희 **"광명 실상회"**에서 펼치고 있는**"광명 실상 성취 기도"**수행을 지도 받으시고, 실행하시는 삶 속에서 진리의 광명이 항상 충만하게 나투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광 명 실 상 회

광 명 실 상 회
전화 (031) 257 - 356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 486-14, 6/4
회 장 진 관 법사 합장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
전화 (051) 864 - 3740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 3동 581 (한신상가 5동 501호)
원 장 각 광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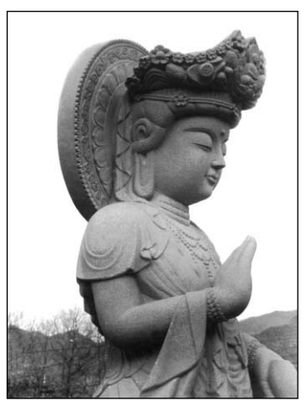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월출산.

산중습지 형성, 다양한 식물 공생도량

사찰생태연구소 · 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12) 월출산 도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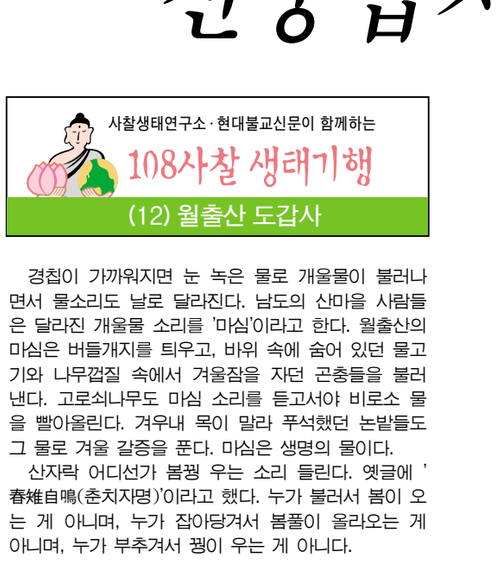
경칩이 가까워지면 눈 녹은 물로 개울물이 불러나면서 물소리도 날로 달라진다. 남도의 산마을 사람들은 달라진 개울물 소리를 '마심'이라고 한다. 월출산의 마심은 버들개지를 틔우고, 바위 속에 숨어 있던 물고기와 나무껍질 속에서 겨울잠을 자던 곤충들을 불러낸다. 고로쇠나무도 마심 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물을 빨아올린다. 겨우내 목이 말라 푸석했던 논밭들도 그 물로 겨울 갈증을 푼다. 마심은 생명의 물이다.

산자락 어디선가 봄꿩 우는 소리 들린다. 옛글에 '春雉自鳴(춘치자명)'이라고 했다. 누가 불러서 봄이 오는 게 아니며, 누가 잡아당겨서 봄풀이 올라오는 게 아니며, 누가 부추겨서 꿩이 우는 게 아니다.

봄이 오면 모두들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길옆으로 도갑천 물줄기가 마심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다.지금은 위쪽에 물길을 틀어막은 저수지 때문에 수량이 줄었지만, 도갑천은 그 옛날 서해의 배들이 올라와 마을에서 구워낸 도자기들을 실어내던 수운로였다.개울은 여울과 소가 적당하게 어울려 있어야 한다. 여울만 이어져 있거나 소만 따로 있으면 생태계의 다양성이 떨어진다. 여울은 물속에 공기를 넣어주고, 소는 부유물이 침전하여 수서곤충이나 혐기성 미생물들의 서식지가 되기 때문이다. 수질면에서도 여울과 소가 함께 있어야 좋다.

산모롱이를 돌아서면 저수지가 나온다. 지난 정월에 방생을 다녀간 흔적들이 제방둑에 여기저기 남아있다. 저수지를 하얗게 덮었던 얼음은 다 녹았지만, 물은 아직 얼음만큼이나 차다. 저 차디찬 물속에다 과연 무슨 고기를 방생했을까... 최근 방생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이 싹 트고는 있지만, 언론과 환경단체의 눈총은 여전히 따갑다.

저수지를 지나면 왼쪽으로 노적봉(420)이 듬직하게 앉아있고, 오른쪽으로는 도갑산(375)과 주지봉(491)이 이웃해 있다. 노적봉과 도갑산 사이



여울·소가 따로 존재하면 생태계 다양성 떨어져
야생차 · 참나무 · 대나무 · 동백 등 한곳에 식생

에 자리한 홍계골은 억새밭 발봉까지 길다랗게 나 있고, 동암골은 도갑산 중턱까지 나 있다. 그리고 안골이 도갑산과 주지봉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도갑사는 그 세 골짜기 들머리에 앉아있다.

월인교 아래로 도갑천 개울이 흐르고 있다. 가끔 장마철에 개울물이 범람하자 지난 2000년 가을에 영암군이 개울 주변을 수염 깎듯 정비해버렸다. 구조가 너무 직선적이라서 단순한 배수로에 그치고 말았다. 모름지기 개울은 가장자리로 수생식물들이 들어차 있어야 수서곤충과 물고기와 새들이 찾아와 보금자리로 삼는다. 그리고 토사의 유실도 막아준다. 현재 개울 주변에는 갈대 한 포기 보이지 않고, 녹조류만 물속에 그득하다. 게다가 군데군데 보까지 막아서 저수지의 물고기들이 골짜기로 오르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일주문을 지나면 왼쪽으로 상수리, 말채나무, 서어나무, 단풍나무, 산벚 같은 활엽수들이 입승들처럼 건장하게 서 있다. 숲 바닥에는 야생차들이 융단처럼 푸르게 깔려있다. 제 고향인 남중국을 떠나 산 설고 물 선 남의 땅에 와서도 굳건히 살아가는 차나무는 보면 볼수록 그 생명력이 대견스럽다. 곡우를 전후해 절에서 차잎을 따서 덖는다고 한다. 따뜻한 남쪽지방에서는 절집의 조경수로도 적합하다. 가지를 적당히 쳐주면 바자울로도 썩 좋다. 사철 푸른 데다 겨울에 꽃까지 볼 수 있으니 회양목보다야 훨씬 낫다.

해탈문을 비켜 동림암 토굴로 가는 길이 나있다. 큰 절을 돌아난 그 길은 흙냄새 나는 맨땅이다. 게다가 분위기까지 호젓해서 포행산책로에는 딱이다. 대나무와 이대가 밭을 이룬 숲 속에 잎 푸른 난대수인 붉가시나무들이 서 있다. 붉가시나무는 큰 절 뒷숲에서도 볼 수 있다. 붉가시나무 숲은 월출산이 북방한계선이다. 따라서 도상으로 보면 도갑사 북쪽으로는 자생하는 붉가시나무 숲을 보기 어렵다. 붉가시나무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자라는 상록활엽수로, 잘 자란 것은 높이가 20미터에 이른다. 동백나무와 비슷한 나무껍질은 매끄러운 편이다. 긴 타원형을 한 잎은 길이가 10센티 안팎이며, 혁질에 윤택이 있다. 암수 한 나무로 꽃은 5월에 핀다. 도토리처럼 생긴 열매는 다음해 가을에야 익는다.

해탈문을 들어서면 도갑사 경내가 활짝 열린다. 요사채 앞 작은 화단에 심어놓은 서향이 막 꽃망울을 터뜨렸다. 서향은 중국 원산으로, 상록관목이다. 한줄기에서 가지가 많이 갈라지며, 잎은 두껍고 광택이 있다. 특히 향기가 좋고 진해서 '천리향'이라고는 별명을 갖고 있다. 오층탑 옆 느티나무 가지에 오색딱다구리가 붙어서 목탁소리를 내며 먹이를 찾고 있다. 딱따구리는 숲속의 의사와 같다. 나무 속에 숨은 해충들을 구제해주기 때문이다.

용추폭포 옆을 지나면 도선국사비각 앞을 지나 등산로가 나 있다. 등산로는 홍제골을 지나서 억새밭-향로봉으로 이어진다. 놀랍게도 이 홍제골에 버들치와 함께 갈겨니가 살고 있다. 갈겨니는 피라미와 매우 비슷하지만, 눈이 크고 검다. 수량도 많지 않고 수심도 얕은 홍제골에 갈겨니가 살고 있다는 것은 기록해둘 만한 일이다. 너른곳에 사는 갈겨니에 비해 씨알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면 노가리만큼이나 굵고 크다. 갈겨니는 물 흐름이 느리고 모래가 깔린 여울에다 알을 낳는다. 유감스럽게도 홍제골에는 그런 조건에 합당한 곳이 많지 않다. 불과 몇 개의 소(沼) 밖에는 없다는 것은 홍제골 갈겨니가 항상 멸종의 위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만들어 놓은 자연관찰로가 부도전 앞에서 시작된다. 이곳 탐방로의 생태적 특징은 산중습지에 있다. 작은 개울이 산사태 등으로 해서 지형변화를 일으켜 덮히면서 습지로 바뀐 곳이다. 습지바닥은 이탄층으로 되어 있어서 푹신푹신하다. 이탄층이란 바닥에 떨어진 식물의 잎과 가지가 제대로 분해되지 않은 채 서서히 탄화되어 켜를 만든 곳을 가리킨다. 이탄층은 스펀지처럼 항상 물을 머금고 있는데, 이곳에 끈끈이주걱, 이삭귀개, 잠자리난, 은대난초, 물매화, 솟잔대 등과 같은 흔치 않은 습지식물이 자라고 있다.

습지주변과 햇볕 좋은 산기슭에는 봄꽃들이 선을 보이기 시작했다. 얼레지와 노루귀를 비롯해서 개불알풀, 애기똥풀꽃, 흰민들레, 현호색, 졸방제비꽃, 남산제비꽃, 양지꽃, 구슬봉이, 괭이밥, 산자고, 족도리꽃, 금창초, 보춘화 등이 선두주자로 나섰다. 뒤이어 홀아비꽃대, 동자꽃, 산매발톱, 원추리, 금붓꽃, 앵초, 산괴불주머니, 둥굴레, 천남성, 피나물, 앉은부채, 개별꽃, 꿀풀 등이 저마다 새 옷을 갈아입고 나올 것이다.

습지를 지나면 억새밭으로 가는 등산로와 상견성암으로 가는 갈림길이 나온다. 대나무, 참나무, 동백, 사스레피나무, 야생차나무 등이 한데 섞여서 특이한 식생을 보여준다.

키 작은 사스레피나무는 남부지방에서 볼 수 있는 상록활엽수로, 흔히 꽃다발을 만들 때 잎과 가지가 들러리로 많이 쓰이는 나무이다. 다음달이면 연한 황록색 꽃을 피울 것이다. 동백도 햇볕 좋은 곳부터 차례로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바닥에는 어린 동백들이 송송 돋아나 있다. 바닥에 낙엽이 푹신하게 쌓인 상태를 멀칭(mulching)이라고 하는데, 멀칭은 땅을 덮어 토양유실과 냉해를 막아주고, 땅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준다.

상견성암으로 가는 능선 부근에서야 소나무숲이 나타난다. 나무들도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소나무는 이곳처럼 저들끼리 회중(會衆)을 이루어야 건강하다. 활엽수 가운데 독살이를 하다보면 죽기 십상이다. 소나무와는 반대로 칡이나 송악 같은 덩굴식물들은 저들끼리 회중을 이루어봐야 별수 없다. 다른 나무들 사이에 따로따로 독살이를 해야 나무들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도갑사 얼레지

http://cafe.daum.net/templeeco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수행의 길을 지켜드리는 두 "건강지킴이"

영양 균형·유해산소 예방에-반야정식·반야정명



지사 및 가맹점 모집
▶두 가지 기능의 반야정식, 반야정명을 하나의 포장에 담아 사용이 더욱 편리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90여종의 미량 영양소를 매일 균형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영양균형은 정상적인 대사 활동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또한, 유해산소를 효과적으로 예방해야 합니다. 유해산소는 자나친 산화를 유발하는 물질로서 건강저해의 중요원인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영양균형에 반야정식
▶ 18종류의 동결건조 자연식품과 12종의 기능성 재료를 사용하여 이랑 영양소를 균형있게 공급합니다.
▶ 생체정보 공명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양균형을 실현한 신개념의 균형 대체식(代替食)입니다. (특허출원번호 : 10-2001-0027521)

유해산소 예방에 반야정명
▶ 유해산소를 비롯한 유리기(遊離基)에 의해 건강이 손상되는 과정은 잘 밝혀져 있습니다.
▶ 베타카로틴, 소나무껍질 추출물, 효모 추출물, 맥류약엽 등 8종류의 기능성 재료를 사용하여 유해산소 예방효과가 우수한 항산화 베타카로틴 식품입니다.

이런 분에 권합니다.
▶ 용맹정진 하시는 수행인 ▶ 시험공부에 몰두하는 수험생
▶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저 중사지 ▶ 더위에 도전하는 경영인

문의전화 : 02-547-7056
※ 파이트는 19년 역사의 건강기능성식품 전문제조업체인 (주)한국바이오에너지의 프랜차이즈사업부입니다.

파이트

※ 전화주시면 관련 책자(김현원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를 보내드립니다.